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1 11 Vol. 239



모스크바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 장한나 첼로 리사이틀

그녀의 첫사랑 첼로와 함께 2011년을 마무리한다.

## HAN-NA CHANG

### CELLO RECITAL WITH FINGHIN COLLINS

첼로\_장한나 피아노\_피닌 콜린스

#### PROGRAM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체 Op. 34, No. 14	Rachmaninov Vocalise Op. 34, No. 14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타타 g 단조 Op. 19	Rachmaninov Cello Sonata in g minor Op. 19
데 팔라 7개의 스페인 가곡	De Falla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gnolas
피아졸라 그랜드 탱고	Piazzolla "Le Grand Tango"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1년 **12.12** (Mon) **7:30** 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_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주관\_ 부산문화회관 문의\_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 공연과 051) 607-6057

예매\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ticketlink<sup>h</sup> 1588-7890 | **BS** 부산은행 전지점 051) 741-3255

입장권\_ VIP 100,000원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B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 김다솔 피아노 독주회


2011 원헌국제콩쿠르 3위  
2011 프랑스 에피날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2010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6위  
2010 유럽 YCA콩쿠르 우승  
2008 제네바 콩쿠르 1위 없는 3위  
2005 일본 아시아 쇼팽콩쿠르 우승 등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아닐지라도  
김다솔의 음악에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은 식을줄 모른다.  
월간 <객석> 선정 차세대를 이끌 유망주로 선정되어 진지하고 비범하게  
활동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되는 피아니스트 !!

15세의 나이였던 2005년 통영국제음악콩쿠르에서 당당 2위를 차지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피아노를 사랑하는 미소년은 17세에 독일로 건너가  
진지한 열정으로 그 성과를 하나씩 드러내며 차세대를 책임질 아름다운  
청년 피아니스트로 무섭게 커가고 있다.

## PROGRAM

F. Chopin / Mazurkas op.59  
F. Chopin / Ballade No.4 op.52  
F. Chopin / Sonata No.2 op.35  
F. Liszt / Sonata in b minor

2011년 11월 27일(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대극장

- 주최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 입장권 |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예매처 |  인터파크  티켓링크  팝부산 / 부산은행 전지점
- 음악회문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 051 740 5833 www.busanarts.com



BS 부산은행 과 함께하는

Busan Symphony Orchestra  
SINCE 1982  
제32회 정기연주회

# 제32회 말러 서거100주년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1년 12월1일(목)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_ 오충근 (수석지휘자)  
• 연주\_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임병원)

## 연주곡목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가장조 작품219 '터키풍으로'  
W.A.Mozart Violin Concerto No.5 in A Major, K.219 'Turkisch'

**말러** 교향곡 제1번 라장조 '거인' 外  
G.Mahler Symphony No.1 in D Major, 'Titan'

주최 |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 BS 부산은행 B<sup>n</sup> 비엔그룹 Chong Keun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B<sup>n</sup> 대선주조 (주)주원종합건설 L 굿모닝성모안과  
GM ST. MARY'S EYE CENTER

■ 티켓 : VIP석 3만원 / R석 2만원 / A석 1만원 (학생 50%할인)

■ 예매 : 부산은행 전지점, 문화포털 팝부산 www.popbus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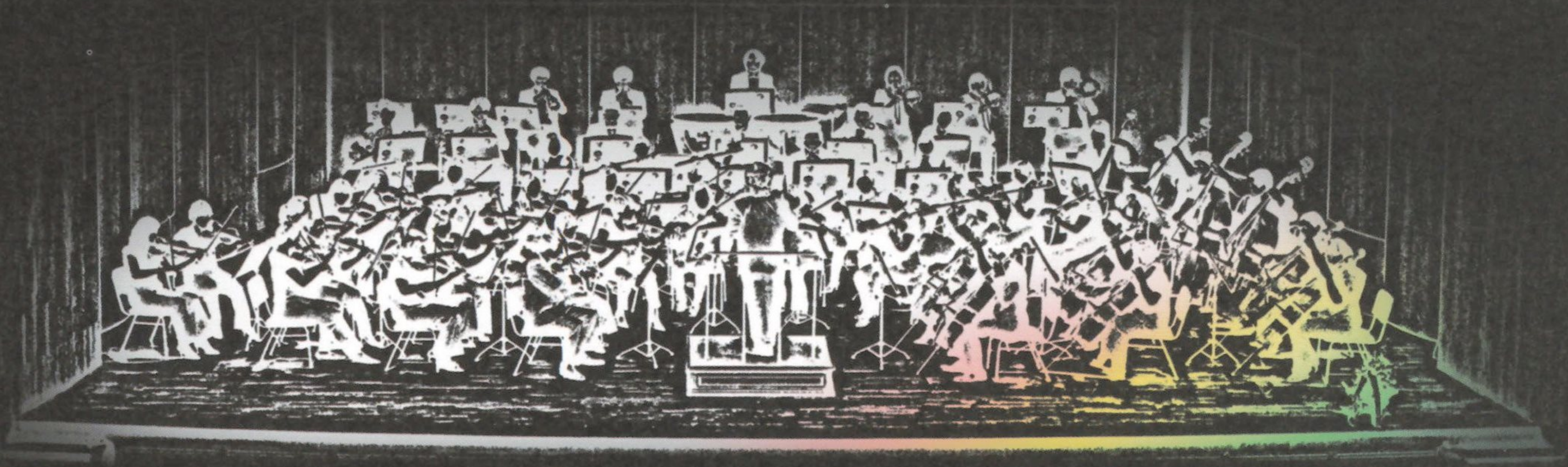
■ 문의 : 051)621-4577 www.bso21.com

• 협연\_ 바이올린 양경아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 지휘\_ 오충근
- 연 주\_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
- 협 연\_ 장은영(소프라노), 조윤환(테너)



2011년 12월 8일(목) 오후 7시 30분 |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영도문화예술회관 | 주관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 |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BSOF 부산문화재단

관람료 일반 5,000원 / 정기회원, 학생, 단체 2,000원 문의 051)419-5571~4 ※ 본 공연은 2011년 BSOF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신규단원 모집

21세기를 함께할 참신하고 유능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신규단원을 모집합니다.

### 오디션 일정

- 원서접수 : 2011년 10월 24일(월)부터 2011년 11월 11일(금) 오후5시까지
- 접수방법 : BSO홈페이지(www.bso21.com) BSO입단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메일 bso4577@naver.com로 발송
- 일 시 : 2011년 11월 12일(토) 오후1시
- 장 소 : BSO사무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25번길12(대연3동, 푸르지오@) 105동 202호

### 모집구분

- 정 단 원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  
(시립교향악단 등 우수 관현악단 단원 겸임 가능)
- 연구단원 : 대학교 재학생

### 모집직위 및 악기

- 부수석 : 첼로 1명 • 단원 및 연구단원 : 현, 관, 타악기 약간 명

※ 자세한 사항은 BSO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www.bso21.com](http://www.bso21.com)

문의 : 051)621-4577





부산야마하피아노 전시장



## 야마하 그랜드피아노 공연장, 교회, 연주자, 전공자 특별우대 판매

### 신품 그랜드피아노 사이즈별 대여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바바얀', '백혜선', '진보라', 성악가 '폴포츠' 공연 지원  
임재범, 이적, 거미, 휘성, 린, 브라운아이즈소울 등 가수 공연 지원

### 조율, 수리, 운반, 리빌더 전문

담당 : 국가공인 산업기사 오 지 광 010-5548-5404

부산국제음악제 부산야마하는 부산국제음악제 피아노 공급 지정업체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두레라움)에 그랜드피아노 및 악기 공급업체로 저희 부산야마하가 지정되었습니다.

**1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14 October, 2011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747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051)743-7784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246-0660 홈플러스 해운대점 051)743-7785  
홈플러스 장림점 051)266-4747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051)506-7332 롯데키즈마트 부산점 010-4242-6382 롯데마트 웅상점 010-4911-6236





## C/O/N/T/E/N/T/S

### 08 커버스토리

세계 5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풍부한 선율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공연

### 10 프리뷰

### 16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루시드폴

### 18 은현리 풍경에서 시를 읽다 ㉓

11월, 은현리에서 보내는 4장의 엽서 | 정일근

### 20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시카고 필드박물관 | 조향숙

### 24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㉓

블랙스완 | 이동신

### 26 불멸의 거장, 흥난파 ㉓

일본 유학과 음악 계몽운동 | 김창욱

### 28 그림, 풍류를 만나다 ㉑

꿈속의 나비가 부채에 앉았네 | 변광석

### 30 그곳에 가면

김해 가야의 거리

### 32 우리는 문화가족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

### 34 리뷰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영화의 전당 개관 축하공연 | 박진홍  
EBS, 나는 꿈수다, 종합편성채널 | 남인용

### 36 프로그램 가이드

### 56 나의 애청음반

뜻 깊은 가치로 되돌아온 극한의 인내심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 김희성

### 57 부산문화회관 소식

### 58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 6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1년 11월호 통권 239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1년 10월 25일

인쇄처 | 소문출판인쇄사 Tel. 051-256-2301~3 / Fax. 051-248-7960



# 세계 5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풍부한 선율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공연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거장들의 만남”

러시아 지휘계의 거장 - 유리 시모노프

티보바르가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젊은 거장 - 요제프 렌드바이

러시아 최고의 오케스트라 -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세계 5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11월 17일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내한하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러시아 지휘계의 거장 유리 시모노프와 티보바르가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젊은 거장 요제프 렌드바이의 협연으로 부산시민들에게 늦가을의 정취가 묻어나는 우수 어린 명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유리 시모노프가 이끄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51년에 창단되어 현재까지 러시아의 거장 지휘자인 키릴 콘드라신, 드미트리 키타옌코, 바실리 시나이츠키, 마르크 에를레르, 유리 시모노프 등이 지휘해오고 있다.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성공은 최고의 구 소련과 러시아 최고의 지휘자와 로린 마젤, 샤를 뮌슈, 이고르 마르케비치, 커트 샌더링,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주빈 메타, 크지쉬





토프 펜데레츠키와 같은 뛰어난 객원지휘자, 아이작 스티븐, 예후디 메뉴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글렌 굴드, 마우리치오 폴리니로 등 저명한 연주자들의 협연으로 그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예술성 있는 연주로 찬사 받아온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해외공연 때마다 기술적인 완성도와 표현력, 예술성 있는 환상적인 연주가 갖든 다양한 장르,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들을 선보였다.

지휘자 유리 시모노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오페라 및 교향악 두 분야에서 모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세계적인 지휘자인 아바도를 대신하여 런던 심포니를 지휘하여 '차이코프스키를 탁월하게 해석하여 호화스러운 낭만적 기풍을 고양하면서도 설득력을 잃지 않는 훌륭한 지휘자'라는 격찬을 받은 유리 시모노프는 12세 때 학교 교향악단과 모차르트 협주곡 40번 연주를 위해 처음으로 지휘대 앞에 섰다. 1969년 볼쇼이 오페라단의 '아이다'로 음악계에 데뷔한 유리 시모노프는 곧바로 수석지휘자로 임명되어 볼쇼이 오페라단 역사상 가장

젊은 수석지휘자로 기억되고 있다. 1985년까지 볼쇼이 오페라단 지휘자로 활동한 유리 시모노프는 볼쇼이 오페라단 지휘자로 최장 기간 재직하며 40년 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바그너를 다시 레퍼토리에 포함시키는 등 발레단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도 했다. 모스크바 음악학교에서 키릴 콘드라신 교수에 이어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지휘과 교수로도 재직한 유리 시모노프는 플로렌스, 모스크바, 도쿄, 부다페스트의 지휘자 경연대회의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하였다.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렌드바이는 7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헝가리의 명문 집시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다페스트에 있는 벨라 바르톡 음악학교와 프란츠 리스트 음악원에서 공부한 요제프 렌드바이는 7세에 처음으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였다. 1992년 암스텔담, 1994년 쾰른 여름아카데미상, 1996년 헝가리 전국대회상, 전국 음악기자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1997년 스위스 티보 바르가 국제바이올린콩쿠르 우승과 2005년 발매된 음반 <Lendvay>로 유럽 최고의 음반상인 독일 'Echo klassick 2005' 수상은 주목할 만하다.

요제프 렌드바이의 개성 있는 연주는 철저한 클래식 음악교육과 생기 넘치며 강렬한 전통음악의 영향을 받았다. 그의 연주는 평범하지 않은 두 가지 음악의 조화로 인해 클래식 연주를 할 때는 더욱 감성적인 소리를 연주할 수 있으며 전통음악을 연주할 때는 더욱 대가적이고 쉬운 연주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국립 교향악단에서 수석 연주자를 맡았고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는 상임, 객원연주자로 활동하였다. '상식을 벗어난 최고 절정의 기교'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요제프 렌드바이는 2006년 우리나라에서 '렌드바이와 친구들'로 첫 연주를 가진 후 매년 내한공연을 가져왔다.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번 부산연주회에서 러시아 옛 낭송조음악에서 가사와 선율을 따온 립스키 코르사코프 '사드코', 차이코프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차이코프스키의 염세적인 성격, 불우했던 가정생활, 제정 러시아를 짓누르는 암울했던 정서가 짙게 흐르는 차이코프스키의 최대 걸작 '교향곡 6번 비창'을 들려준다.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렌드바이





## PREVIEW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Opera in Concert '라보엠'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극적 장치를 배제한 오페라 전곡을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한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로 화제를 모았던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Opera in Concert 두 번째 무대가 11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올해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인 '라보엠'으로 오페라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1830년 파리 시, 라틴 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라보엠'은 파리의 뒷골목 다락방에 살고 있는 시인 로돌포, 철학자 콜리네, 음악가 쇼나르 등 보헤미안 기질을 가진 4명의 방랑생활과 우정, 그리고 폐결핵을 앓는 소녀 미미와 로돌포의 슬픈 사랑이 줄거리이다. 1896년 2월 1일 토리노의 레조 극장에서 푸치니 자신의 지휘로 초연된 라보엠은 '토스카' '나비부인'과 함께 푸치니의 3대 걸작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번 무대는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와 연출을 맡아 Opera in Concert '라보엠'의 감동을 전한다. 특히 중국출신인 세계적인 소프라노 루안 이티엔(Luan Yitian), 소프라노 송 위엔밍(Song Yuanming)과 탁월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중국내에서 입지를 굳혀온 지휘자 자오 심화가 조연출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극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라보엠'은 최고의 성악가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과 어린이 중창단 소리바람중창단이 출연, 화려한 무대를 함께 열어준다.

라보엠을 이끌어가는 시인 로돌포역에는 오스트리아 '모차르트 국제콩쿠르' 성악부문 입상자 테너 조윤환, 미미역에는 2009년 Turandot 국제성악콩쿠르 결승 진출, 2010년 Hans Gabor Belvedere 국제성악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속의 빛나는 보석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소프라노 루안 이티엔(Luan Yitian)이, 화가 마르첼로역에는 아브루초 국제성악콩쿠르, 치타 디 로마콩쿠르, 타란토 성악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바리톤 우주호가 열연한다. 음악가 쇼나르역에는 안토닌 드보르작, 니코 도스탈, 로버트 스톨츠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리톤 강경원이, 철학자 콜리네역에는 이탈리아 '메라노 국제성악콩쿠르', 스페인 '자코모 아라갈 국제성악콩쿠르' 독일 '쾰른 국제성악콩쿠르'에 입상한 베이스 함석현, 무제타역에 프랑스의 Toulouse 국제성악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며 세계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소프라노 송 위엔밍(Song Yuanming)이 출연한다. 집주인 브누아, 고문관 알친도로 역에 이탈리아 'J.Brahms' 'Citta di Racconigi' 'Citta di Padova' 국제콩쿠르에 입상한 베이스 이준석, 파르피뇰에 부산시립합창단 테너 김추리, 하사관역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베이스 문동환이 출연한다.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어린이 중창단 소리바람중창단은 KBS창작동요제, 국악동요제, MBC창작동요제에서 우수상 및 인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입장권 |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테너 조윤환

소프라노 루안 이티엔

바리톤 우주호

바리톤 강경원

베이스 함석현

소프라노 송 위엔밍

베이스 이준석

베이스 문동환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 지휘자 염진섭 초청 특별연주회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객원지휘자 염진섭

지난 10월 18일 제 139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12년간 부산시립합창단을 지휘해온 김강규 수석지휘자와 아쉬운 고별무대를 가졌던 부산시립합창단이 11월 17일 국립합창단과 서울시립합창단을 이끌었던 지휘자 염진섭을 객원지휘자로 초청,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지난 2006년 2월 신춘음악회를 통해 부산시립합창단과 음악적 만남을 가졌던 지휘자 염진섭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미국 하트포드대학교(음악석사), 아리조나대학교(음악박사)를 졸업하고 그동안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서울시립합창단 단장, 부산합창올림픽 예술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합창음악 발전에 힘써왔다. 중국 천진음악대학 교수를 역임하기도 한 염진섭은 현재 백석예술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후학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염진섭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재즈와 정통클래식을 한 무대에서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백반종 재즈콰르텟

로시니 오페라 '세빌라의 이발사' 서곡을 편곡한 합창음악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모차르트의 감수성이 돋보이는 미사곡 '미사 브레비스 K.65'와 호소력깊은 멜로디와 위로를 주는 가사로 사랑받는 팝송 'You raise me up', 영화 '미션'의 삽입곡으로 유명한, 영화음악의 대가 엔리코 모리코네의 'Nella Fantasia', 'River'를 들려준다.

본격적인 재즈와의 만남이 기대되는 2부에서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백반종 재즈콰르텟의 협연으로 열정적인 재즈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합창단의 'L-O-V-E', 'God bless the child', 'Lean on me'에 이어 백반종 재즈콰르텟이 'Fly me to the moon', 'Straight, no chaser'를 들려준다. 2부 무대의 마지막은 관객들에게 친숙한 대중적인 곡들로 꾸며진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삽입곡 'I dreamed a dream', 팝송 'Your smiling face'를 아카펠라로 들려주며 2010년 아이티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세계적인 팝가수들이 입을 맞춘 'We are the world 25 for Haiti', 인기 애니메이션 'The Simpsons' 주제곡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 협연을 맡은 백반종 재즈콰르텟은 미국 버클리음대 동문인 백반종(피아노), 윤종률(베이스), 이상우(드럼), 최원석(색소폰)으로 구성된 재즈앙상블로, 어렵지 않은 재즈를 추구하면서 관객들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백반종 재즈콰르텟은 현재 백석예술대학 실용음악과 학장으로 있는 리더 백반종을 비롯해 팀 구성원 모두 백석예술대학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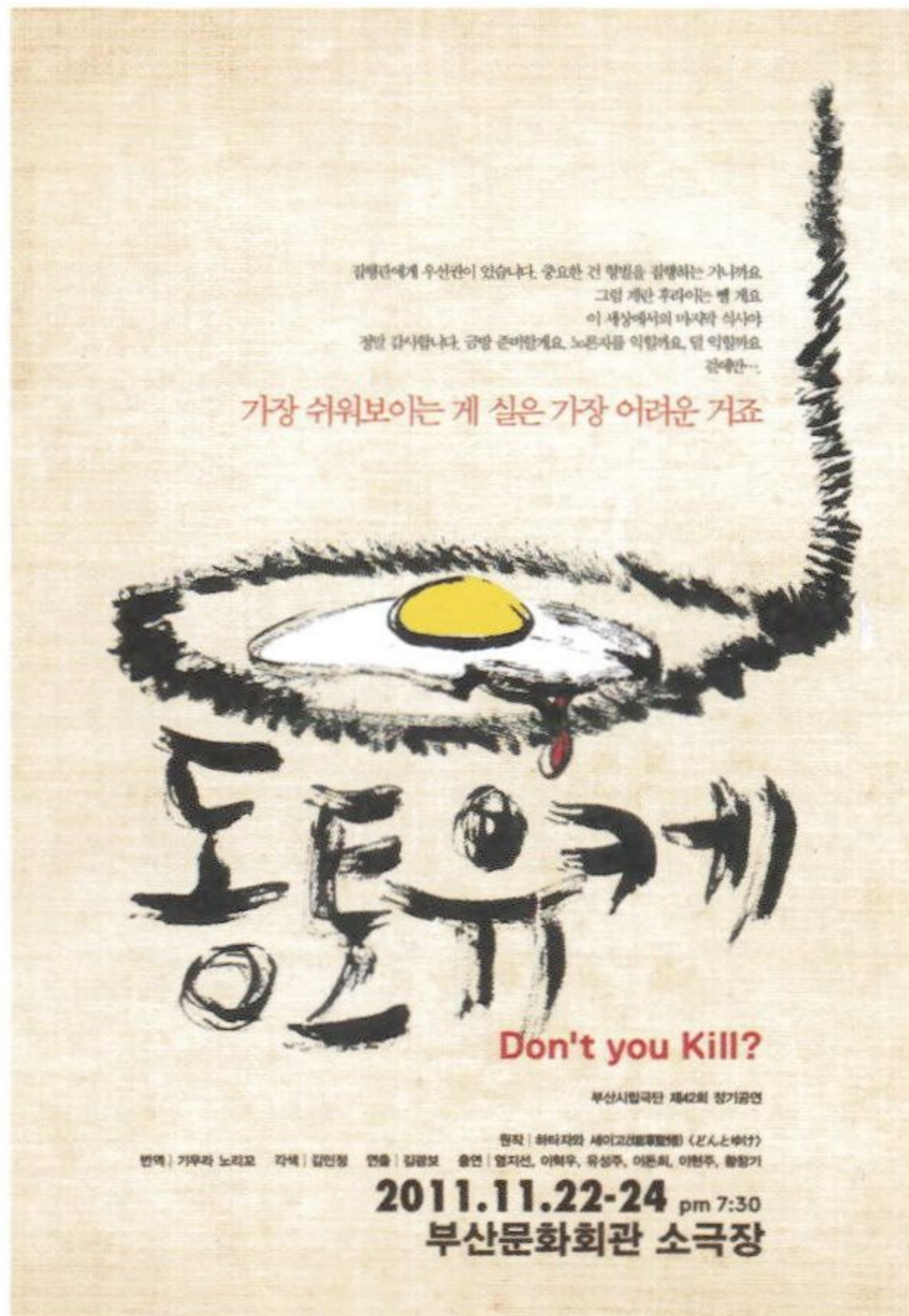




## PREVIEW

# 부산시립극단 제 42회 정기공연 동토유케-Don't you kill?

10월 22-24일 화-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하타자와 세이고



수석연출자 김광보

부산시립극단이 일본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연극 ‘동토유케(どんとゆけ)-Don't you kill?’ 로 2011년 마지막 정기공연을 갖는다.

지난해 부산시립극단이 주최한 ‘국제교류세미나Ⅱ-극작워크숍’ 발제자로 부산을 찾았던 일본의 극작가 겸 연출가인 하타자와 세이고의 창작극 ‘동토유케’는 지난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일본의 ‘재판원제도(임의로 뽑힌 시민이 재판관과 함께 심리에 참여하는 일본의 재판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표된 작품으로, 2008년 발표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작품이다. 2011년에는 일본연극사에서 처음으로 만화로도 발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작품명인 ‘동토유케(どんとゆけ)’는 무엇인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뜻하는 ‘동(どん)’과 ‘가라’라는 명령어를 말하는 ‘유케(ゆけ)’의 합성어로, ‘용기를 내’ ‘힘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원작자인 하타자와 세이고는 일본 동북지역 아오모리현에서 연극활동을 하며 고등학교 연극반을 지도하고 있는 특이한 경력을 지닌 극작가 겸 연출가로, 1991년 아오모리에 있는 극단에 입단, 배우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0년 극작가, 연출가로 본격적으로 데뷔한 하타자와 세이고는 2005년 ‘내 송장을 넘어가라’로 일본극작가협회 단편희곡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이래 희곡 ‘고양이의 사랑’ ‘수학여행’ ‘신의 사랑’ 등을 도쿄 무대에서 선보였다.

이번 연극 ‘동토유케(どんとゆけ)-Don't you kill?’에서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집행관’이라는 사법제도가 등장한다. 극중 사형수는 어린

아이 둘과 아이들의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자. 사형집행일이 다가오고 사형수와 보안과장, 피해자 유가족인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사형수의 아내 집에 모인다. 피해자 유가족과 사형수의 불편한 만남이 시작되고 사형집행을 위해 정해진 규칙은 무엇하나 쉽지 않고 까다롭기만 하다. 사형수를 위해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다같이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가족은 사형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번 무대의 연출을 맡은 수석연출자 김광보는 사람이 사람의 생과 사를 심판하는 사형제도를 통해 무수한 갈등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깔끔하면서도 감각적인 무대로 선보인다.

부산시립극단 배우 유성주와 염지선이 사형수와 그의 부인역을, 이돈희, 이현주가 살해당한 남자의 아버지와 아내 역을 맡았으며, 이혁우가 부산구치소 과장역, 황창기가 아내에게 관심있는 남자역을 맡아 연기호흡을 맞춘다.

● 입장권 | 균일 15,000원(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극단(607-3151~3)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9회 정기연주회

## 국악, 자연에서 노닐다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객원 지휘자 김선      조재경      박성희      박하혜      정선희

국악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공연의 가능성을 열어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11월 24일 풍부한 감수성과 다양한 음악적 경험으로 각광받고 있는 남원시립국악단 지휘자 김선의 객원지휘로 부산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9회 정기연주회 ‘국악, 자연에서 노닐다’를 지휘하는 객원지휘자 김선은 국악칸타타, 무용음악, 창극, 국악관현악, 실내악곡 등 작곡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여류지휘자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김선이 편곡한 북한음악 고음저대 협주곡 ‘금강선녀’, 고음저대 협주곡 ‘처녀총각’을 비롯해 이경섭 곡 관현악 ‘소리놀이 1+1’, 오혁 곡 거문고 협주곡 ‘강상유월’, 안태상 곡 ‘일출의 바다’ 등 과감하고도 참신한 레퍼토리로 우리음악의 멋과 흥이 묻어나는 신명난 초연 무대를 열어준다. 이번 무대를 위해 남원시립국악단 단원 조재경,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성희, 박하혜, 정선희가 아름다운 자연을 닮은 유려한 명곡들로 부산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첫 무대는 소리를 놀이로 승화시킨 이경섭 곡 관현악 ‘소리놀이 1+1’로 연다. 다양한 소리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관현악 ‘소리놀이 1+1’은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떠올릴 수 있으며, 각 악기마다의 솔로 독주가 반복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다정스러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곡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남원시립국악단 차석단원 조재경의 고음저대 협연. 부산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고음저대는 저대(대금)로부터 파생된 북한의 개량악기로 크기가 저대의 절반으로 맑고 투명한 소리를 낸다. 금강산에 얽힌 전설 <금강산팔선녀>를 무용음악곡으로 창작한 ‘금강선녀’와 ‘처녀총각’으로 고음저대와 국악기의 다양한 매력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45호 이생강류 대금산조 이수자로 우리음악의 맥을 잇고 있는 조재경은 우석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연변예술대학교에서 저음저대, 고음저대 연주법을 배웠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하혜가 협연하는 거문고 협주곡 ‘강상유월’은 강위에 달이 노니는 풍경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무아의 세계가 거문고 특유의 주법과 다양한 리듬을 통해 도전적이고도 실험적인 영역과 만나고 있다. 안태상 곡 관현악 ‘일출의 바다’는 2007년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위촉 초연곡이다. 동양적인 선율과 서양의 화성을 자연스럽게 접목시켜 웅장한 바다의 모습과 자연이 선사하는 경이로운 풍경을 작품에 담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취적인 삶을 살고 싶은 작곡자의 이상을 강하게 표현했다.

그 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가 협연하는 창작관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 부수석 정선희가 협연하는 창과 관현악 ‘심청가’ 중 ‘부녀상봉, 눈 뜨는 대목’으로 우리 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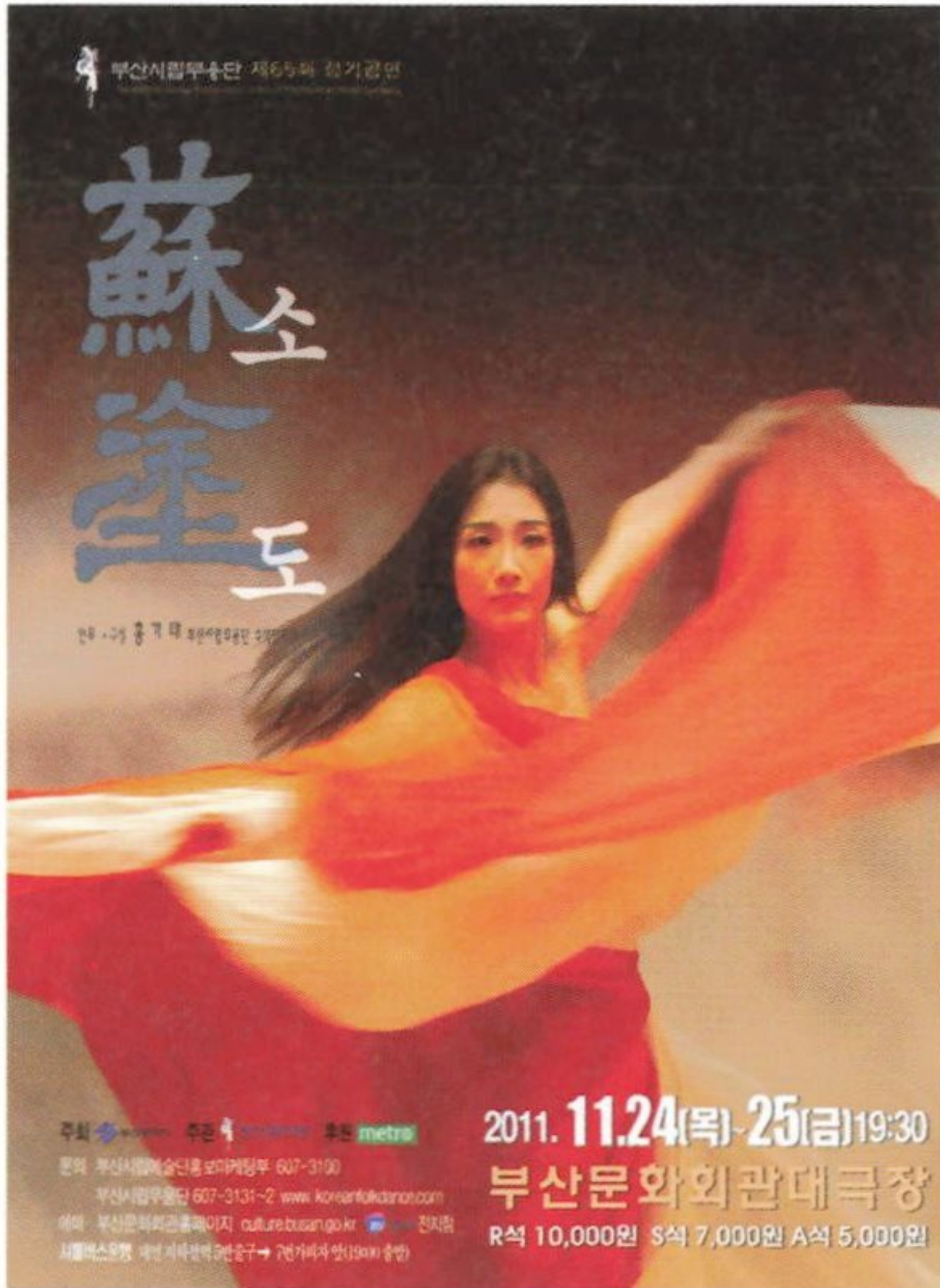




## PREVIEW

# 부산시립무용단 제 65회 정기공연 蘇塗.소도

11월 24일-25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춤으로 역사를 이야기한다...

운명처럼 만나고, 마치 숙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자서여'와 '온조'의 짧고도 아픈 사랑 이야기.

우리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치외 법권지역인 삼한시대의 '소도(蘇塗)'가 부산시립무용단 무용극으로 새롭게 조명된다.

소도는 '삼한(三韓)'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국법의 힘조차 미칠 수 없는 신성(神聖) 지역으로 국가에 반역한 죄인이라도 소도로 피신한 상태에서는 '천군'의 허락 없이 그를 잡거나 벌할 수 없을 만큼 소도라는 공간과 그곳의 제주인 천군의 영향력은 나라의 지도자와 버금갈 만큼의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

부산시립무용단의 춤으로 만나는 소도에는 여제주(女祭主) '자서여(紫胥餘)'가 가공의 인물로 등장한다. 여제주(女祭主) '자서여(紫胥餘)'를 중심으로 백제 건국신화의 주인공인

'온조(溫祚)'와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 이별을 소도라는 특정 공간과 삼한시대라는 시대적 배경 안에서 재창작해 춤으로 역사를 타래를 풀어나간다.

작품은 자서여가 태어나는 서막을 시작으로 전체 6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 '그곳 소도. 蘇塗'에서는 '자서여'가 성인이 되어 천군으로 소도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제 2장 '온조. 溫祚'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국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온조'의 남하(南下)에 초점을 맞추어 그렸다. 제 3장 '무거운 운명. 遭遇'은 목지국 병사와 전투에서 병사를 모두 잃고 본인마저 부상당한 채 간신히 소도로 피한 온조를, 제 4장 '하늘을 거스르다...'는 운명처럼 만나고, 마치 숙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자서여'와 '온조'의 짧고도 아픈 사랑을 그리고 있다. 이어지는 제 5장 '멈춰 선 역사. 歷史'는 소도를 지키고자 온몸으로 권력과 맞서는 '자서여'와 붉은 화염에 휩싸인 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는 소도, 그리고 짧디 짧은 사랑의 대가로 결국 목숨까지 잃고 마는 한 여인에 대한 서정을 무겁고 빠른 정서로 그려낸다. 마지막 제 6장 '그리고 솟대'에서는 자신을 구하고 대신 죽음을 택한 '자서여'에 대한 '온조'의 비장함과 슬픔,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역사와 시대에 대한 이미지와 상징을 담아낸다.

'소도(蘇塗)'는 조주현이 대본과 연출을,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흥기태가 안무를 맡아 시간의 긴 타래를 웅장하게 펼쳐낸다. 구성, 대본, 연출을 맡은 조주현은 '벽(碧), 공(空)', '흰나비의 꿈' 등으로 부산시립무용단과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부산무용애호가들과는 친숙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박창희(24일)와 안주희(25일)가 자서여로, 최의욱(24일)과 강모세(25일)가 온조로, 장래훈이 계왕으로 열연하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강성빈이 소녀 자서여로 특별출연한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4회 정기연주회

# 2011 부산연주인시리즈 II **늦가을의 우수와 환희**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바이올리니스트 유주영

부산출신 연주자들과 부산에서 활동중인 우수 연주자들의 등용문인 부산시립교향악단 2011년 부산연주인시리즈 두 번째 무대가 11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부산연주인시리즈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 유주영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낭만적인 이베르의 플루트 선율과 러시아 특유의 우수와 열정적인 환희를 담은 차이코프스키 곡으로 저무는 가을의 정취를 더해준다.

협연자 유주영은 부산예고, 경성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대 디플롬(2007, 최우수 졸업), 독일 프라이브루크 음대 최고

연주자과정(2009, 최우수 졸업)을 마치고 2010년 귀국, 현재 부산 YMCA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부산플루트앙상블, 플루트 4중주 '클랑' 멤버, 동래구 여성오케스트라 플루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유주영은 독일 유학중 독일 Bad durrheim에서 가진 독주회를 비롯해 프라이브루크 음대 정기연주회 협연 무대, 베를린 리아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쳤다. 유주영은 지난해 부산음악협회 주최 제 20회 신인음악회와 귀국독주회를 통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 유주영은 1934년 이베르가 작곡한 플루트 협주곡을 들려준다. 작곡에 있어 완전성을 기하는 프랑스의 심미파 작곡가였던 이베르는 우아하고도 권위적인 프랑스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특별한 패턴을 따르지 않고 감각에 따라 자유로운 작곡을 펼쳤는데, 그의 음악은 익살과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한편, 깊이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플루트 협주곡 역시 가볍고도 색채감있는 음악으로 진정한 감정의 깊이를 보여주는데, 곡이 전체적으로 다소 어려워 자주 연주되지는 않지만, 이 곡의 제 3악장이 파리콘서바토리의 입시곡으로 채택되는 등 오늘날까지 플루티스트들의 기술적 능력과 음악적 감각을 재는 척도가 되고 있다. 잔물결이 흐르는 듯한 대화와 사랑스러운 반어 속에 이베르의 창조성과 우수성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음악회의 타이틀인 '늦가을의 우수와 환희'의 메인 선율이 될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 4번은 차이코프스키의 전 교향곡 중에서 가장 풍부한 변화와 열정을 보여주는 곡이다. 다분히 표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절대음악적 형식에 따르고 있으며, 차이코프스키 특유의 어둡고 아름다운 선율과 교묘한 구성, 그리고 절묘한 관현악 등이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차이코프스키가 불행한 결혼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에 쓰여진 곡이지만 폰 메크 부인의 경제적 후원 속에 작곡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덕분인지 우울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명랑하고 활력이 넘치고 있어 운명의 냉혹함을 압도하며 야유하는 듯한 기분마저 들기도 한다. 1878년 1월에 완성되어 모스크바에서 2월에 초연되었으며, 폰 메크 부인에게 헌정되었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고향 부산팬들과의 만남이 즐거운

## 싱어송라이터 루시드폴

싱어송라이터 루시드폴(본명 조윤석 · 36)이 2011년 크리스마스 연휴 부산팬들에게 감미로운 음악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속삭이듯 노래하는 루시드폴은 '가요계의 음유시인'으로 통한다. 화끈한 가창력도, 관객의 혼을 빼놓는 연주력도 없지만 루시드폴의 공연은 연일 매니아들로 북적이다. 서정적인 시와 같은 가사와 감미로운 선율의 곡을 직접 만들어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루시드폴은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진한 울림을 준다.

그의 이름 루시드 폴(Lucid fall)은 '투명한 가을'이란 뜻으로 감성적인 그의 노래와 잘 어울린다. 인디밴드 '미선이' 리더로 음악 활동을 시작한 루시드 폴은 2001년에 1집 '루시드폴'로 가요계에 데뷔, 제 3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팝싱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간에 알려진 데로 그는 공학박사 출신 음악인이다.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EPFL)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유학 당시 논문이 유명 과학전문지 '네이처'가 발행하는 과학저널 '네이처 케미스트리'에 게재돼 유명세를 탔다. 그는 심혈관 질병 치료 물질을 개발해 미국 특허를 따내기도 했다.



2008년 9월 공학도로 누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스위스에서 돌아온 그는 오랜전 꿈꾸었던 음악에 대한 꿈을 하나 둘 펼쳐내고 있다.

5집 앨범 녹음으로 분주한 루시드 폴을 12월 24일과 25일 공연에 앞서 지면으로 만나본다.

### 3년 만에 갖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여러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 보았지만, 저에겐 가장 큰 규모의 공연장이었던 탓에 조금 긴장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동안 부산문화회관이 리뉴얼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번엔 어떤 분위기로 극장이 새 단장을 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 음악을 꿈꾸던 유년시절

중학교 때 음악을 듣고, 기타를 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이후엔 제가 음악을 '듣는 것' 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부터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겠구나 생각했지요. 1993년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입상한 후, 뭔가 데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기대만큼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인디밴드 '미션이'로 활동을 시작했고, 운 좋게 데뷔앨범을 내고 꽤 많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지요.

### 1집부터 4집, 나에게 특별한 음악

3집에 '노래할게'란 곡이 있습니다. 같이 어릴적 부터 놀고 음악하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만든 곡이지요. 그 친구의 발인날 아침, 전 스위스에서 밤을 새서 하룻밤 사이에 이 노래를 만들어 전화기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 서정적이면서도 담백한 그를 닮은 매니아 팬

저와 공통된 정서나 감정이 닿아있는 분들이 저의 음악을 좋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 프로야구 시구로 부산팬을 만나다

야구공을 제대로 던져본 적도 없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부산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 좋은

자리에서 야구 볼 수 있는 티켓 몇 장 정도는 선물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 만으로도 뭐 즐거웠던 일입니다.

### 화제를 모은 소극장 공연 '루시드 폴, 목소리와 기타 2011'

지난해 '목소리와 기타시즌 1'에 이어 오로해도 공연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무대장치도 없었지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전국 투어를 하면 지방 마다 관객들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전, 고양 공연은 극장 단독 공연으로는 처음이었구요. 광주 두번째 였지요. 하지만 서울에서 20회 공연을 할 때도 하루 하루 반응이 다 다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구와 부산 공연의 반응이 가장 좋았어요. 연말 공연도 그랬으면 합니다.

### 나의 고향 부산, 부산 사람들

제가 살았던 부산의 동네는 대신동, 안락동, 남천동/광안동, 해운대, 이렇습니다. 몇 해 전, 어릴적 식구들과 일요일마다 먹던 해장국 집에 혼자가서 해장국을 사먹고, 광안리 바닷가를 따라 옛 아파트까지 걸어가 보았어요. 다니던 초등학교도 가 보구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시간탐험을 하는 기분이었지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집이 해운대다 보니 해운대, 달맞이 근방 이곳저곳을 다니는 편이지요. 아, 이번 장기공연 때, 송정 끝에 있는 구덕포라는 곳에서 친구와 함께 술 한 잔을 했었지요.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 12월에 만나는 루시드 폴

저의 새 앨범 5집이 (만일 계획대로 나온다면) 나오고 난 후 첫 공연이 되겠네요. 새 앨범 곡들을 앨범에 수록된 편곡으로는 처음 전해드리는 시간이겠습니다.





11월,

# 은현리에서 보내는 4장의 영서

정일근\_시인, 경남대학교 교수

1101

아침, 붉게 물든 작은 나뭇잎 하나 11월로 들어서는 문 앞에서 서 있습니다. 여름 속에 가을을 여는 문이 있듯 가을 속에 겨울을 여는 문이 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그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일은 미리 준비하는 일입니다. 나뭇잎도 제 몸의 푸른빛을 다 지우고 겸허하게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의 11월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올 한 해 온전하게 걸어온 사람들에게 도저 나뭇잎과 같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자신의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면 당신도 아름다운 빛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11월은 사람(1)과 사람(1)이 마주서는 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주서기보다 당신과 어깨 맞대고 나란히, 따뜻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래지않아 은현리에 첫얼음이 얼 것입니다.

1112

음력 시월을 두고 옛사람들은 '소춘(小春)'이라 말했습니다. 음력 시월을 '작은 봄'으로 부른 것은 맑은 눈을 가졌던 선인들의 자연에 대한 참으로 지혜로운 은유입니다. 가을과 겨울 사이, 그 사이에 놀랍게도 봄이 끼어듭니다. 지난해 소춘에는 목련이 피었고, 올 소춘에는 은현리 텃밭에 봄나물인 냉이 새싹이 올라와 늦가을 밥상에 냉이나물이 한창입니다. 또 길가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이런 자연의 위트를 달력만 넘기며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시계만 보며 달려가는 사람은 더더욱 모릅니다. 바코드의 디지털 시대는 '오래된 미래'가 읽었던 자연이라는 경전을 오류라고만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은현리에서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잠깐 찾아오는 봄을 눈으로, 맛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계는 지금 몇 시를 지나고 있습니까? 가끔은 은현리 시계에 맞춰 주시길. 아름다운 날, 내일은 당신을 위해 향기로운 냉잇국을 끓여야겠습니다.

1122

사흘을 묵언하고 나선 새벽 산책길에서 풀잎 위에 내린 서리를 보았습니다. 침묵의 결정 같은 서리를 보며 나는 비로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만드는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슬이 얼어 서리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침묵이 빛는 이슬은 빙점 아래 서리꽃으로 피고 말 많은 입을 가졌기에 사람들에게는 죄의 형벌 같은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입니다. 은현리에 첫얼음은 얼었지만 벌써 눈을 기다리는 일은 부치지 못한 편지의 답장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 점점 차가워지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의 폭설을 꿈꿉니다. 이제 어머니는 무말랭이와 호박오가리를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손이 시려지는 이 무렵 이 땅의 어머니들 다 그렇게 겨울을 준비하듯, 늘 따뜻한 당신의 손도 겨울을 예감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서리꽃

정일근



사진 정일근

차가워진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으로 뜨거워지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약속 빙점 아래 잠들어  
꽃눈 속의 봄꽃들 아직 눈뜨지 못하는데  
겨울의 새벽 입술이 유리창에 닿는  
얼음의 길을 따라 서리꽃 핀다  
서리꽃은 빙점하에 피는 뜨거운 꽃  
허공에 뿌리내린 불가해의 꽃  
차가운 하늘에서 빛나기 위해  
별이 스스로 뜨거워지듯  
땅의 가장 차가운 곳에서 피는  
하늘의 가장 뜨거운 꽃이어  
사랑의 비등점은 빙점에도 있으니  
사랑에 꽃피우기 위해  
오랜 눈물 버리고 차가워지려니  
내 꿈는 영혼의 꽃밭으로 찾아와 피어라  
피어라 사랑의 뜨거운 꽃이어

### 1129

시든다는 것은 무엇이나? 류과인더 속을 들여다보는 저에게 시든 앞이 묻습니다. 그 질문에 놀라 정신에 '쿵' 하며 불도장이 찍힙니다. 2천5백여 년 전 29살의 청년 고타마 시닷르타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왕자의 자리와 아내와 아들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깨달아 '붓다'가 된 그는 그 답을 묻는 사람들에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라'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혼자가라'고 빛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드는 앞 속에 참으로 많은 길들이 숨어 있습니다. 앞은 시드는 것이 아니라 제 속의 자유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찾는 모든 질문의 답도 사람 속에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1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시들면서 더욱 뚜렷해지는 은현리의 길 위에서 나는 당신에게로 가는 그 길만을 생각합니다.





## 시카고 필드박물관 Chicago Field Museum

조향숙\_시카고 국제 자매도시 위원, 미중서부 부산 향우회 총무, 전 시카고 한인 미술협회 회장

이곳 시카고에는 몇 몇 대형 박물관이 있다.

시카고 예술박물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 Museum), 시카고 어린이박물관(Children's Museum), 과학과 산업박물관(The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현대미술박물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필드박물관(Field Museum)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 필드박물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드박물관은 아름다운 미시간 호수를 끼고 있는 Lake Shore Drive에 있으며 Soldier Field Stadium 미식 축구장을 옆으로 하고 있다. 뒤로는 쉬드 수족관(Shedd Aquarium)과 엘덜 우주천문관(Alder Planetarium)이 있다.





이곳 필드박물관은 1893년 9월 16일 Columbian Museum of Chicago라는 이름으로 일리노이주정부의 협조 아래 'World's Columbian Expositions Place of Fine Arts House'라는 전시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최초 박물관은 후원자인 마셜 필드(Marshall Field)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마셜 필드는 시카고의 유명한 Marshall Field 백화점 소유주이다. 이 백화점은 백화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환불, 또는 교환해 주는 제도를 최초로 만들어 실행한 백화점이다. 1893년 당시 우리나라 임금이신 고종께서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념품을 이곳에 보내어 최초로 미국에서 한국 기념품이 전시되었다고 한다. 이후 1905년 박물관 이름을 Field Museum으로 바꾸었는데 현재 박물관의 총 소장품은 2천 백만 점으로 현재 전시하고 있는 전시품들은 그 중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필드박물관은 가장 많은 공룡을 수집하고 있다. 시카고를 찾는 많은 관광객 뿐만 아니라 시카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곳을 찾아와 수십억 년 전의 공룡 티라노사우르스(Tyrannosaurus)와 만난다. 6천 7백만 년의 화석인 이 공룡은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1층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 박물관에서 영원히 보관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중 가장 크고 완벽하게 보존된 화석으로 높이가 4m, 길이가 13m이나 된다. 죽은 나이를 약 29세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공룡에게 'Sue'라는 여자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리고 필드 박물관은 종합적인 인간·문화·인류학 전시장의 대명사로서 고대 이집트, 북서 태평양, 태평양 제도, 그리고 티베트의





유물을 포함하여 책 속에서 보았던 많은 나라의 역사적, 인류학적, 문화적 유물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백만년전 과거가 실제 공존하였음을 체험할 수 있다.

필드박물관의 또 다른 자랑은 박물관내에 있는 도서관이다. 1893년 문을 연 후 박물관 내에 있는 과학자 조사팀들, 외부 조사팀들, 학생, 자연 역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박물관 멤버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개장하고 있다. 도서관의 소장품은 총 275,000점으로 이 소장품과 사진들은 거의 모두가 개인의 기증으로 이루어졌다.

박물관 2층 서쪽으로 가면 DNA Discovery Center가 있다. 이곳에서는 박물관 관람객들에게 실제 생물체 DNA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박물관의 수많은 방문자들은 이곳에서 유리를 통하여 DNA에 관한 모든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Mc Donald's Fossil Prep Lab에 가면 고생물학자들이 실제 화석(fossil)을 준비해 놓고 일반인들이 보며 공부할 수 있도록 실험실(Laboratory)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실이 있는데 이를 'The Regenstein Laboratory'라고 부른다. 이곳은 평방 150m의 큰 장소로 소장품 보호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박물관 관람자들도 유적 예술품의 관리자들과 함께 세계 인류학의 표본 자료를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다.

이곳을 방문하면서 나는 항상 느낀다.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의 체험은 정부, 도시, 기업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먼 미래를 보고 계획할 때만이 진정한 문화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서운하게도 예전 1893년에 전시된 이후로는 박물관 어디를 다녀 보아도 우리나라의 문화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림을 하는 사람인지라 한국의 문화도 이곳에 전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실 박물관 2층의 티벳 전시관을 보면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정말이지 시카고 어느 박물관을 다녀 보아도 시카고 시민이 한국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볼 수가 없다. 2층 티벳 전시관 옆에는 티벳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티벳의 기둥, 문짝에서 생활 도구들까지 전시되어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티벳을 직접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곳을 나와 남쪽으로 가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보석의 원석이 전시되어 있다. 다시 그 옆의 방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책이 소중이 전시되고 있는 'Brooker Gallery'를 만난다. 그리고 티벳 전시관 북쪽에는 시카고에 본사를 둔 Abbott 의학회사가 제공하는 'Abbott Hall'도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지금 'Restoring EARTH'라는 전시를 하고 있는 중이다. 박물관 2층의 동쪽 미시간 호수 방향에는 'The Gary O. Comer'이 기증한 전시장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Design for a Living World' 전시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나는 Field Museum의 모든 전시품은 옛 것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곳은 현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천연 자연품을 소재로 만든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다. 뉴욕의 패션 디자이너 Isaac Mizrahi의 살몬 생선 가죽으로 만든 드레스가 나를 기절시켰





다. 아!!!!!!

작년 4월 이곳 시카고에서 국제 자매도시 50주년 기념행사로 'The Richard J. Daley Global Cities Forum' 이 UIC 대학에서 열렸고, 포럼 마지막 날 이곳 필드박물관에서 만찬이 있었다. 포럼의 주제는 'New Partnerships for a New Economy' 였으며 데일리 시카고 시장의 이름으로 가진 포럼이었다.

부산에서는 조일상 부산시립미술관 관장님과 남관표 대사관님 이하 부산광역시 국제협력과에서 참석하셨다. 공룡과 맘모스를 함께 두고 그 옆에서 가졌던 보라빛 저녁만찬은 정말이지 멋 그 자체였다.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United Airline, Motorola, Abbott 등의 기업들이 참가했는데 그들의 기부금이 시카고 문화를 기를지게 만들고 이에 시민들은 윤택한 문화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러워진다.

- ① 코끼리 디오라마 화석
- ② Main Hall에 있는 티라노사우르스 공룡 '수(Sue)'
- ③ 공룡 '수(Sue)' 를 방문한 부산의 어린 남매 이채영, 이민준
- ④ 아프리카관의 박제 영양들
- ⑤ 티벳전시관



# 블랙스완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온갖 망상과 자아분열에 휩싸인 한 예술가의 파멸을 그린 심리 스릴러이자 예술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들춰내는 영화 '블랙스완'.

가느다란 조명이 무대에 비춰지고 곧이어 카메라는 바닥을 단단하게 디디고 선 발레리나의 발을 비춘다. 영화는 첫 장면부터 발레리나의 날카롭게 곧추선 발이 가느다랗게 떨리는 모습을 통해 우아한 아름다움은 늘 힘겨운 고통과 함께한다는 진리를 은밀하게 이야기한다. 더욱 아름답고 완벽한 춤을 추기 위해 밥을 굶고 발톱이 빠지도록 연습하는 발레리나 니나의 이야기 <블랙스완>은 관객의 신경을 자극하는 일종의 심리스릴러이다.

발레가 인생의 목표이자 이유인 뉴욕시립발레단의 발레리나 니나는 한 때 발레단의 프리마돈나였던 베스를 제치고 '백조의 호수'의 주연으로 발탁된다. 백조의 호수에서 주인공은 백조와 흑조를 모두 연기해야 하는데, 순수하고 어린 백조연기는 완벽하지만 사악하고 관능적인 흑조로서의 연기는 부족하다는 안무가 토마스의 지적에 불안을 느끼고 노심초사한다. 게다가 카리스마와 관능적인 이미지를 가진 신입단원 릴리를 보고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한다. 공연이 점점 다가오면서 니나의 광기와 질투도 견잡을 수 없이 커진다. 영화에서 두 캐릭터는 흰색옷만 입는 니나와 검은 옷을 입는 릴리를 대조시켜 상반된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니나는 화가인 엄마와 둘이 사는데, 그녀의 엄마도 젊은 시절에는 발레리나였지만 니나를 임신하면서 발레를 포기했었다. 자신이 못다 이룬 프리마돈나의 꿈을 딸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엄마는 니나에게 집착하고

그녀를 통제하며 그녀의 성공을 시기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이로 인해 니나는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해지고 급기야는 악몽과 환각에 시달린다. 순종과 순결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니나에게 있어서 흑조 연기에 필요한 관능적이고 사악한 이미지는 그녀의 순결한 자아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느 날 엄마의 제지를 뿌리치고 릴리를 따라나선 니나는 퇴폐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점점 사악한 광기에 휩싸이며 흑조가 되어간다. 예전과 달리 백조연기에서 실수를 하게 된 그녀는 결국 흑조의 내면세계에 압도되고 완벽한 흑조연기를 펼친 후 백조연기를 위해 분장실로 돌아와서는 다시 한 번 백조로서의 자아와의 충돌을 경험한다.

감독 대런 아로노프스키의 전작 <더 레슬러>의 마지막 장면에서 한물간 레슬러 랜디는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블랙스완'의 숨은 공로자는 단연 차이코프스키이다. 차이코프스키는 3개의 발레곡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을 작곡했는데 이 곡들은 발레곡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며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찬 곡이다.

링 위로 몸을 던진다. <블랙스완>의 니나 역시 마지막 순간 완벽에 대한 열망을 품고 허공으로 뛰어내린다. 그들은 몸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몸으로 타인에게 말을 걸지만 그 몸으로 인해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발레라는 예술을 내세운 이 영화는 기존의 무용 영화들과는 사뭇 다르다. 현실과 환영이 뒤섞인 세계를 탐구해 온 감독은 <블랙스완>에서도 주인공을 그 속으로 과감하게 밀어 넣는다. <블랙스완>은 온갖 망상과 자아 분열에 휩싸인 한 예술가의 과멸을 그린 심리 스릴러이자, 순수한 백조가 악마적 흑조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공포영화이며, 예술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들춰내는 드라마라 할 수 있다.

영화는 주인공 내면의 불안과 이를 표면화한 충격적 영상이 서로 충돌하고 공존하면서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를 위해 감독은 거울을 자기분열을 상징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하여 이를 통해 니나의 불안을 조명한다. 현실과 허구가 마구 뒤섞이고, 연극 속 이야기가 고스란히 니나의 삶으로 전이되는 마지막 공연장면은 분명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니나의 상황을 가장 리얼하게 인지하게 하는 현실로 작용하며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니나역을 맡은 나탈리 포트만의 연기는 대런 아로노프스키의 연출과 절묘한 앙상블을 이룬다. 결국 이 영화는 주인공 니나의 내면적 세계를 집요하게 관찰하는 1인 심리극이다. 감독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범적이고 여린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다.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이미지가 어떻게 관능적이고 사악하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얼굴과 몸이 화면을 가득 메우는 클로즈업을 통해 섬세하게 보여준다. 포트만은 점차 변화해가는 심리상태를 절묘하게 보여줌으로써 감독의 의도를 감동적으로 표현했고, 이로써 2011년 제 8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쥘다.

이 영화에서 숨은 공로자라면 단연 차이코프스키일 것이다. 차이코프스키는 3개의 발레곡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을 썼는데, 이들은 발레곡들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며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찬 곡이다. 특히 첫 작품인 '백조의 호수'는 유려하면서도 매혹적인 선율과 경쾌하면서도 자극적인 리듬 그리고 화려한 빛깔의 관현악 음색으로 인해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발레곡으로 인정받고 있다.





# 일본 유학과 음악 계몽운동

김창욱\_음악평론가



연악회 제 3회 수업기념

## 동경음악학교와 3·1운동

홍난파에게 동경음악학교는 수준높은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상' 이자, '유일무이한 이상의 정점' 이었다. 이것은 1879년 문부성 내에 '음악취조과(音樂取調掛)' 라는 부서가 설치되면서 생겨난 것인데, '음악취조과' 가 발전적으로 개편됨으로써 동경음악학교의 창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이 학교는 당시 일본 국내에서 서양음악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유일한 교육기관인 동시에, 역사적인 관립학교라는 점에서 그 권위와 지위가 명실공히 최고 수준임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 유일의 관학은 조선인의 입학은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오원이란 불소한 수험료와 땅팔고 밭팔아 만든 막대한

여비를 써서 관학에 응시하려 오는 학생이 매년 십명 내외나 되면서도 아직껏 한 사람도 입학치 못한 것' 은 바로 그러한 까닭이었다. 따라서 그는 1918년 4월, 어렵사리 이 학교 예과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홍난파는 그토록 열망하던 동경음악학교 예과를 1919년 2월에 수료하고, 갑자기 3월에 그만 두고 말았다. 당시 신문기사에 의하면, 난파는 '무엇의 타격을 받아가지고' 귀국했으며, 자신의 글에 따르면, '못처럼 들어간 동경음악학교도 본과로 진급하자마자 일신상 사정으로 중도에 퇴학' 하게 된 것이다.

난파는 또 다른 글에서 '못처럼 드러갔던 동경음악학교만 하더라도 만세통에 튀어나오지만 안앗던들 관립학교란 끔찍한 간판 밑에서 대도를 횡보했습 것' 이라 말한다. 그것은 그가 3·1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그가 '만세통' 에 튀어나오므로써 관립학교 간판을 얻지 못했음을 크게 후회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일이 결코 자의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홍난파의 민족의식에 대한 자각은 그가 서양음악가로서는 유일하게 최남선이 이끄는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 연악회 창립과 음악교육활동

1919년 동경음악학교에서 퇴학당한 홍난파는 1922년 9월 민간음악기관 연악회(研樂會)를 창립한다. 연악회의 핵심적인 사업은 음악 교육에 있었으나, 그 이외에도 음악회 개최와 악보집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연악회 회원명부’에 따르면, 1923-33년까지 연악회에는 바이올린과, 풍금과, 성악과, 만돌린과의 4과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는 조선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 회원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경성이나 인근 도시는 물론, 황해도, 전라도, 평안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함경도 등 각지의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명부에는 총 232명의 회원에 대한 전공학과, 성명, 생년월일, 본적, 현주소, 입회연월일, 퇴회연월일, 수료연월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수업연한은 대개 1년 정도였으며, 주요 회원은 바이올린과의 정재희, 김수호, 홍재유, 백남진, 한용, 곽정순, 만돌린과의 다키모토(瀧本覺造) 등이었다.

홍난파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바이올린과의 홍재유, 곽정순 등은 이후 전문 음악인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수업연한이 길어야 1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의 음악수준이 비교적 낮았음을 짐작케 한다. 더구나 꼭 1년간을 수학한 홍재유의 경우, 수료 후 곧바로 연악회 조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생각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

그 밖에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인 피천득, 작곡가 김성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음악평론가로 활동한 문학준 등도 연악회 회원이었다. 경성 출신의 피천득은 1925년 9월 4일부터 10월까지, 경성 출신의 김성태는 1929년 9월 20일부터 1930년 3월까지, 전남 영광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문학준은 1930년 4월 13일부터 1931년 6월까지 연악회에서 각각 바이올린을 전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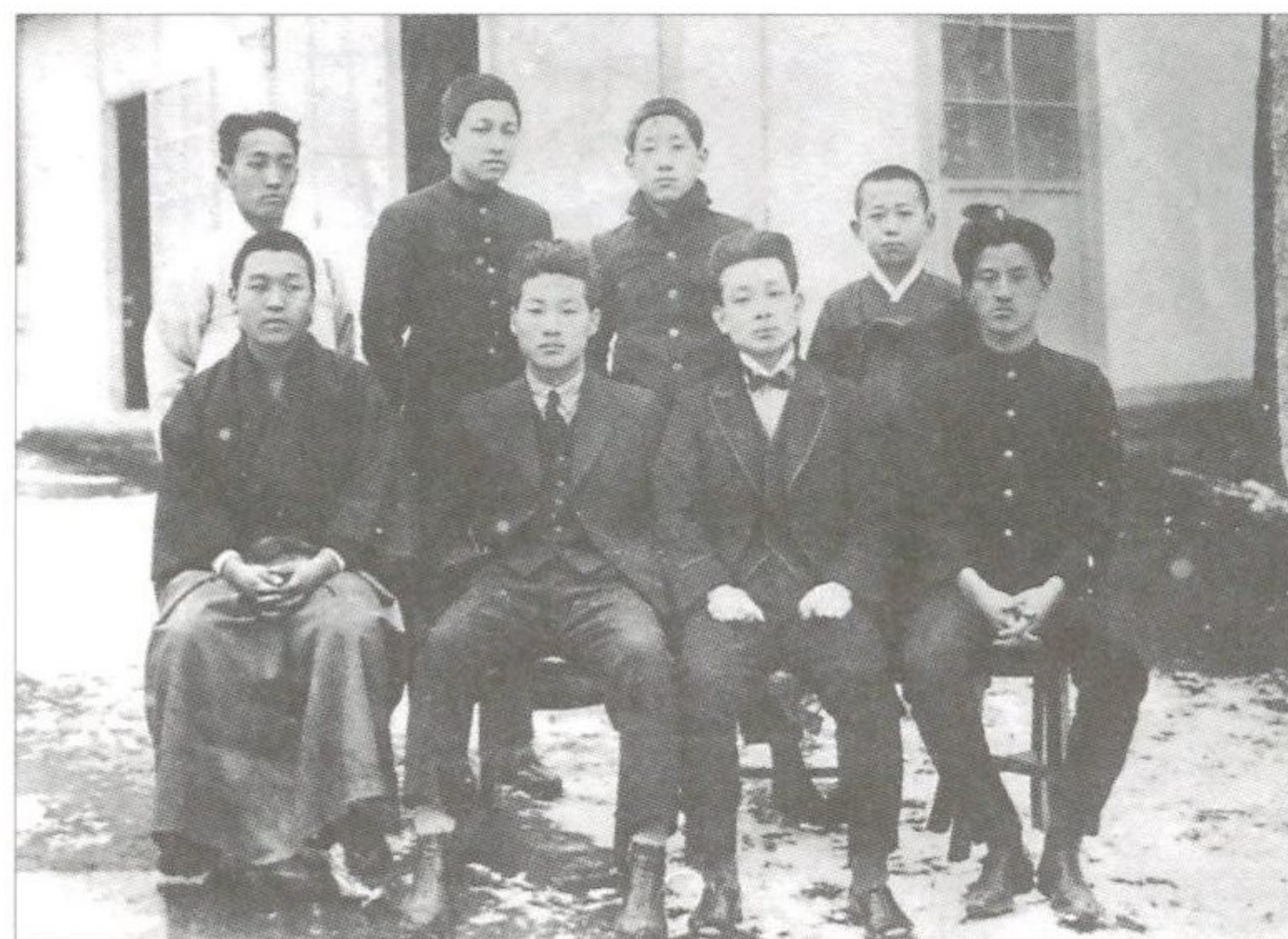
연악회의 핵심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레슨을 통한 음악 실기교육에 있었다. 그것은 연악회가 사실 음악학원이었다는 사실을 추정케 한다. 이 무렵만 하더라도 연주자로서의 생활이 보장되는 시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연악회를 통한 수익 창출도 아울러 기대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바이올린 레슨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연악회의 이름 아래, 잇단 음악회 개최와 악보집 발간 등 줄곧 서양음악의 저변확대를 꾀했기 때문이다.

홍난파는 1924년 제 1회 바이올린 독주회를 여는가 하면, 1924년 서울구락부가 후원한 음악회, 1925년 ‘음악계’ 창간기념 연주회, 춘기음악연주회, 1926년 그랜드 콘서트 등을 연악회 주최로 잇따라 열었다. 그리고 그는 양금, 단소 등 전통악기와 자신의 바이올린으로 선양합주(鮮洋合奏)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홍난파는 1925년 ‘음악계’를 창간, 1926년 제 4호까지 발행했으며, 바이올린 독주곡 ‘애수의 조선’, ‘하야의 성군’, ‘로-만스’, ‘동양풍의 무곡’ 및 ‘세계명작가곡선집’, ‘조선동요백곡집’ 상·하편, ‘조선가요작곡집’, ‘특선가요곡집’ 등을 잇따라 펴냈다.



연악회 제 2회 학생 공연



연악회 제 2회 수업기념

考 備	修 業	退 會	入 會	現 住	本 籍	姓 名	年 月 日 生	(第 一 部) 바이올린과
授 任 命 一九二三年四月一日부터 助教	一九二四年 五月廿一日		一九二二年 四月一日	上 舍	京城府昌成洞一〇九	洪 載 裕		一 部
	一九二二年 三月廿一日		一九二二年 四月一日		釜山道安岳邑	金 東 一		(第 一 部) 바이올린과

연악회 명부 1 (홍재유)



# 꿈속의 나비가 부채에 앉았네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흔히 옛그림 중에 화초와 풀벌레를 소재로 하면 초충도(草蟲圖), 거기에 새를 그리면 화조도(花鳥圖), 고양이나 개와 같은 털있는 동물을 그리면 영모도(翎毛圖)라 불렀다. 김홍도가 당시 살아가던 옛 선인들의 생활모습과 정신을 아주 생생하게 풍속화·신선도·산수화를 통해 그려내었음은 익히 알고 있다. 화조나 영모 그림도 제법 멋스럽게 그렸다. 그러나 남은 작품 가운데 초충도나 화조도는 드문 편이다. 절기에 따른 꽃과 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 등은 그 상징하는 의미가 숨어있는 법이었다. 이를 우의(寓意)라 하였다. 가령 갈대밭에 노니는 기러기를 그렸다면 이는 무슨 뜻일까. 갈대와 기러기를 한자로 옮겨서 그림 제목을 노안도(蘆雁圖)라 한다. 이를 발음이 같은 다른 뜻의 의미와 상통시키므로 흔히 노안도(老安圖)라 해석하는 것이다. 즉 나이 늙도록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그림 속의 초목이나 동물이 넉넉히 말해주는 우의가 해학스럽고 사람들에게 좋은 활력소가 되기 마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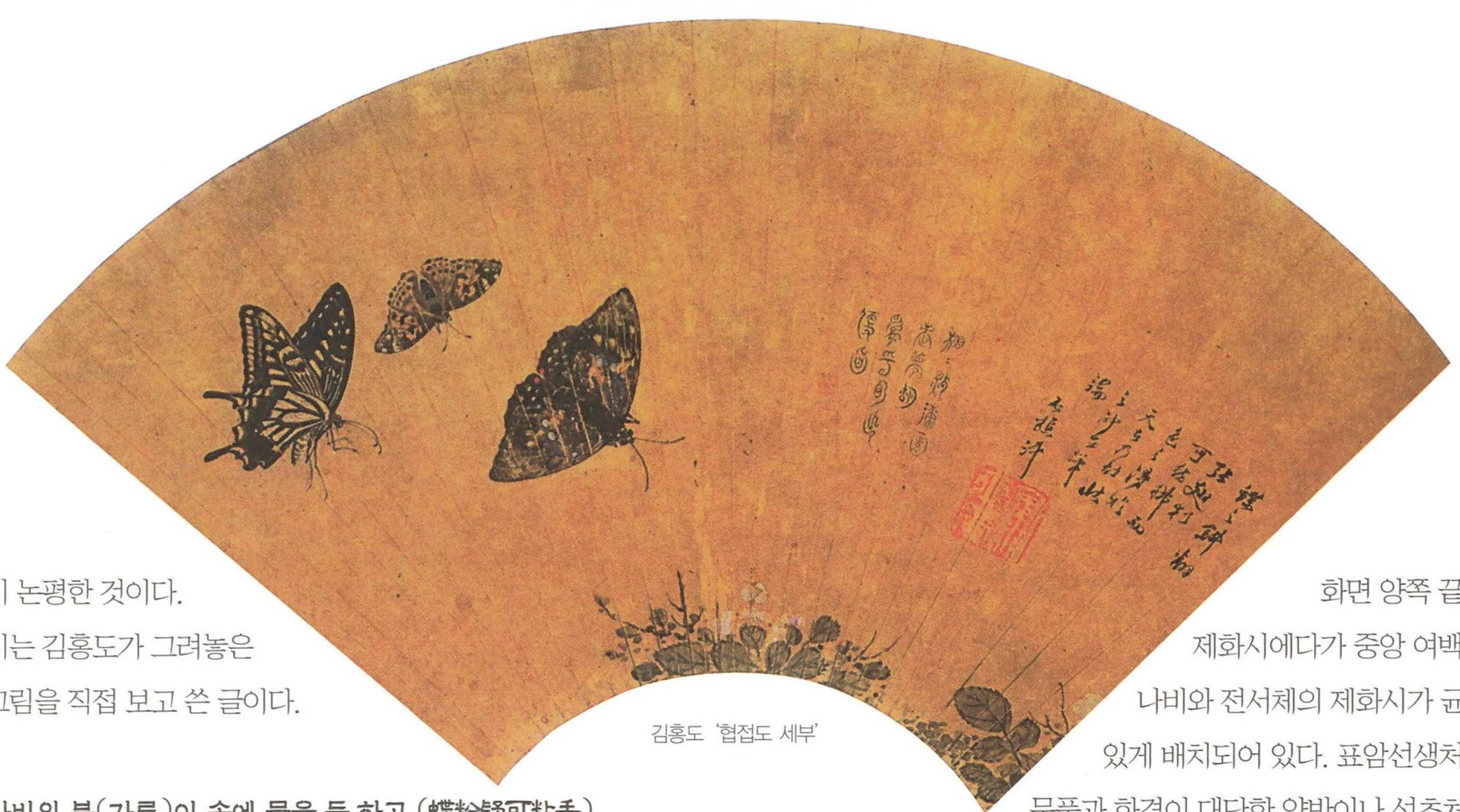
김홍도의 그림 중에서 협접도(蛺蝶圖: 종이담채, 29×74cm, 국립중앙박물관)라는 작품이 있다. 오늘은 이 그림 산책을 떠나보기로 하자. 부채의 면에 그렸기 때문에 으레 선면(扇面)이란 수식어를 붙이곤 한다. 협접이란 호랑나비를 말한다. 1782년(壬寅) 가을에 그렸으니 38세의 한창 무르익을 시절이었다.



김홍도 '협접도'

그림을 보면 짙레꽃이 활짝핀 뜨락에 나비가 세 마리 날고있는 산뜻한 정경이다. 마치 자연 속의 아름다운 한 장면이 부채 위에 살포시 내려 앉은 분위기인양 정겨워 보인다. 황칠 지면에 선명한 꽃과 나비의 채색도 조화롭다. 이같은 고급 종이는 그의 재정 스폰서였던 김한태(金漢泰: 1762~1823)가 조달해 준 것이었다. 앞의 글(8월호)에서 소개했듯이 그는 중국어 역관으로서 사신들과 동행하며 중국에 다녀올 때 무역으로 진귀한 물건을 가져와 큰 돈을 번 한양의 거부였다. 둥근 선면은 무한한 우주요, 나비와 꽃은 자연의 섭리이렸다. 그런데 선면 속의 나비의 배치가 한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으로 약간 비껴 그렸다. 짙레꽃에 앉았다 날았다 하는 동감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비의 생태를 잘 읽을 수 있는 것이 제화시를 보면 알 수 있다. 화면의 왼쪽 시는 스승인 표암 강세황(姜世晃: 1713~1791)





김홍도 '협접도 세부'

이 논평한 것이다.  
이는 김홍도가 그려놓은  
그림을 직접 보고 쓴 글이다.

나비의 분(가루)이 손에 묻을 듯 하고 (蝶粉疑可粘手)  
사람 솜씨가 자연의 조화를 빼앗더니 (人工之足奪天造)  
드디어 예 이르렀구나 (乃至於是耶)  
펼쳐보니 경탄함에 한마디 표제를 붙인다. (披覽驚歎爲題一語)  
표암평 (豹菴評)

오른쪽에는 또다른 시가 있다.

나비가 비스듬히 날며 날개를 펼치니 (蝶之斜翔張翅)  
살아있는듯 하고 (猶可彷彿)  
빛깔은 자연에서 얻어와 능히 모습을 보이니 (而色之得於天者  
乃能狀之)  
붓끝에 신기가 살아있구나. (神在筆端)  
석초평 (石樵評)

이 제화시는 조선 말기의 문인화가 석초 정안복(鄭顔復: 생몰 미상)이 앞세기에 그린 김홍도의 그림을 보고 제발을 붙인 것이다. 정안복은 19세기 인물로 출신 배경과 생애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같은 시대에 살던 학자이자 개화사상가인 강위(姜瑋: 1820~1884)에게 묵죽을 그린 부채를 선사하는 등의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난초와 대나무를 잘 그렸으며, 참신한 필치와 담채풍의 분위기로 보아 김홍도가 구사한 명대(明代) 절파화풍(浙派畫風)의 영향을 잘 이어받은 인물로 보인다. 그리고 화면 가운데는 “즐겁게 훨훨 날던 꿈 속의 나비가 어찌하여 부채 그림 위에 올랐느냐”라고 하는 제화시가 단아한 전서(篆書)로 쓰여져 있다.

화면 양쪽 끝의  
제화시에다가 중앙 여백에  
나비와 전서체의 제화시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다. 표암선생처럼  
문풍과 화격이 대단한 양반이나 석초처럼

꽤 높은 문인화가의 논평에 못지않게 설과한 셈이다. 앞의 두 논평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낙관(落款方印)이 있지만 누구의 것인지 자세히 알기 어렵다. 화면 오른쪽 아래엔 짙레꽃이 상큼한 푸른 꽃잎과 함께 잘 자라있다. 꽃잎 위 맨오른쪽 끝에는 김홍도가 그림을 그린 시점과 작품을 기증하게된 동기를 적은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알 수 없다. 임인추사능위... (壬寅秋士能爲...)라 하여 1782년(임인) 가을에 김홍도가 누구를 위해 그려 준다는 글인데, 아쉽게도 그 이하의 글귀는 인위적으로 삭제되어 있다. 다만 김홍도의 낙관만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3·1독립선언의 한 사람인 이갑성(李甲成; 1889~1981) 선생의 아들인 이용희(李用熙: 1917~1997) 선생의 글에 의하면, 한말 서예가이자 언론인이었던 오세창(1864~1953)이 김홍도의 협접도에 표제를 단 글귀를 소개한 부분이 있다. 여기서 김홍도의 후원자였던 영원재(寧遠齋) 김한태가 주었던 종이에 그린 작품임을 이야기하였고, 이어 자신의 외가가 단원의 방계(傍系)이며 처숙(妻叔)이 영원재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역관가문 족보를 밝혀 놓았다. 아무튼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지만 누군가에 의해 김홍도의 수작(秀作)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2백년 전 서화수장 풍조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셈이다.

김홍도의 협접도에 등장한 호랑나비가 아마 장자(莊子)의 호접몽(胡蝶夢)에서 날아온 나비가 아닌지 모르겠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모처럼 오늘 옛그림 속의 호랑나비를 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 찬란했던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김해 가야의 거리

‘가야 500년의 고도’ 김해, 찬란했던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김해는 시 전체가 역사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김해 도심을 흐르는 해반천을 따라 조성된 ‘가야의 거리’는 가야문화를 대표하는 중요문화재가 모여있는 살아있는 가야사박물관이자 도심속 시민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다. 지난 2006년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경관으로도 유명하다.

‘가야의 거리’는 가락국 시조왕인 김수로왕의 탄생설화가 전해지는 가야역사의 출발점인 구지봉에서 시작된다. 행정학상으로는 김해 시가지의 중심인 구산동에서 봉황동까지 해반천을 따라 연지교-경원교-봉황교-전하교 등 4개의 교량을 잇는 2.1Km 구간이다. 구지봉을 출발, 산책로를 따라 내려오면 국립김해박물관과 만난다. 건물 전체를 검은 벽돌로 외장해 철광석과 숲의 이미지로 ‘철의 왕국’ 가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국립김해박물관은 가야문화권의 유적을 시대별, 지역별로 정리해놓고 있어 가야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가야의 거리’ 시작이다. 거리 입구에는 ‘가야의 거리’ 시작을 알리는 조형물이 서 있다. 작은 야외



공연장을 지나 아름답게 조성된 가로수길을 따라 걷다 보면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김수로왕의 건국신화 내용을 화강석 부조벽화로 제작한 '신화의 벽'과 다양한 조형분수, 춤추는 시계탑, 분수광장, 기마상 등이 시선을 끈다. 소뿔형태의 술잔인 각배를 본뜬 조형분수, 바닥분수, 청동칼분수 등 아름다운 조형분수는 동계기간을 제외하고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낸다.

금관가야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봉황대까지 이어지는 '가야의 거리' 주변에는 다양한 유적지가 몰려있어 쉽게 가야 역사와 만날 수 있다. 인도 아유타국 공주로 김수로왕의 왕비가 된 허황옥의 능인 수로왕비릉과 수로왕릉, 금관가야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과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대성동고분군, 수로왕릉과 대성동고분군을 이어주는 생태공원인 수릉원, 가야시대 대표적인 조개무지로, 우리나라 고고학상 최초로 발굴조사되어 사적 제 2호로 지정된 회현리패총 등 가야문화를 대표하는 중요문화재가 벨트처럼 둘러싸여 있다. '가야의 거리' 끝을 알리는 봉황동 유적지는 금관가야 최대의 생활유적지인 봉황대와 회현리 패총을 합쳐 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지로, 옛 가야인의 주거생활을 알 수 있는 고상가옥과 망루, 해상포구가 재현되어 있어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걷고 싶은 거리, 가보고 싶은 거리, 사색의 거리'로 알려진 '가야의 거리'는 내년부터는 가야인의 생활상을 시대별로 느낄 수 있는 가야 역사, 문화 테마거리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 가야인의 생활을 시대별로 느낄 수 있는 시설과 시민 편의시설 등을 대폭 보강해 가야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

늦은 가을,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역사의 현장 속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자.

- ① '가야의 거리' 시작을 알리는 조형물
- ② 기마상
- ③ 소뿔형태의 술잔인 각배를 본뜬 조형분수
- ④ 봉황동 유적지







## 언제나 푸른 꿈을 꾸는 즐거운 어머니들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

‘함께하는 어우러짐의 미학’ 합창이 한 오락프로그램의 인기로 새로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남구 대연동 남부산 농협 3층 강당에서는 마음은 언제나 청춘인 노래하는 어머니들로 북적이다. 귀에 익은 가곡, 민요, 노랫소리와 함께 세월을 잊은 어머니의 웃음 소리에 발길을 멈추게 된다. 부산에서 어머니합창단 붐을 일으킨 남부산농협 청솔어머니합창단이 바로 웃음의 주인공들.

요즘 TV에서 나오는 합창무대에 동화되어 함께 노래하는 기쁨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들은 ‘나’가 아닌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합창’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다. 10월 17일 방문한 연습실은 11월 정기공연을 앞두고 연습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1987년 11월 25일 남부산농협 주부대학 수료생모임으로 창단된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은 부산의 어머니합창단 중에서도 그 역사가 깊다. 현재 단원들은 40여명. 단원들은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지만 합창을 향한 그 열정에는 나이차이가 없다. 1대 이외균 지휘자와 오랜 호흡을 맞춰온 청솔합창단은 2007년부터 테너 강학윤 씨와 새롭게 출발, 변함없는 음악사랑을 펼치고 있다.

청솔합창단은 그 오랜 역사만큼 내공이 대단하다. 합창단 창단이듬해인 1988년 첫 정기연주회를 열고 본격적인 합창활동을 시작한 청



솔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외 전국농협합창제, 부산합창제, 부산시 송년음악회, 세계 애창곡의 밤,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부산 오륙도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그 동안 부산시어머니합창경연대회 최우수상을 두 차례 수상하고 2002년에는 부산에서 열린 세계합창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2004년 독일브레멘 합창올림픽에 참가해서는 은메달을 수상했다. 농협중앙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소문이 나 있다. 현재 본격적인 활동지역인 남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인기가 높아 공연이 많은 봄, 가을에는 공연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창단멤버로 25년 청솔합창단과 함께해온 박순희 단장은 옆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자기 것을 지켜내며 새로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가는 합창예찬론자이다.

“음악만으로 존재하던 악보들이 단원들의 입을 통해 영감어린 노래로 승화될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노래하는 어머니를 통해 합창의 참뜻을 깨달은 아이들이 지금도 멀리서 공연 때마다 응원메시지를 보냅니다.”

올해는 박순희 단장의 막내 동서 이주현(38) 씨가 청솔합창단의 오디션을 통과해 합창단 막내로 입단했다. 결혼 전부터 청솔합창단 연주회를 지켜본 이주현 씨가 박순희 단장을 쫓아 스스로 합창단에 입단하게 된 것. 어머니의 합창단 활동이 초등학교 조카들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고 있다.

두 차례 단장을 맡아 봉사한 고문 여성자(64) 씨는 청솔합창단의 정신적 지주이다. 노래가 좋아 합창단 창단에 흔쾌히 동참했던 여성자 씨는 창단연주회 당시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을 가득 메운 청중들의 뜨거운 반응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노래와 봉사활동까지 펼친 청솔 사랑은 그에게 여전히 진행형이다.

노래하는 할머니, 어머니를 지켜보는 청솔합창단 가족들은 합창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이들의 열정을 응원하고 있다. 특히 남부산농협 조명수 조합장, 임직원, 주부대학 총동창회장과 선후배,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부산지부도 청솔합창단의 든든한 후원자들이다.

준비된 합창은 듣는 이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함께 준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청솔만의 ‘친화력’ ‘결속력’ 때문에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는 강학윤 지휘자는 ‘언제나 푸른’ 청솔의 뜻처럼 합창단원들과 변함없는 하모니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1987년 11월 25일 남부산농협 주부대학 수료생모임으로 창단된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은 부산의 어머니합창단 중에서도 그 역사가 깊다.





# 영화의 전당 개관 축하공연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부산-

박진홍\_음악평론가



연주 레퍼토리의 적확성과 구성력, 완성도 높은 공연기획, 실력있는 연주자들의 훌륭한 연주 등이 돋보였던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영화의 전당 개관 축하공연

10월 8일 토요일 오후 6시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는 영화의 전당 개관을 축하하는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관객 입장은 연주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끊이지 않고 길게 이어져,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산 너머 지는 태양의 마지막 석양빛을 받으며 오충근 지휘자가 무대 위에 올랐다. 이 날의 웅장하고 화려한 시작을 알린 것은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 이었다. 무대 뿐만 아니라 야외극장의 객석 양 끝에 준비해 둔 두 대의 대고(大鼓)로 대포 효과를 냄으로써 관객들은 훨씬 입체감 있는 연주를 감상할 수 있었다. 소프라노 박정원을 비롯해 10테너, 연합합창단 등은 '오페라의 유령' '영화음악 모음곡'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투나잇' '칸초네 모음곡' 그리고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의 연주를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갈 부산과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노래했다.

특히 인상적인 무대는 김지연의 바이올린 연주였다. 붉은 드레스를 입고 사라사테의 '찌고이네르바이젠' 을 연주한 그녀는 바이올린의 여신이라는 닉네임답게 열정적이고 고혹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연주곡이 가진 다양한 감정들에 따라 변하는 얼굴표

정과 음색의 변화, 세계 정상급의 기교적인 연주는 오케스트라와의 세밀한 교감과 어우러져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비습새 예술단과 함께한 박범훈 작곡의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중 '놀이', 그리고 연합합창단과 함께한 안익태 작곡의 '한국환상곡' 은 웅장한 영화의 전당의 위용과 강한 의지를 표현함에 가장 적절한 레퍼토리였다. '놀이' 는 우리 장단과 사물놀이를 바탕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웅장한 '한국환상곡' 이 희망을 토해내듯 피날레를 장식하였으며, 객석을 가득 메운 4,500여명 관객들의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번 연주를 통해 정통 클래식이라는 그들만의 색깔을 잠시 접어두고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와 활동의 접점을 찾으려 시도하였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기량 뿐만 아니라 연주 레퍼토리의 적확성과 구성력, 완성도 높은 공연 기획, 실력있는 연주자들의 훌륭한 연주 등이 돋보이는 무대였다.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은 야외임에도 높은 지붕을 가지고 있고, 영화 상영을 위한 음향 시스템, 대형 스크린 등을 가지고 있어, 영화 상영 뿐만 아니라 오페라를 비롯한 대규모 음악행사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음악과 영화가 더 큰 발전을 위해 공동작업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앵콜곡 칼 오르프의 칸타타 '카르미나 부라나' 의 '운명의 여신 이어' 에서 처럼 웅장한 음악과 화려한 불꽃은 나타남과 동시에 사라지지만 그 감동만은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전해 준 이 날의 감동이 앞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부산이 아시아 영화의 창을 여는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영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 유수의 국제영화제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EBS, 나는 꿈수다, 종합편성채널

남인용\_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0일이다. 작년부터 시행되던 EBS 연계 출제를 더욱 강화하여 '체감할 수 있는 연계 출제 70%'를 강조하면서 EBS 교육방송이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수년간의 검정과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보다 매년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되는 EBS 교육방송 교재가 더욱 중요한 대입 교재가 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EBS 교육방송 교재의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하느라 수험생과 EBS 교재 담당자는 바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까지 모든 오류가 고쳐질지 의문이다.

EBS 교육방송 연계 출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교육을 정상화해서 대학수학능력을 길러야 하는 정정당당한 정면승부를 피하고, 학교교육을 보

완하고 소외계층에게 학원을 대체해 주어야 할 EBS 교육방송을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의 통합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 꿈수 때문에 생긴 일이다. EBS 교육방송은 소외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는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꿈수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꿈수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꿈수다'는 환호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 헌정방송'을 표방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까지로 방송기간을 한정한 '나는 꿈수다'는 얼마전 23회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출연하여 화제를 모았다. '나는 꿈수다'의 인기가 여당의 대표가 출연을 자원하게 만든 힘이다.

명분과 정정당당함을 주장하는 수많은 꿈수들을 향해 아예 꿈수를 표방하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꿈수다'는 일견 매우 독특해 보이지만,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MBC 황금어장의 좌담 토크쇼 '라디오스타'나 KBS 2TV 짬질방 토크쇼 '해피 투게더'와 유사하다. 그곳이 짬질방이든 길거리든 전국의 명소든 공적인 담화와 사적인 담화가 혼재되고 사회 전반의 현상을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점은 공통된 것이다.

내가 좋아서 내가 찾아서 듣는다는 점, 저널리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판지일보의 김어준 총수가 진행한다라는 점, 공익성이나 중립성을 표방하는 방송이 아니고 파일로 듣는 형식이어서 주관적인 대화가 자유롭다는 점 등이 '나는 꿈수다'의 특징이다. 광고 없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방송 아닌 방송, '나는 꿈수다'는 기득권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존 방송에 경종을 울린다. 각자 세상의 중심인 일반 개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대변하는 '나는 꿈수다'에 성원을 보내는 것이다.

종합편성방송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역행한다. 수용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세분화된 프로그램의 마련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는 이때, 수용자의 특성화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케이블방송에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모두 편성하는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종합편성채널은 신문의 어려움을 방송으로 해결하는 꿈수에 해당한다.

어떤 방송이든 외부적으로 표방하는 명분과 내부적으로 구성되는 실질적인 표현이 일치하는 즉, 명실상부한 방송이 되었으면 한다. 자기 혼자만 떠들고 말거라면 구태여 방송할 필요가 없다. 방송은 누군가를 수용자로 가정하고 이루어진다. 방송인과 수용자가 서로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 교대를 하며 상생하는 방송, 꿈수가 아닌 정수가 대세가 되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한다.



# Program

##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2011 부산국제합창제

11월 2일-5일 수-토요일 10:00  
 >>> 대극장, 중극장, 국제회의장



12개국 29개 팀이 참가하는 2011 부산국제합창제가 세계 각국의 연합합창단이 벌이는 전야 음악회를 필두로 갈라 콘서트, 만남의 콘서트, 챔피언 콘서트, 경연, 워크샵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전야 음악회에서는 체코,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팀의 전통음악 공연,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연합합창단과 알로이스 오케스트라(지휘/정민)가 연주하는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가, 경연은 3일부터 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클래식(혼성·동성), 민속음악, 대중음악 등 4개의 종목으로 진행된다.

#### ::주요일정

- ▷전야 대 음악회 : 11월 2일 19:30
- ▷합창경연(Competition) : 11월 3일 10:00 클래식 혼성  
 11월 4일 10:00 클래식 동성, 13:00 민속음악  
 11월 5일 10:00 대중음악
- ▷갈라콘서트 : 11월 3일 19:30
- ▷만남의 콘서트 : 11월 3일~11월 5일
- ▷시상식 및 챔피언 콘서트 : 11월 5일 19:30
- ▷워크샵 : 11월 4일 14:00  
 강사/박신화(안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11월 5일 13:00  
 강사/이기선(고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관람료 초대(선착순)

::문의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3-0176)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교수 순회연주회

11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 중극장



김영미 이화영 올렉 쉬틴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김영미, 소프라노 이화영, 피아니스트 올렉 쉬틴이 들려주는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교수 순회연주회.

####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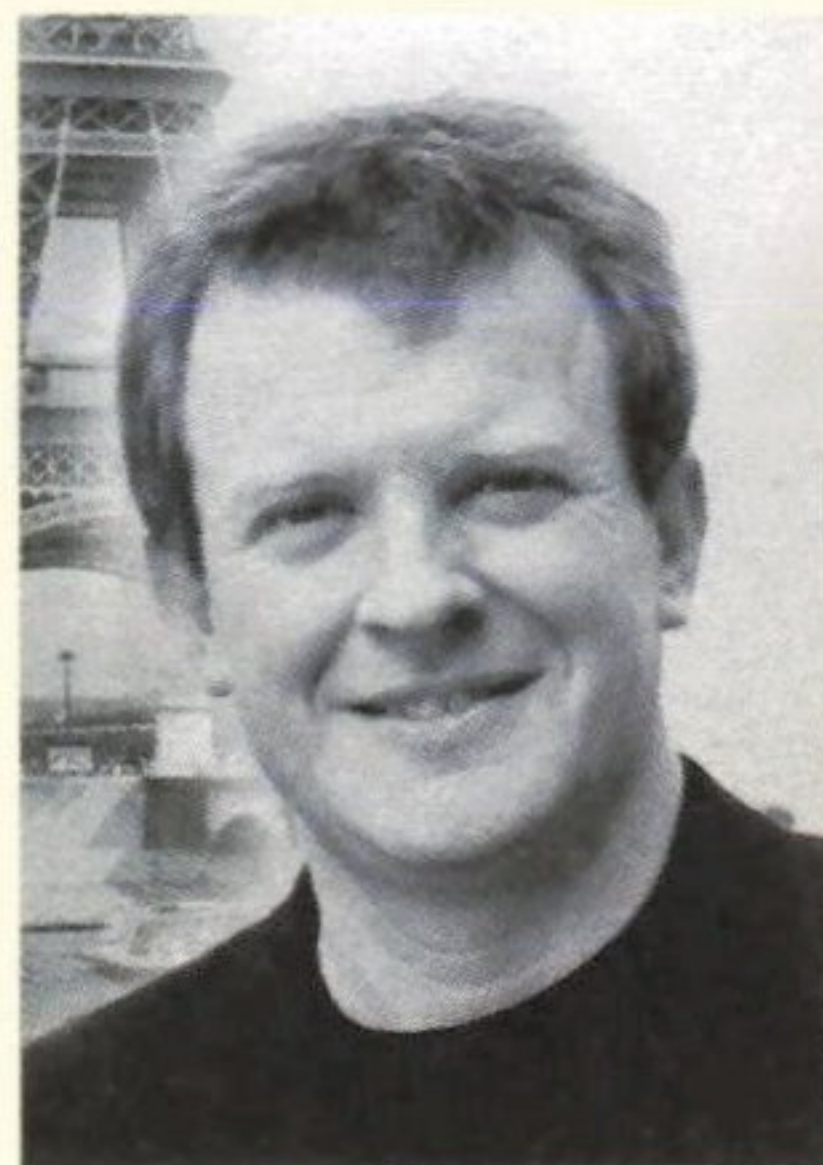
슈만-리스트/Widmung(Dedication)  
 김창재/Sori for Flute and Piano, 호수가에서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작품 23  
 푸치니/오페라 '잔니스키키' 중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의 계명대학교(053-580-6520)

### 세계적인 클라리네티스트 '도미니크 비달과 함께 하는 프랑스 음악의 밤'

11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 소극장



파리국제콩쿠르 그랑프리, 크로드 파리국제콩쿠르 그랑프리, 뚜롱국제콩쿠르 입상, 파리 국제리옹클럽 콩쿠르 그랑프리 수상 등에 빛나는 세계적인 클라리네티스트 도미니크 비달과 함께 하는 프랑스 음악의 밤.

#### ::프로그램

드뷔시/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Premiere 랩소디  
 뽀랑/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마장조 작품 167  
 생상/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수곡  
 · 클라리넷/정준화, Geoffrov Pevssonneaux  
 · 피아노/유경선

::관람료 무료

::문의 이원기(010-8280-4646)

### 2011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입상자 콘서트

11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 대극장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을 기리기 위한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입상자들의 부산연주회. 전 세계의 젊고 재능있는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발굴하는 2011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는 윈헨 음대, 쾰른 음대, 줄리어드 음악원, 커티스 음악원 등에 재학중인 세계 각국 참가자들이 지원, 6개국 2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10월 29일~11월 5일까지 본선을 통과한 입상자들이 아드리엘 김이 지휘하는 TIMF앙상블과 부산을 찾는다.

::관람료 VIP석 50,000원 · R석 40,000원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B석 10,000원

::문의 (재)통영국제음악제(055-642-8662~3,  
 02-3474-8315)

### 2011 제 11회 대학교향악축제

11월 7일 월요일, 15일-16일

화-수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부산, 김해지역 대학 교향악단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가을음악축제 2011 대학교향악축제.

11월 1일 신라대학교 교향악단 연주를 시작으로 동의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7개 대학 관현악단이 부산문화회관과 금정문화회관 무대에 오른다.

#### ::일정

- 11월 1일(화) 신라대학교(지휘/백진현) 금정문화회관
- 11월 2일(수) 동의대학교(지휘/윤상운) 금정문화회관
- 11월 3일(목) 고신대학교(지휘/오충근) 금정문화회관
- 11월 7일(월) 부산대학교(지휘/박성완) 부산문화회관
- 11월 8일(화) 동아대학교(지휘/이동신) 금정문화회관
- 11월 15일(화) 경성대학교(지휘/이기균) 부산문화회관
- 11월 16일(수) 인제대학교(지휘/이병욱) 부산문화회관

::관람료 초대

::문의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 제 13회 부산YWCA합창단 정기연주회

11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1973년 6월 못골합창단으로 창단된 이후 일본 KBC 방송국 초청 후쿠오카 공연, 캐나다 밴쿠버 한인 YMCA 인준 축하음악회, 뉴욕 한인 YWCA 초청연주회, 미국 복음방송 초청연주회, 일본 오사카 YWCA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부산YWCA합창단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성가곡/Kyrie, 모두 기뻐해 모두 감사해, 목마른 사슴  
세가지 언어의 노래/Dirait-on, You Raise Me Up  
즐거운 연주를 위한 선택/동요메들리, 마법의 성  
개구리와 올챙이, 그대는 내 모든 것 등 수곡  
· 지휘/김소천 · 반주/정미전  
· 특별출연/소프라노 전미나, 바이올리니스트 여주현

::관람료 무료

::문의 안은영(010-3862-8180)

### 문정수와 함께하는 2011 영화음악 플러스 콘서트

11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영화의전당 개관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부산 국제영화제에 이어 감미로운 영화음악으로 영화의 감동을 선사하는 2011 영화음악 플러스 콘서트. 부산국제영화제의 출발을 이끈 문정수 전 부산시장을 비롯해 영화감독 이장호, 영화배우 오정해 등이 특별한 영화사랑을 펼친다.

#### ::프로그램

가을의 노래/이별,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영화음악/영화 대부, 타이타닉, 러브스토리, 도가니,  
해바라기, 닥터지바고, 소녀의 기도 삽입곡 등  
출연  
전영록(가수), 오정해(영화배우), 이경오(팝페라 가수), 알렉스(아코디언 연주자), 이장호(영화감독), 정두언(국

회의원), 박광하(테너), 문정수(전 부산시장)

· 연주/YMCA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 합창/신라대학교 합창단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부산선진문화포럼(256-7614~5)

### 독일가곡연구회 제 39회 정기연주회

11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1987년 독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에서 유학한 음악가들로 결성된 독일가곡연구회가 모차르트, 베버, 레하르, J. 스트라우스 2세의 오페라와 오페레타로 가을 무대를 연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마술피리

레하르/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스트라우스II/오페레타 박쥐 등

#### 출연

김현숙, 김혜정, 정서영, 김현주, 장은영, 장희진, 윤선기(이상 소프라노), 이은민, 김현식, 조윤환, 우원석(이상 테너), 김종화(바리톤), 김일석, 김정대(이상 베이스)  
· 피아노/김남숙, 박미은, 김성희, 곽윤희, 공소현, 손정화, 임호진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김현식(010-3120-4116)

### 2011 김복선 발레공연

11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대한민국무용제 대상, 서울무용제 안무상을 수상하고 동아대학교 교수로 발레 대중화에 힘써온 김복선 교수와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생, 재학생들이 함께 펼



치는 2011 김복선 발레공연.

도나우 강이 지나는 자연적 리듬과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발레로 표현한 'Danube Waltz', 고전소설 '춘향전'을 발레화한 '丹', 20세기 신고전주의 발레의 대표작인 조지 발라신의 'Serenade'를 선보인다.

#### 출연

정영수, 유성민, 신세정, 윤세희, 권나현, 김지향, 김희경, 조한나, 이수정, 김민경, 김환희, 백가람, 신지예 외

::관람료 일반 3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동아대학교(200-7819, 010-6495-6623)

### 심장병 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 제 7회 정기연주회

11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 중극장

1987년 남부산농협 주부대학 수료생들로 창단된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의 제 7회 정기연주회.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은 부산시 어머니합창경연대회 최우수상(2회), 2002년 세계합창올림픽 은메달, 2004년 독일 브레멘합창올림픽 은메달, 휘센합창제 장려상 등을 수상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 ::프로그램

뮐러/즐거운 웃음

모리꼬네/넬라 판타지아

호킨스/오! 해피데이

덴짜/푸니쿨리 푸니쿨라

뮤지컬 멜로디/맘마미아, 나에겐 꿈이있어요, 워터루, 댄싱퀸 등 수곡

· 지휘/강학윤 · 반주/손혜진 · 단장/박순희

· 특별출연/멜로스남성앙상블,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관람료 초대

::문의 박순희(010-8514-4740)



### 최현경, 이슬라 2인전

11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 소극장

제주시립무용단 단원으로 함께 활동한 신라대학교 동문 최현경, 이슬라의 춤 무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2인전 무대를 갖는 최현경, 이슬라는 2011 춤 안무가전 페스티벌, 2011 찾아가는 부산국제무용제 홍보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프로그램

승무(출연/이슬라), 한량무(출연/이광호)

살풀이춤(출연/최현경)

IN-(IN-MINE)(안무 및 출연/이슬라)

呐喊, 외치다(안무 및 출연/최현경)

∴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최현경(010-5034-2852)

### 제 1127회 MBC 목요일음악회 4인의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2대의 피아노 이야기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황정미

강남길

최혜련

김나연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황정미 교수와 제자 강남길, 최혜련, 김나연이 함께하는 제 1127회 MBC 목요일음악회 '4인의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2대의 피아노 이야기'.

1Piano 6Hands, 2Pianos 8Hands 등 다양한 구성의 피아노곡들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체르니/벨리니의 노르마 주제에 의한 변주곡(1Piano 6Hands)

월버그/비제의 카르멘 주제에 의한 판타지(2Pianos 8Hands)

스메타나/소나타(2Pianos 8Hands)

로시니/빌헬름텔 서곡(2Pianos 8Hands) 등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강남길(010-5240-1911)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Opera in Concert '라보엠'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연극적 장치를 배제한 오페라 전곡을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 화제를 모았던 부산시립교향악단 오페라 콘서트의 두 번째 무대 Opera in Concert '라보엠'. 올해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인 '라보엠'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1830년 파리 시, 라틴구를 배경으로 한 '라보엠'은 파리의 뒷골목 다락방에 살고 있는 시인 로돌포, 철학자 콜리네, 음악가 쇼나르 등 보헤미안 기질을 가진 4명의 방랑생활과 우정, 그리고 폐결핵을 앓는 소녀 미미와 로돌포의 슬픈 사랑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 지휘, 연출/리 신차오 · 조연출/자오 싱화  
출연

테너 조윤환, 소프라노 루안 이티엔(Luan Yitian), 바리톤 우주호, 바리톤 강경원, 베이스 함석현, 소프라노 송 위엔밍(Song Yuanming), 베이스 이준석, 테너 김추리, 베이스 문동환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소리바람중창단(어린이합창)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A석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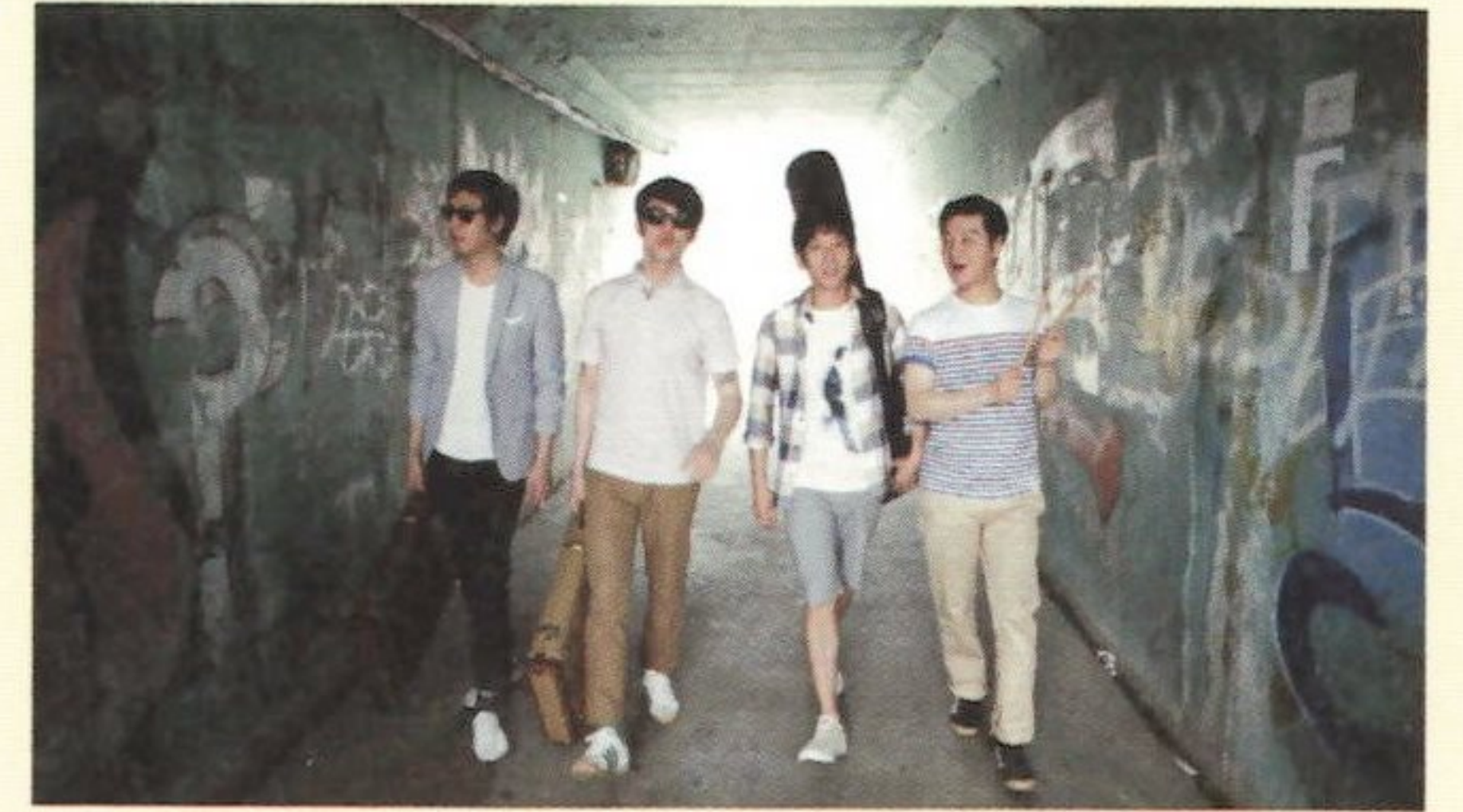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24 더 문샤이너스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 소극장

하늘아래 그 콘서트 스물 네번째의 주인공 '더 문샤이너스(The Moonshiners)'는 차승우(보컬&기타), 백준



명(보컬&기타), 최창우(보컬&베이스), 손경호(보컬&드럼)로 구성된 4인조 록 밴드로, 2007년 첫 EP 'The Moonshiners Uprising', 2009년 1집 '모험광택서'를 발표,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근 2집 '푸른밤의 BEAT!'를 발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더 문샤이너스는 수록곡 중 디지털싱글로 선공개한 'Bye Bye Bye'와 '검은 바다가 부른다'가 발표와 동시에 올레뮤직 소셜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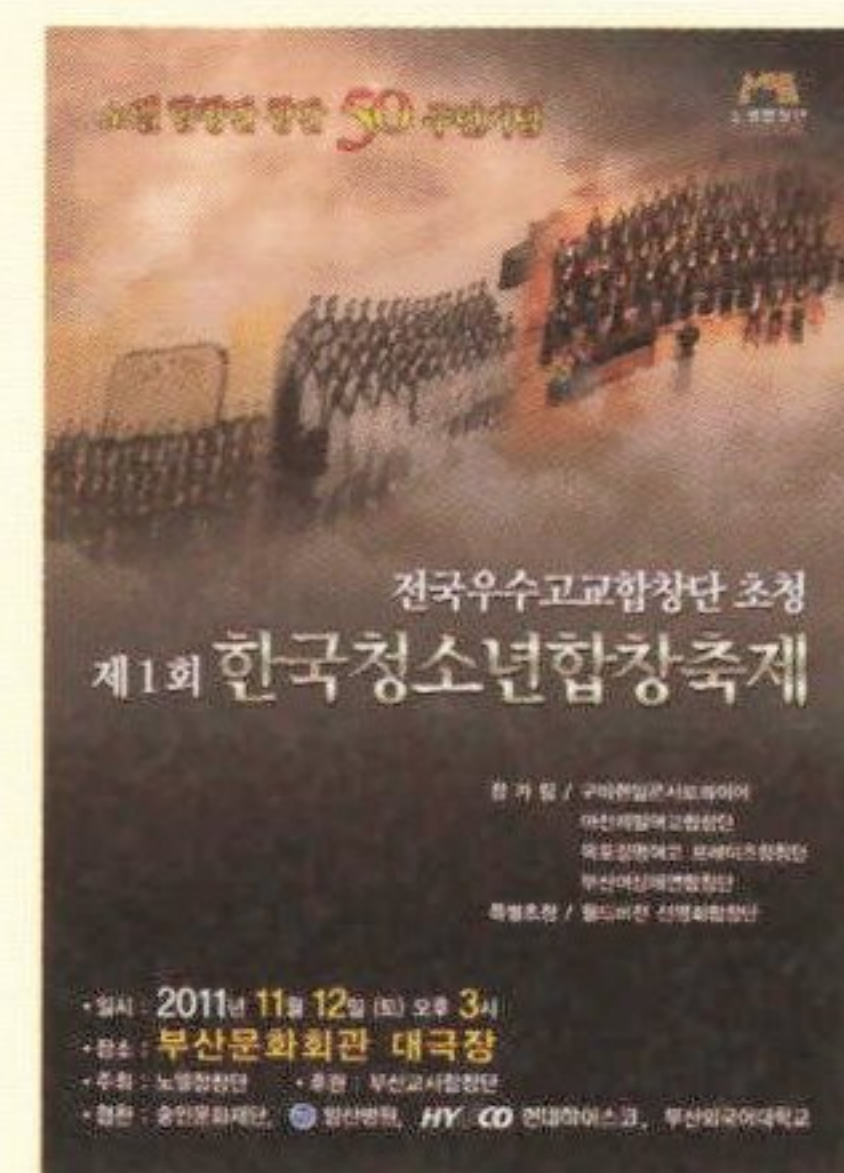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club.cyworld.com/0911concert)

### 노엘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 전국우수고교합창단 초청 제 1회 한국청소년합창축제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3:00 >>> 대극장



학생합창단으로 출발한 노엘합창단이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왕성한 합창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교 합창단과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을 초청, 순수한 영혼들이 꾸며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한다.

2011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고등학교 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구미현일콘서트콰이어, 은상을 수상한 목포정명여고합창단, 제 7회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마산제일여고합창단, 은상을 수상한 부산여상해연합합창단이 출연한다.

참가팀

구미현일콘서트콰이어(지휘/진혜숙 · 반주/도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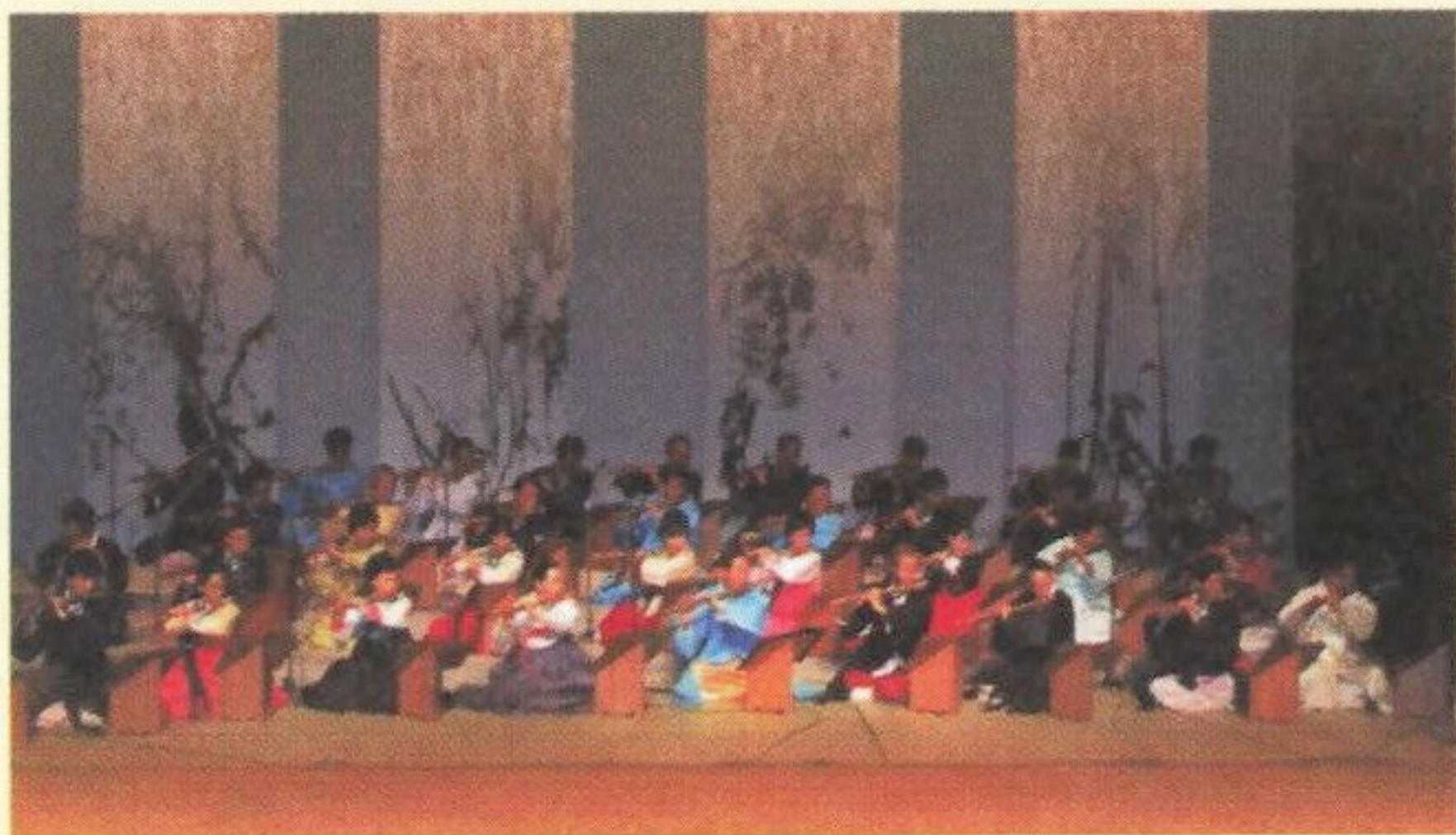
마산제일여고합창단(지휘/임성길 · 반주/정선헌, 강소희)  
 목포정명여고 프레이즈합창단(지휘/김영문 · 반주/강유리)  
 부산여상해연합창단(지휘/이종석 · 반주/강보연)  
 월드비전 선명회합창(지휘/김희철 · 반주/김창은)

::관람료 무료

::문의 노엘합창단(010-4183-2293)

### 한얼악회 제 6회 정기연주회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6:00 >>> 중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채수만의 지도로 우리 음악의 전승, 보급에 힘써온 한얼악회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부산문화회관 토요일상설무대, 오사카 국제민족음악제, 창원성산아트홀 개막연주 등 각종 무대에서 우리 음악사랑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대금독주 만파정식지곡(집박/황석주, 대금/전 회원, 장고/공정희, 좌고/하정희)

대금독주 첫대소리 '한' (대금/한규석)

소금제주 가브리엘 오보에, 카사비앙카, 방랑의 휘파람 (소금/전 회원, 반주/공정희) 등 수곡

- 해설/이태재 · 대금/채수만
- 가야금/오은영 · 아쟁/하성진
- 춤/박영자 · 반주/공정희, 하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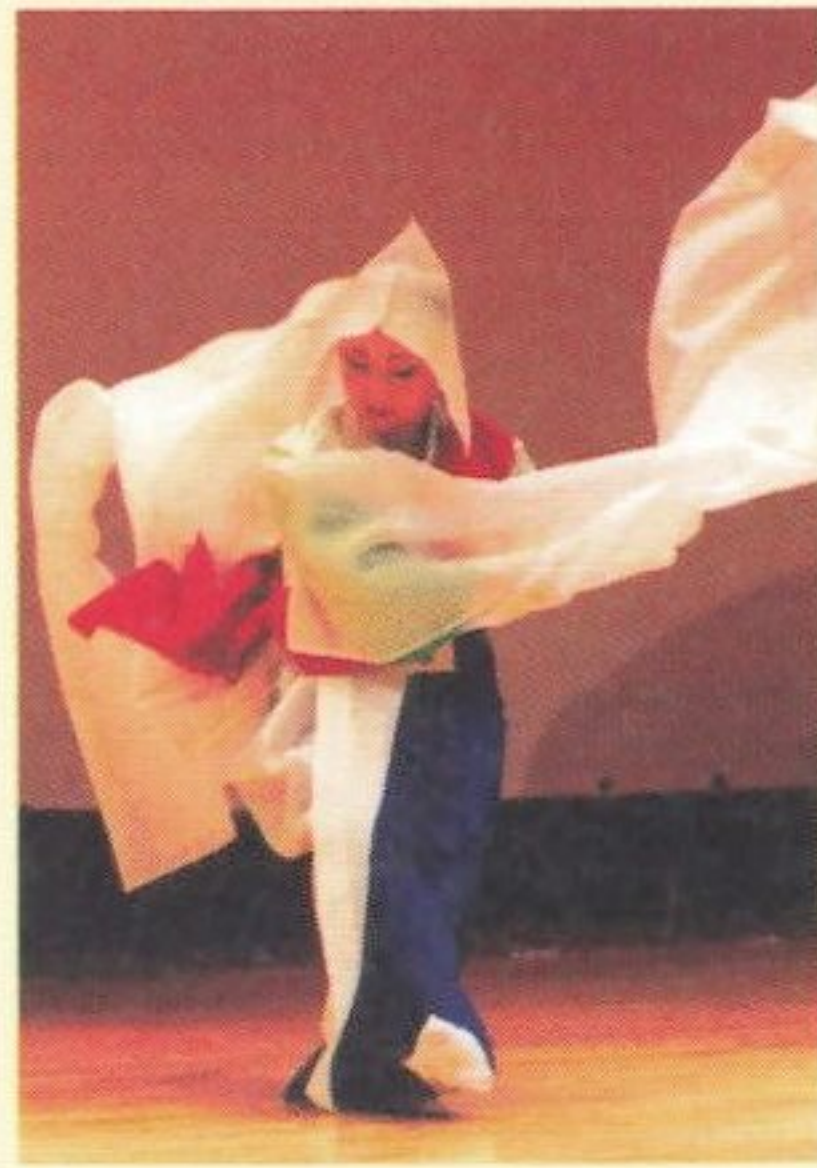
::관람료 초대

::문의 채수만(462-0173, 010-4503-1175)

### 제 4회 양태순의 춤

11월 13일 일요일 오후 6:00 >>> 중극장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 제 97호 살풀이 전수자로 우리춤의 맥을 이어온 양태순의 우리춤



한마당.

우리민속춤의 정수로 춤사위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다듬어진 '승무'와 한과 신명을 동시에 지닌 '살풀이춤', 3개의 북을 치며 춤을 추는 '삼고무' 등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삼고무(출연/최경옥, 정남선, 남성주, 진은아, 김자혜, 안정순), 살풀이, 승무(출연/양태순)

축원무(출연/최경옥, 정남선, 남성주, 진은아, 김자혜)

판소리(출연/정경화), 한량무(출연/양태순, 정남선, 남성주)

북 퍼포먼스(출연/퓨전타악그룹 자유)

· 사회/정경화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양태순(010-9060-8623)

### 제 22회 휴피리 정기연주회

11월 13일 일요일 오후 3:00 >>> 소극장

1999년 부산정보대학 오카리나 동호회인 '아소새' 출신의 회원들로 결성, 오카리나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에게 다양하고 친밀한 음악을 선사해온 휴피리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캐논변주곡, Lupin 3 opening, Adeste Fideles,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사랑한다는 흔한 말 등 수곡

::관람료 무료

::문의 이학봉(010-4323-3872)

### 덕원의 숲 국제 禪아티스트 초대전

11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춤·화두 禪·舞의 세계'와 '듬·점·쉽 명상 수행법'의 창시자로 40여년 동안 생명지향의 춤과 삶(Life), 화두와 禪(Seon), 춤·생명 사상을 연구해온 부산대학교 惠園 이윤자 교수의 덕원의 숲 22주년을 기념하는 국가간 공동 프로젝트, 듬·점·쉽 명상수행의

세계 '국제禪아티스트 초대전'.

이윤자 교수는 160회의 덕원의 숲 기획시리즈를 공연, 300여회(~2011)의 연구발표,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프로그램

〈선무와 창조의 국가 간 공동 프로젝트〉

- 미국 Prof. Byong Won Lee(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Life and Seon 禪 Message'

- 중국 馬家钦 교수(中國南京藝術學院) '昆舞의 세계'

- 프랑스 Yann Lheureux 객원교수(National Choreographic Centres), '창조적 본능'

〈선무와 선음의 세계 국가간 공동 프로젝트〉

- 한국 이윤자 교수((사)蓮亭 CHM 덕원의 숲 설립자)

'듬·점·쉽 명상수행의 세계'

- 미국 수리 피아니스트(선음연구소 대표)

'숲의 환타지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영상파노라마:Life and Seon 禪 덕원의 숲

· 축하공연/주수광 교수(부산대학교 무용학과)

::관람료 초대

::문의 이윤자(510-2949, 010-4003-7188)

### 여음회 제 4회 정기연주회

11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동의대학교 박선혜 교수를 중심으로 현재 대학에서 교육과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여음회의 제 4회 정기연주회.

여음회는 2009년 4월 제 1회 창단연주를 시작으로 그동안 피아노 솔로, 듀오(6hands, 8hands), 피아노와 첼로의 앙상블, 피아노와 성악의 앙상블 등 다양한 피아노음악을 선사해왔다.

::프로그램

브람스/8개의 소곡 작품 76 중 '카프리치오'

피아노 소품집 작품 118 중 '인터메조'

하이든/소나타 XVI:48

드볼작/전설 작품 59, 1-5 등 수곡

연주

노귀혜, 정연희, 최은실, 안진숙, 박선혜(동의대학교 교수), 서숙지, 이소영, 김화정, 이용란, 이진아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최은실(010-3304-5154)



# Program

##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김은희 피아노 클래스 연주회

11월 14일 월요일 오후 6:30 >>> 소극장

이화여대 피아노과, 독일 에센국립음대, 라이프치히국립음대, 마틴 루터대학교에서 음악수업을 한 피아니스트 김은희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클래스연주회.

연주

곽소연, 김지은, 정명후, 박경리, 서예은, 이경은, 신지은, 김하경, 김예슬, 김은민, 이안나, 정재경

::관람료 무료

::문의 김은희(010-9269-5567)

### 이동섭 피아노 독주회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동섭 교수의 피아노 독주회.

유럽 낭만파 음악의 전성기를 이끈 리스트 탄생 200주년을 맞아 리스트의 곡을 중심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리스트/순례의 해 2년, 3개의 연주회용 연습곡, 순례의 해 1년

베르디/리골레토 등 수곡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동섭(890-1326, 010-3586-7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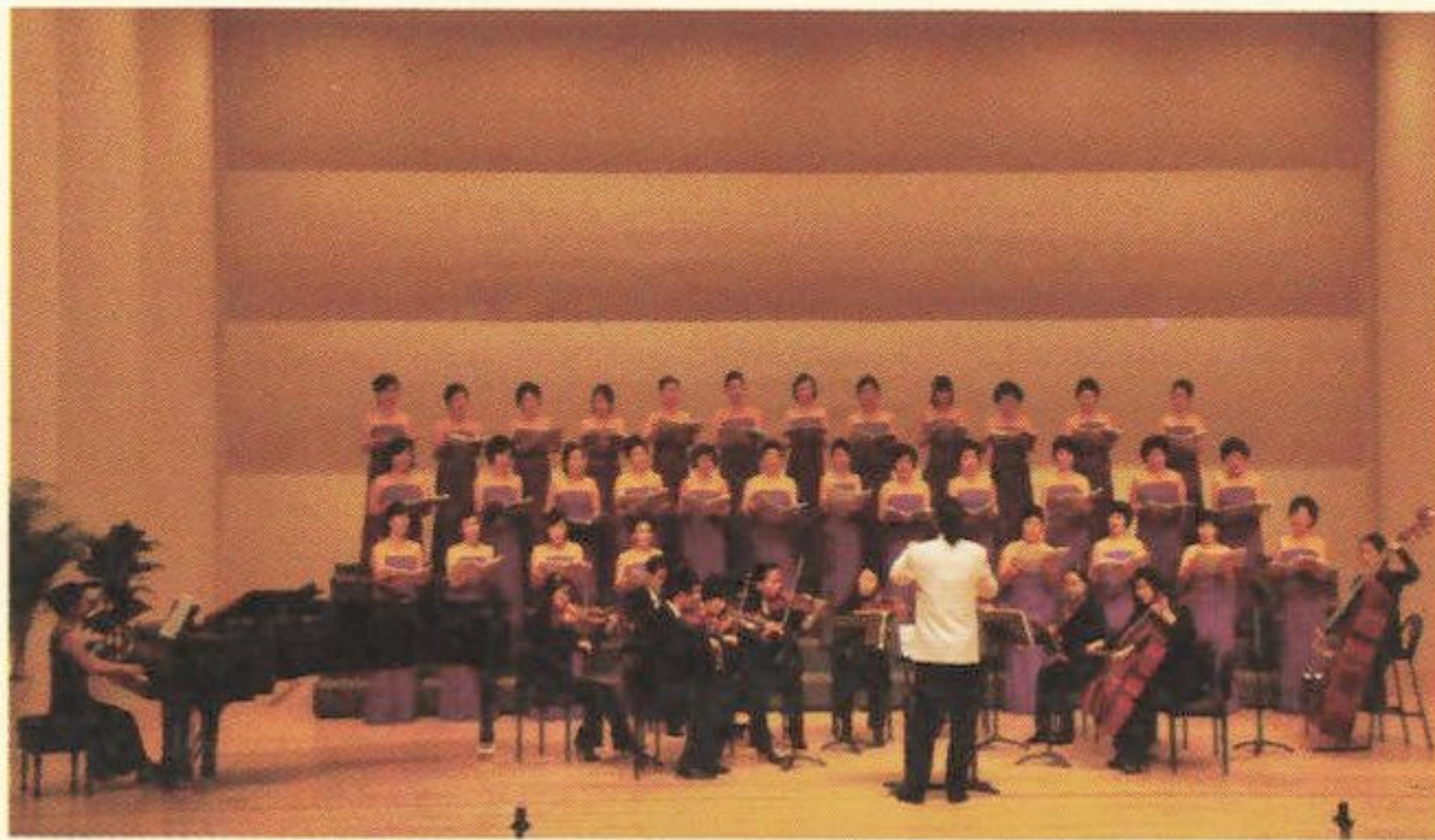
### 제 3회 부산센텀합창단 정기연주회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 중극장

2007년 합창음악을 사랑하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부산센텀합창단은 2008년 일본 다카시마 코도이마즈합창단 초청음악회를 비롯해 희망나눔콘서트, 부산합창제, 가을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이강산/하늘나라 동화



안효영 편곡에 의한 세계민요/Po Karekare Ana, Mo Li Hwa, Jambo

강상구/아름다운 추억 등 수곡

· 지휘/이철성 · 반주/박재나

· 특별출연/손한별(대금), Sounding 실내악단, 아미치 세펠레 남성중창단, 센텀 어린이합창단

::관람료 무료

::문의 센텀합창단(010-3136-7798)

### 가야금양상블 '현의 사랑'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 소극장

2006년 부산어머니가야금단으로 출발, 2009년 지금의 가야금양상블 '현의 사랑'으로 단체명을 바꾸고 매년 아름다운 가야금선율을 들려주고 있는 가야금양상블 '현의 사랑'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가야금양상블 '현의 사랑'은 연주경력 5년에서부터 20년에 이르는 열혈 연주자들이 우리 음악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프로그램

줄풍류 '계면도드리 - 양청도드리'

가야금병창 '노들강초록물, 님그린회포, 남도방아타령'

황병기/18현 가야금독주 '달하노피곰'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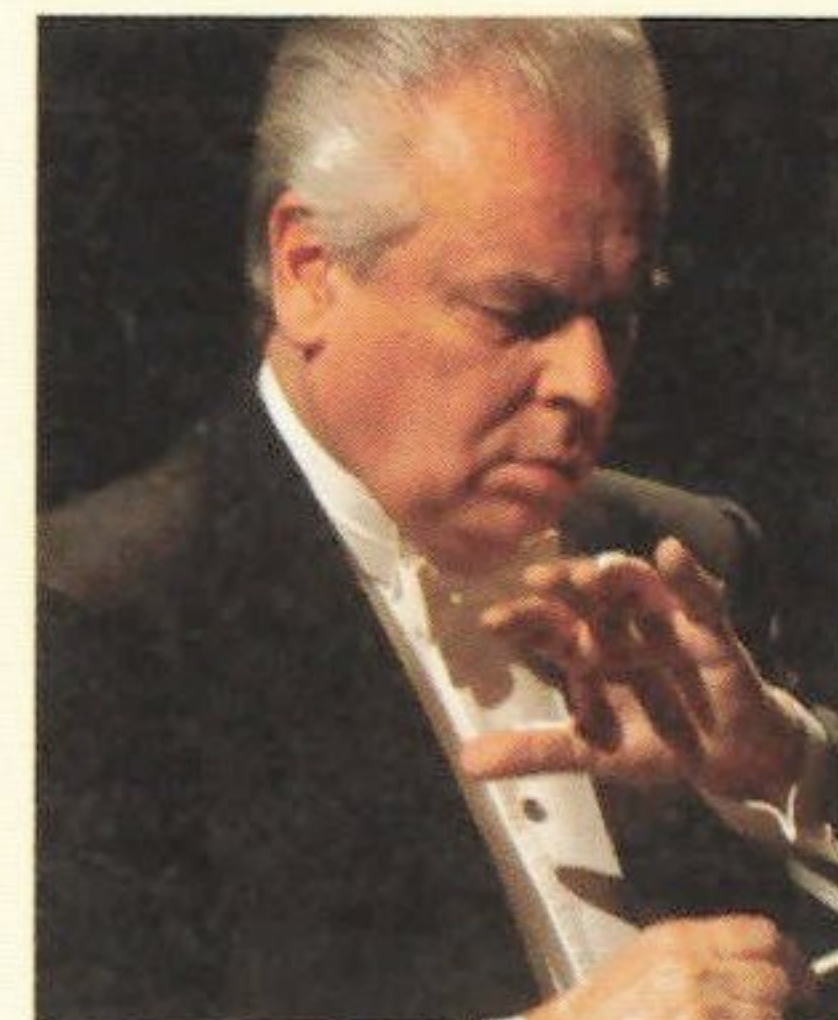
::관람료 초대

::문의 강봉천(010-2241-6110)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공연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세계 5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연주회.



유리 시모노프



요제프 랜드바이

1951년에 창단된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보헤미안 사운드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키릴 콘드라신, 드미트리 키타옌코, 바질리 시나이츠키, 마크 엄러 등 뛰어난 지휘자 및 음악감독들이 거쳐 갔다.

헝가리 전국대회상, 전국 음악기자상, 스위스 티보바르가 국제바이올린콩쿠르 우승, 유럽 최고의 음반사인 독일 'Echo klassick 2005'를 수상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랜드바이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림스키 코르사코프/사드코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차이코프스키/교향곡 6번 '비창' 나단조 작품 74

· 지휘/유리 시모노프 · 협연/요제프 랜드바이

::관람료 VIP 200,000원 · R석150,000원

S석 120,000원 · A석 80,000원

B석 5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지휘자 염진섭 초청 특별연주회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서울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한 염진섭 지휘자의 객원지휘로 마련되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06년 부산시립합창단과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지휘자 염진섭은 국내외에서 활동 경험을 살린 그만의 음악적 해석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한국의 대표 지휘자 중 한사람이다.

::프로그램

로시니/세빌라의 이발사' 서곡





모차르트/미사 브레비스  
라단조(K.65)  
영화음악/You raise me  
up, Nella Fantasia  
아카펠라/뮤지컬 레미제  
라블 중 'I dreamed a  
dream' 등 수곡  
· 객원지휘/염진섭

· 특별출연/백반중 Jazz Quartet(Piano 백반중, Bass  
윤종률, Drum 이상욱, Saxophone 최원식)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작곡모임 향천회**  
**2011 제 23회 정기작곡발표회**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 소극장

1982년 작곡가 정원상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작곡모임 향천회의 정기작곡발표회.  
한국적 음악을 재창조해온 향천회는 이번 무대에서 회  
장 정원상 교수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추억'을  
비롯해 임우상, 박규동, 박지혜, 최석태 등 회원들의 창  
작곡들을 발표한다.

::프로그램

정원상/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추억'

임우상/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기도'

박규동/플루트를 위한 '낙엽'

박지혜/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기억'

최석태/클라리넷 솔로를 위한 'Ein Lied'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의 백승태(010-4154-1403)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풍물예술봉사단 제 1회 발표회**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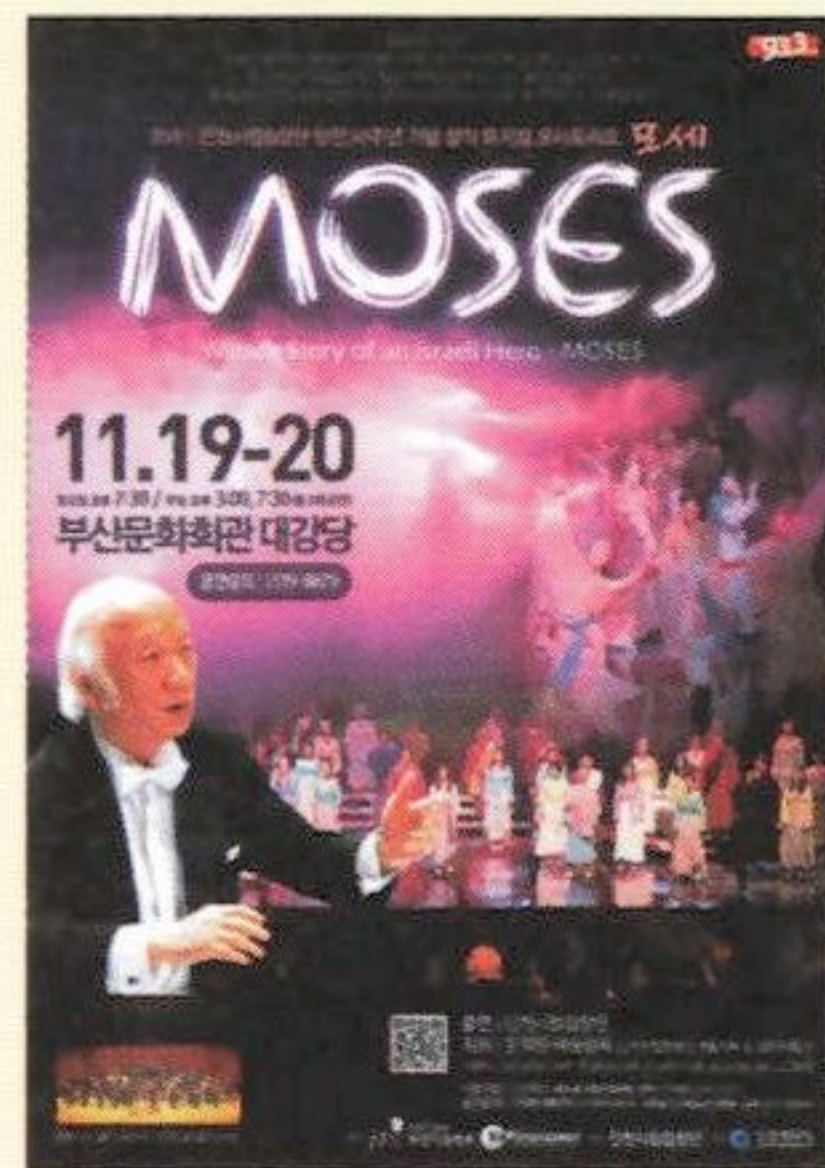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풍물 강습을 수료한 주부들  
로 구성, 사랑나눔을 실천해온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

관 풍물예술봉사단이 삼도설장구, 앉은반사물놀이, 민  
요부르기, 판굿을 선보인다.

::관람료 무료

::문의 조영희(010-2093-0770)

**부산극동방송 초청**  
**2011 인천시립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  
**창작뮤지컬 오라토리오 '모세'**  
11월 19일-20일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후 3:00, 7:30 >>> 대극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석매  
진을 기록한 인천시립합  
창단 창단 30주년 기념공  
연 창작뮤지컬 오라토리오  
'모세' 부산초연공연.  
'뮤지컬 오라토리오'는 합  
창 음악을 중심으로 오라

토리오에 극적인 부분이 첨가되는 음악으로,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인물의 대화와 서사를 드라마틱한 합창으  
로 표현, 합창 음악이 코러스가 아닌 중심 음악으로 자  
리해 극적이고 웅장함을 더해준다.

· 예술감독, 지휘/윤학원 · 연출/이종석

· 연주/모스틀리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관람료 VVIP석 100,000원 · VIP석 70,000원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부산극동방송(1599-8879, 759-6000)

**Happy Music Concert 그 두번째 이야기**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7:00 >>> 중극장

지난해 5인愛 Happy Concert에 이은 두번째 무대로  
약사성악가 한혜자, 바리톤 조현수, 테너 이철성, 테너  
장진규, 테너 허동권, 테너 양승엽이 출연, 오페라 아  
리아, 뮤지컬, 팝송,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  
퍼토리를 들려준다.

· 특별출연/삼손중창단 · 피아노/이승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디아트(070-7532-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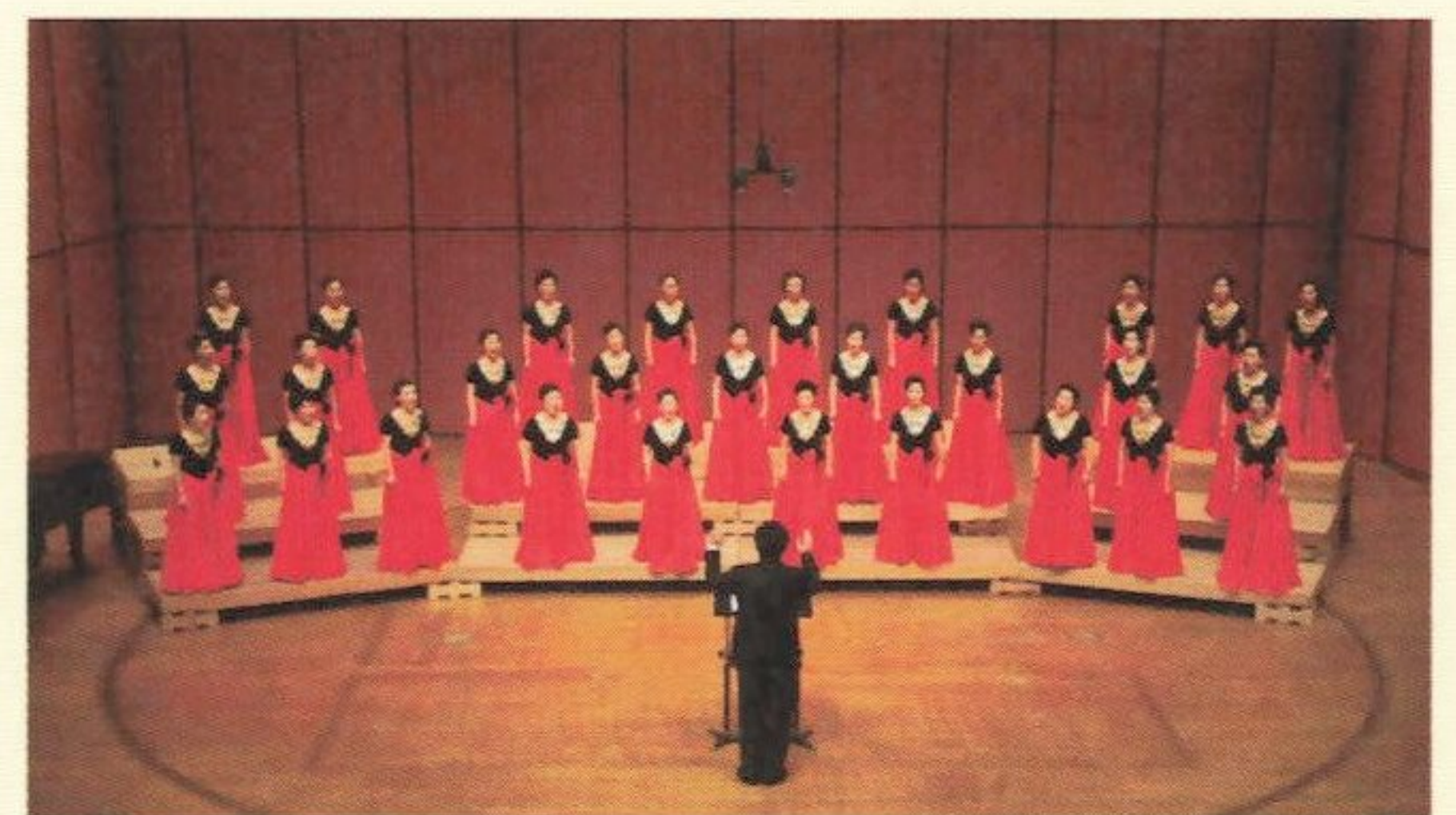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작품발표회**  
11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 중극장

부산대학교 무용학과에 재학중인 무용학도들이 한국무  
용,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무용공연을 관객  
들에게 선보인다.

::관람료 무료

::문의 부산대학교 무용학과(50-1740)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제 15회 정기연주회**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바쁜 일상 중에도 소년원 및 병원 등을 순회하면서 봉  
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은 2009년 부산·후쿠오카 우호 증진을 위해 부산과  
후쿠오카에서 여성합창단 상호 방문공연으로 큰 박수  
를 받았다.

· 지휘/고봉수 · 반주/김신정

· 특별출연/소프라노 신정순, 바이올린 백재진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320-8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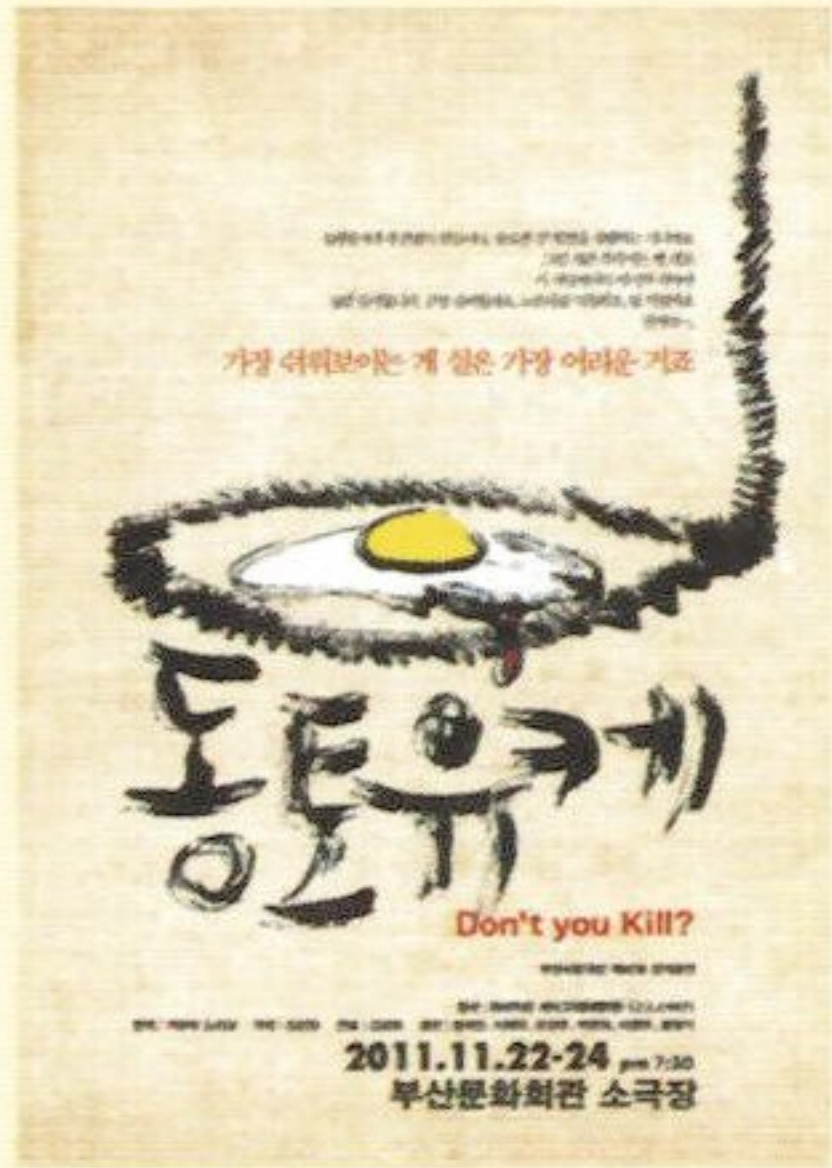
**부산시립극단 제 42회 정기공연**  
**동토유게 Don't you kill?**  
11월 22일-24일 화-목요일 오후 7:30 >>> 소극장

2010년 부산시립극단 '국제교류세미나II-극작 워크  
샵'의 발제자로 참가한 하타자와 세이코가 발표한 화



# Program

##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제작 '동토유케'는 우리에게 생소한 사형집행관이라는 새로운 사형제도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 원작/하타자와 세이고  
'どんとゆけ'  
· 번역/기무라 노리코  
· 연출/김광보

::관람료 균일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607-3151~2)

### 부산시립무용단 제 65회 정기공연 蘇塗 . 소도

11월 24일-25일 목-금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우리 역사 최초의 치외 법권지역인 삼한시대의 '소도(蘇塗)'로 떠나는 부산시립무용단 제 65회 정기공연. '소도'는 여제주(女祭主)로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 '자서여(紫胥餘)'를 중심으로 백제 건국신화의 주인공 '온조'와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 이별을 소도라는 특정 공간과 삼한시대라는 시대적 배경 안에서 재창작했다.

- 안무 및 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대본, 연출/조주현

(캐스팅 24일 자서여-박창희, 온조-최의옥, 계왕-장래훈, 25일 자서여-안주희, 온조-강모세, 계왕-장래훈)

- 특별출연/강성빈(소녀 자서여,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9회 정기연주회 '국악, 자연에서 노닐다'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국악칸타타, 무용음악, 창극, 실내악곡 등 작곡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남원시립국악단 지휘자 김선의 객원지휘로 마련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국악, 자연에서 노닐다'.



객원지휘 김선

남원시립국악단 단원 조재경,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성희, 정선희, 박하혜의 협연으로 북한음악, 성악곡, 창작음악 등 과감하고도 참신한 레퍼토리로 멋과 흥이 넘치는 신명난 무대를 연다.

::프로그램

- 이경섭/관현악 '소리놀이 1+1'(부산초연)
- 김선(편곡)/고음저대 협주곡 '금강선녀'(부산초연)
- 김선(편곡)/고음저대 협주곡 '처녀총각'(부산초연)
- 안태상/관현악 '일출의 바다'(부산초연) 등 수곡
- 객원지휘/김선(남원시립국악단 지휘자)
- 협연/조재경(고음저대), 박성희(소리), 박하혜(거문고), 정선희(소리)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 김해옥 피아노 클래스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 소극장

경성대학교와 동대학원에 재학중인 피아니스트 김해옥의 제자 김미진, 정지영, 이경은, 하도연이 들려주는 솔로 무대.

::프로그램

- 베토벤/소나타 작품 81 제 26번
- 쇼팽/벧노래 작품 60 올림바장조
- 브람스/헨델변주곡 작품 24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의 김해옥(011-859-9822)

### 톤인 프리 윈드오케스트라 제 14회 정기연주회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 관악연주자 60명으로 결성된 톤인 프리 윈드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부산에서 초연되는 클래식 관악곡들, 영화음악,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Mantua-Otto, Scaramouche Suite pour Saxophone et Orchestre, Pusztta 등 수곡
- 협연/남경림(색소폰)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손영진(070-7624-7740, 010-3848-8995)

###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김다솔 피아노 독주회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5:00 >>> 대극장



2011 프랑스 에피날 국제 피아노콩쿠르 1위, 2010 퀴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6위, 2010 유럽 YCA 콩쿠르 우승, 제네바콩쿠르 1위없는 3위, 일본 아시아쇼팽콩쿠르 우승, 일본 나고야 국제음악콩쿠르 우승, 유럽 YCA 콩쿠르 우승 등으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산출신의 피아니스트 김다솔 독주회.

현재 하노버 국립음대를 재학 중인 김다솔은 칼하인츠 케믈링 교수를 사사하고 있으며, 2010년 Artesystem 매니지먼트와 정식 아티스트로 계약을 맺었다.

::프로그램

- 쇼팽/마주르카 작품 59, 발라드 제 4번 작품 52
- 쇼팽/소나타 제 2번 작품 35
- 리스트/소나타 나단조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4회 정기연주회 (2011 부산연주인시리즈 II) '늦가을의 우수와 환희'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2011년 부산연주인시리즈 연주자로 선발된 플루티스트 유주영이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4회 정기연주회.

부산연주인시리즈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 유주영이 협연하는 이베르의 낭만적인 플루트 선율과 러시아 특유의 우수와 열정적인 환희를 담은 차이코프스키 곡으로 저무는 가을의 정취를 더해준다.

**:: 프로그램**

보로딘/ '이그르 공' 중 '폴로베츠 사람들의 춤'  
이베르/ 플루트 협주곡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 4번 바단조 작품 36  
· 지휘/ 리 신차오 · 협연/ 유주영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은행과 함께 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2회 정기연주회  
-말러 서거 100주년-**  
12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말러 서거 100주년을 맞아 고신대학교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충근 지휘, 양경아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교향곡 제 1번 라장조 '거인' 등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 5번 가장조 작품 219  
'터키풍으로'

말러/ 교향곡 제 1번 라장조 '거인' 등

· 지휘/ 오충근(수석지휘자) · 협연/ 양경아(바이올린)  
·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악장 임병원)

**:: 관람료** VIP 30,000원 · R석 20,000원  
A석 10,000원(학생 50% 할인)

**:: 문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

##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5: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낙동민속보존회 공연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5:30



**프로그램**

:: 두들판(출연/김귀수, 최익규, 김정근, 이기범, 최성용, 황영미, 손희자, 구미숙)  
:: 가야금병창 '꽃노래' '내고향의 봄' '신사철가'(출연/김새아)  
:: 화선무(출연/임일숙)  
:: 단가 '사철가'(출연/김소현)  
:: 삼도사물(출연/최익규, 이기범, 김정근, 최성용, 김경규, 손희자, 황영미, 구미숙, 김선자)  
:: 남도민요 '금강산타령' '눈사람' '동살풀이'(출연/김귀수, 한옥자, 김새아)

###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Brass Quintet 연주회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5:30



**프로그램**

:: 홀스트/ 군악대를 위한 모음곡 제 2번 바장조  
:: 필모어/ 사우팅 리차 트롬본

:: 리드/마림바 소협주곡 중 제 3악장  
:: 골트/영화 '영광의 탈출' 주제곡  
:: 호너/영화 '타이타닉' 중 '내 마음은 언제나...'  
:: 조플린/영화 '스팅' 중 '엔터테이너' 등  
· 출연/Trumpet I. 임혜정, Trumpet II. 최수용, Horn. 김대영, Trombone. 이용우, Tuba. 장미진, SetDrum. 김자연

###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5:30

**프로그램**

:: 최석태/ 자갈치의 아침  
:: 최인식/ 백두산  
:: 최석태(편곡)/ You raise me up(곡중 Solo Sop. 최선희, Bar. 최성규)  
:: Nella Fantasia(곡중 Solo Sop. 김나영, Sop. 남순천)  
:: 가을에 듣고 싶은 노래(여성합창)  
-이별,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그대 그리고 내(곡중 Solo Alt. 손미숙)  
:: Echo Sou 'Java Jive' 'Lollipop' 외  
:: 김광석/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등병의 편지  
:: 최석태(편곡)/ 잊혀진 계절  
:: 민요/ 농부가(Solo Sop. 이정란, Ten. 김추리), 뱃노래(Solo Ten. 김진영) 등

· 출연  
김나영, 남순천, 전귀만, 기미현, 이정란, 최난영, 홍승현, 최선희, 김희정, 정재연(이상 소프라노), 손미숙, 박성혜, 김성미, 김미경, 안소영, 신소운, 서미선, 이정윤(이상 앨토), 강종철, 김진영, 박성환, 김추리, 최춘식, 강은태, 이재원(이상 테너), 안재형, 김태우, 최영수, 최기호, 최성규, 장용균, 이현성(이상 베이스)  
· 피아노/ 이승윤, 이경미  
· 지휘/ 박광해(부산시립합창단 트레이너)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부산문화회관(607-6056)



### MUSIC

####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 ▶1일 신문범 타악연주회 Part 3 '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 (사)서울전통타악진흥회 부산지회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문범의

타악연주회.

##### ▶8일 정미숙의 춤 '춤 길 II'

춤패 배김새 예술감독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 이수자로 있는 정미숙의 전통춤.

##### ▶15일 이영신의 가야금 '소리토리 가락타래'

중요무형문화재 제 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소리타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신의 가야금 연주회.

##### ▶22일 이민아의 춤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제 97호 살풀이춤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아의 춤.

##### ▶29일 남선희의 춤

경상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 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 이수자, 푸른버들 예약원 대표로 있는 남선희의 춤.

##### ::프로그램

별감입춤, 입춤, 김수악류 살풀이춤에 장구춤, 태평무, 동래학춤, 진주교방굿거리춤

::관람료 균일 6,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2011 제 11회 대학교향악축제

11월 1일-3일 화-목요일 오후 7:30,

8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지역 7개 대학 오케스트라들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2011 대학교향악축제.

1일 신라대학교, 2일 동의대학교, 3일 고신대학교, 8일 동아대학교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오른다.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2일 길금혜 피아노 독주회

계명대학교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온 피아니스트 길금혜 독주회.

##### ▶9일 제 20회 임병원 바이올린 독주회



올해로 데뷔 25주년을 맞는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의 스무 번째 독주회. 뮤즈앙상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병원은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멜로디

리스트/사랑의 꿈, 헌정, 위로

생상스/죽음의 무도 등

· 피아노/야마카타 아카라

##### ▶16일 벨리씨미 정기연주회 '나의 벗, 나의 사랑'

신라대학교 성악전공 동문들로 결성된 '벨리씨미'의 무대. '벨리씨미'는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멋있는'이라는 뜻을 지녔다.

· 출연/소프라노 이은미, 이윤순, 장은영, 정혜리,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 피아노/임소영

· 특별출연/아르모니아 어린이합창단

##### ▶23일 조혜운 바이올린 독주회

창원시립교향악단, 조이 오브 스트링 수석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 독주회.

##### ▶30일 정준수 첼로 독주회

대구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수석첼리스트로 활동중

인 정준수 첼로 독주회.

#####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엘레지 작품 3, 오리엔탈 댄스 작품 2, 소나타 사단조 작품 19 등

· 피아노/오윤복(울산대학교 교수) · 바이올린/김도경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 아트카페 움

##### ▶3일 재즈피아니스트 황현숙

'낙엽, 사랑 그리고 재즈피아노'



재즈피아니스트 황현숙과 떠나는 늦가을 재즈 여행.

##### ▶10일 밴드 아메리카노의 Unplugged Soul Concert

보컬 변진혁, 기타 이원주로 구성, 팝 소울과 보사노바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언플러그드밴드 아메리카노와 R&B 보컬 김종현이 함께하는 무대.

##### ▶17일 존타 부산 3클럽 자선음악회

세계적인 여성봉사단체인 존타 부산 3클럽이 필리핀 원시 부족인 망얀족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건립을 위해 마련하는 자선음악회.

· 출연/권경미(소프라노), 권태우(색소폰), 이영주(바이올린), 아인오카리나앙상블

##### ▶24일 테너 김현식의 선율에 젖어드는 만추의 저녁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베를린국립음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테너 김현식이 들려주는 가곡의 밤.

::관람료 무료

::문의 아트카페 움(557-3369)

#### Le Piano 창단연주회

11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아대학교 음악대학원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미진, 김민희, 김영숙, 박미숙으로 결성된 'Le Piano' 창단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다장조 K.545  
로시니/약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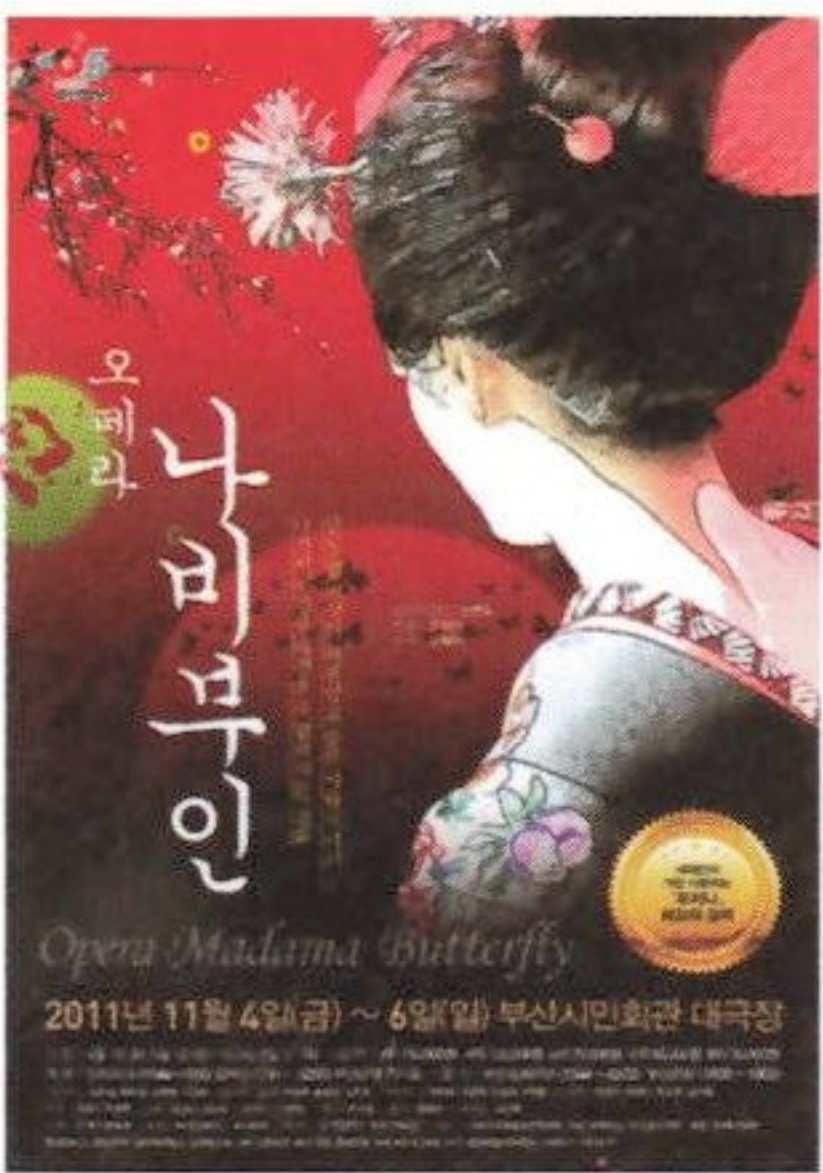
· 찬조출연/배미경, 강다인(소프라노), 홍성률(드럼)

**::관람료** 초대

**::문의** Le Piano(010-4571-8488,  
010-9339-2790)

**부산오페라단 오페라 '나비부인'**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6일 일요일 오후 5:00 >>> **시민회관 대극장**



일본 나가사키항을 배경으로, 해군장교와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의 아름답고 슬픈 사랑이야기를 그린 푸치니의 걸작 오페라 '나비부인'.

- 예술총감독/전연숙
- 연출/유희문
- 지휘/김봉미

· 출연/김유섬, 허미경, 서경숙, 김현애(나비부인), 김경, 이승묵, 김지호, 송승민(핑크톤), 구제범, 박대용, 김상호, 강경원(샤프레스), 전연숙, 한현미, 박소연, 김수현(스즈끼) 외

- 특별출연/도영복
- 연주/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 합창/부산YMCA오페라합창단

**::관람료** VIP석 150,000원 · R석 100,000원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B석 30,000원

**::문의** 부산오페라단(1544-4372)

**제 16회 시조창무극-이현정 정가 무대  
시조로 뽑어내는 한국인의 멋 '풍류'**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한얼정악연구소가 마련하는 시조창무극 16번째 무대.  
한얼정악연구소 단원으로 있는 이현정의 정가공연 '천



상의 소리 정가'와 시조창  
무극 '시조로 뽑어내는 한  
국인의 멋 풍류'를 선보인  
다.

- 예술감독/김정원
- 연출/정인경
- 특별출연/김정원 춤소리  
예술단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정인경(010-3870-8597)

**제 25회 부산오르가노 정기연주회**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 **시민회관 소극장**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르가니스트들로 구성된 부산오르가노의 25번째 정기연주회.

- 연주/이정은, 이혜영, 이미영, 손경순, 정미경, 김미나, 변주은, 장현정, 윤호정

**::관람료** 초대

**::문의** 윤호정(010-9334-1847)

**금정문화회관 명품기획공연 실내악 시리즈 4  
KCO String Quartet & The Piano  
Player**

11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최상의 호흡과 앙상블, 폭넓은 레퍼토리로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KCO 스트링 과



임재홍 김현지 윤진원 정재운

르벳과 서울대학교와 미국 피바디음대, 오리건대학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미현이 함께하는 무대.

- 연주/임재홍, 김현지(바이올린), 윤진원(비올라), 정재운(첼로)
- 협연/김미현(피아노)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2)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5일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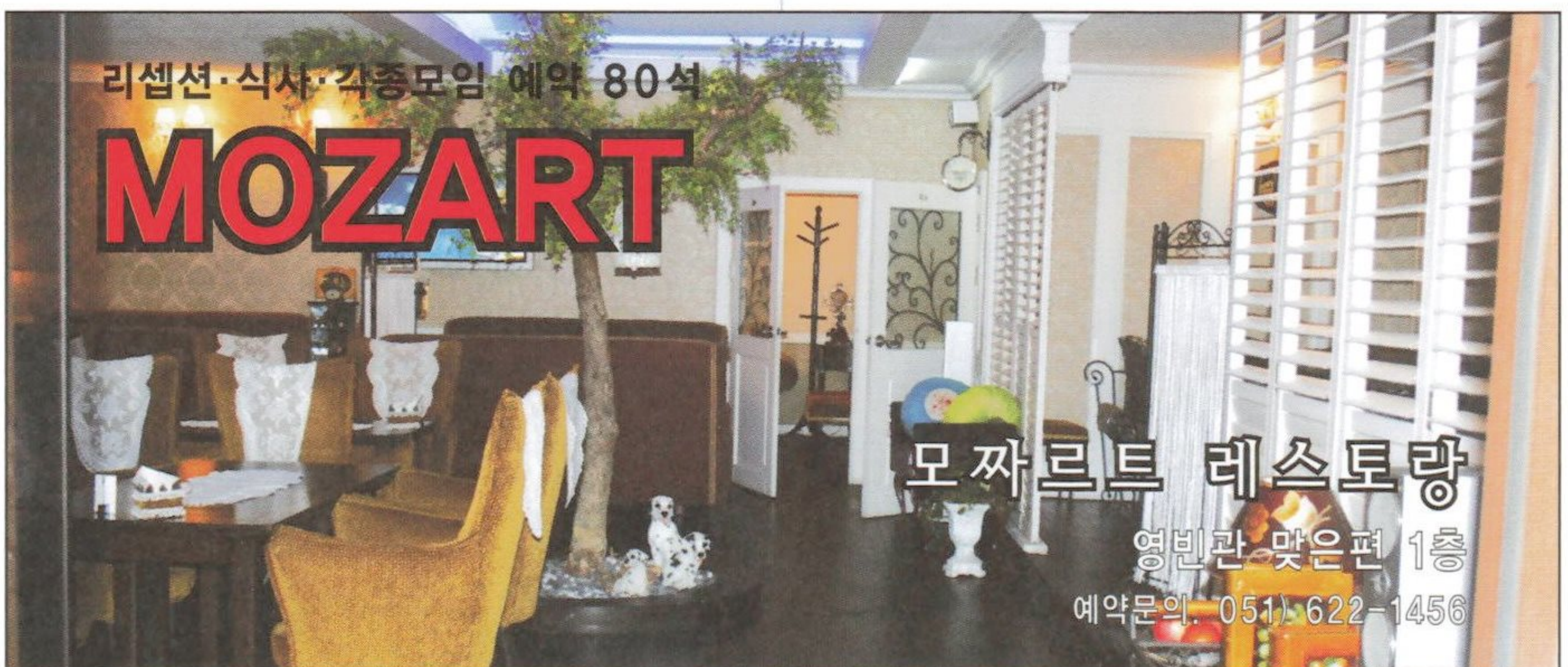
가인전목단, 산조, 가곡, 승전무 중 '칼춤', 가야금병창, 태평무, 동부민요, 설장구가락

**▶12일 프로그램**

삼고무, 판소리 입제창 '사랑가', 통영교방진춤, 부채춤, 국악관현악 '프런티어', 국악관현악 '판굿과 관현악' 등

**▶19일 프로그램**

천년만세, 남도잡가 아카펠라 '새타령', 동래학춤, 대금독주 '상령산', 강강술래, 영남들노래, 밀양백중놀이,



리셉션·식사·각종모임 예약 80석  
**MOZART**

**모짜르트 레스토랑**

영빈관 맞은편 1층

예약문의: 051-622-1456



# Program

##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사물놀이

▶26일 프로그램

창작모듬북 '난타', 창작무용 '부(釜)의 신명', 창작 '부산아라' 중 '홍련의 노래+사랑의 춤', 창작 국악관현악 '신모듬' (박범훈 곡), 창작무용 '풍장놀이'

관람료 균일 8,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도리안 렐작 초청 피아노 독주회

11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세르비아 노비사드(Novi Sad) 음악아카데미와 미국 예일대 석,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노비사드 음악아카데미, 벨그라드 음악아카데미, 런던왕립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도리안 렐작 초청연주회.

프로그램

쇼팽/프렐류드 올림다단조 작품 45

슈만/피아노소나타 제 2번 내림나단조 작품 36 등

관람료 일반 3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김예지 피아노 독주회

11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미래의 피아노 비르투오조를 꿈꾸는 예원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김예지의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12개 변주곡, 소나타 제 13번

라벨/소나티네 등

관람료 초대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테마가 있는 브런치 콘서트 벨칸토 빌뉴스 합창단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1:0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2009년 창설된 리투아니아 Vilnius Teachers' House의 혼성합창단으로, 다양한 음악스타일을 추구해온 벨칸토 빌뉴스 합창단 초청무대.

지휘/Artūras Dambrauskas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숙명여자대학교 오케스트라 부산연주회

11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 시민회관 대극장



숙명여자대학교 관현악과 재학생 90여명으로 구성된 숙명여자대학교 오케스트라는 매년 2차례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지역순회연주회를 통해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휘/김경희

협연/한상은(바이올린, 숙명여자대학교 4년)

관람료 무료

문의 숙명여자대학교 관현악과(02-710-9559)

### 2011 Feel(必)yo! 공감-화요일예술무대

11월 8일(화), 15일(화), 22일(화) 오후 7:30

>>>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8일 박은아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영국왕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플루티스트 박은아가 진행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15일 김희정 바이올린 독주회 '판타지아'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한 고난이도의 테크닉을 선보여온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독주회.

늦가을 서정에 어울리는 로맨틱한 곡들을 들려준다.

▶22일 여여무(如如舞) '전통춤의 향기'

제 26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금상, 2010 전국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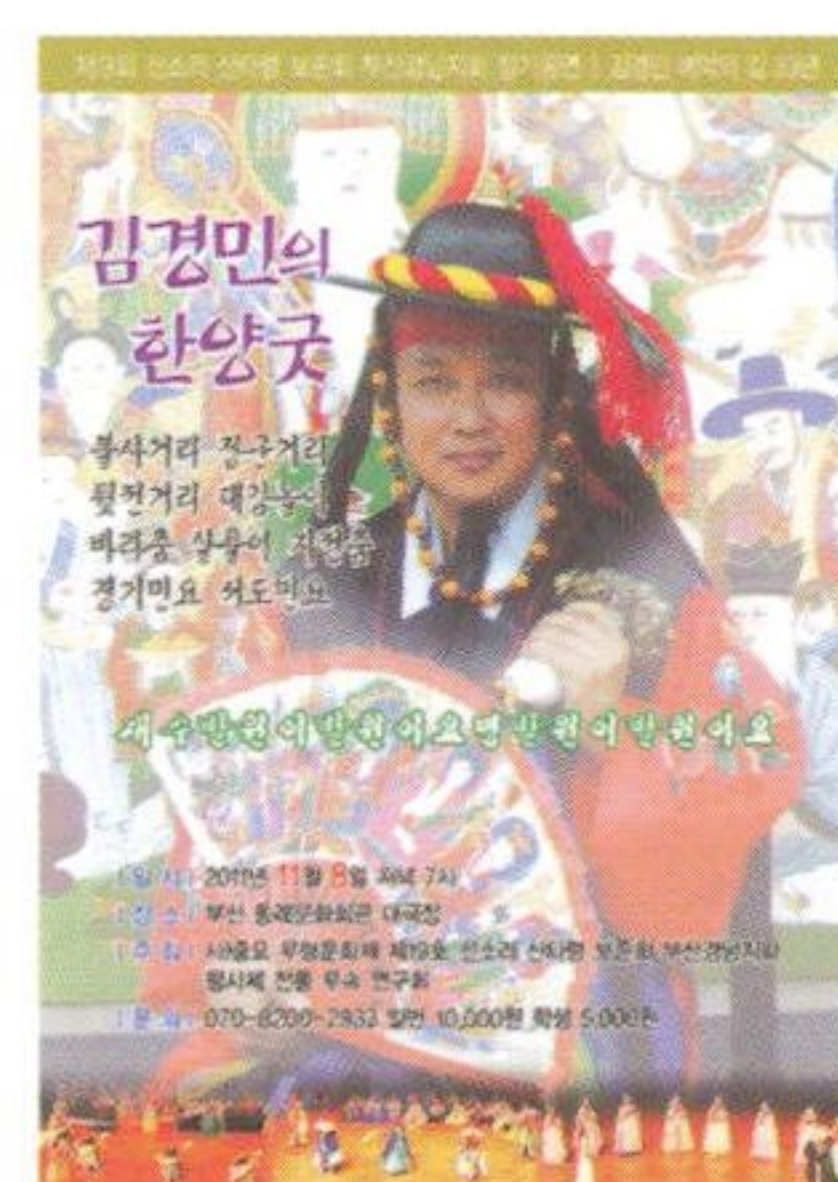
경연대회 최우수 안무지도자상을 수상한 김선영을 대표로,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여여무'의 무대.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예술회관(631-1377)

### 제 9회 선소리 산타령 보존회 부산경남지회 정기공연 김경민의 한양굿

11월 8일 화요일 오후 7:0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부산, 경남지역의 전통굿 발굴과 전승, 보존을 위해 설립된 평사제 전통무속 굿놀이 연구회 창립을 기념해 마련하는 (사)선소리 산타령 보존회 부산경남지회 김경민 지회장의 한양굿.

특별출연/김정애(국악협회 부산지회 지회장)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경민(070-8200-2933)

### 을숙도 명품콘서트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8: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음악사에 빛나는 명협주곡과 함께하는 무대로,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럼펫수석인 드미트리 로카렌코프가 하이든의 '트럼펫협주곡 내림나장조'를 들려준다.

연주/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 동래문화회관 목요일국악콘서트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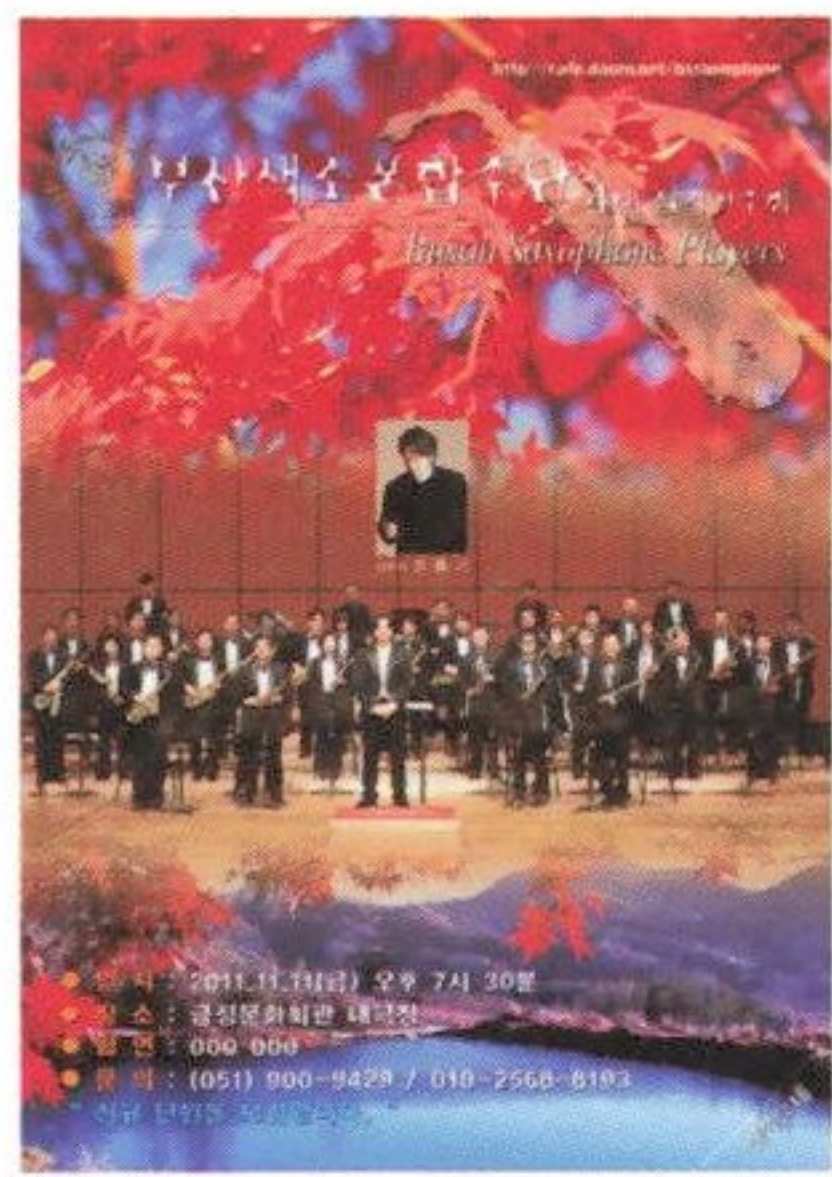
우리가락으로 대표되는 구음의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는 목요국악콘서트 11월 무대.

춘향가 중 '사랑가'를 시작으로 가야금병창, 가곡 '이수대엽, 편수대엽', 국악가요, 국악으로 듣는 트로트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부산색소폰합주단 제 4회 정기연주회**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프로와 아마추어 연주자 40여명으로 구성된 부산색소폰합주단은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팝, 라틴, 대중가요 등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 지휘/정홍기

관람료 초대

문의 박재열(010-2568-8193)

**제 7회 해운대소리합창단 정기연주회**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997년 4월 창단된 후 6차례 정기연주회와 부산국제합창제, 부산합창제, 부산보훈병원 환우 위문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운 해운대소리합창단 정기연주회.

· 지휘/김진영

관람료 무료

문의 해운대소리합창단(010-9677-4541)

**동래문화회관 토요일콘서트**

11월 12일(토), 26일(토) 오전 11:00

>>>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12일 스트로크 타악기앙상블

역동적이고 리드미컬한 타악앙상블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무대.

▶26일 벨라보체 중창단

다양한 퍼포먼스와 재미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혼성합창단 '벨라보체 중창단'의 무대.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Piano Spatial 'Les Frères'**

11월 13일 일요일 오후 5:00

>>>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섬세하면서도 다채로운 연주를 펼치는 형 사이트 모리야와 대담하면서도 즉흥 플레이가 장점인 동생 사이트 게이토로 구성된 '레 프레르(Les Frères)' 내한공연.

한 대의 피아노를 둘이서 자유자재로 다이내믹하게 연주하는 독자적인 '캐틀맨 스타일'을 구사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울속도문화회관(220-5812~3)

**우리가락 다스름 국악원 제 17회 정기연주회**

11월 13일 일요일 오후 5:3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1992년 금정청소년회관이 운영한 단소, 대금강좌 수료생들로 구성된 우리가락 다스름의 창단 20주년 기념 무대.

다스름국악원은 그동안 함께 연주하는 즐거움을 통해 한결같이 우리소리를 지켜오고 있다.

관람료 무료

문의 김성주(010-2599-0625)

**남산놀이마당 타악 퍼포먼스 'Topper' 2011 솟대날다**

11월 14일-17일 월-목요일 오후 7:30

>>> **시민회관 소극장**



우리 국악의 기본장단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화와 실험을 통해 새로운 변신을 꾀해온 남산놀이마당 기획공연. 대북에서부터 서양의 다양한 퍼커션 악기들로 구성된

**국내 최고 전문 녹음홀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글로벌아트홀**

<b>CD 녹음 / DVD 녹화</b>	<b>연주회 / 클래스발표회 / 행사</b>
<b>유학오디션용 / 국제콩쿨용</b>	<b>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국악연주회</b>
<b>현재 미국 명문음대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음 (CD 및 DVD 오디션에서 합격사례)</b> 피아노 : 송정민(이스트만음대 전액장학생), 엄유정(텍사스 어스틴음대) 첼로 : 김미나(줄리어드 합격 및 론지 장학생)/바이올린 : 이슬기(피바디음대) 성악 : 김지현 김혜원(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합격) 외 다수	<b>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클래식기타 작곡 가야금 독주 및 합주 연주회 실황 녹음 녹화 가능</b>
<b>개인 음반 / 합창단 합주단 기념음반 / 교회찬양대 기념음반 녹음 및 녹화는 예약하셔야 합니다</b>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전화 051-505-5995 팩스 051-505-5935 www.glovil.org / glovil@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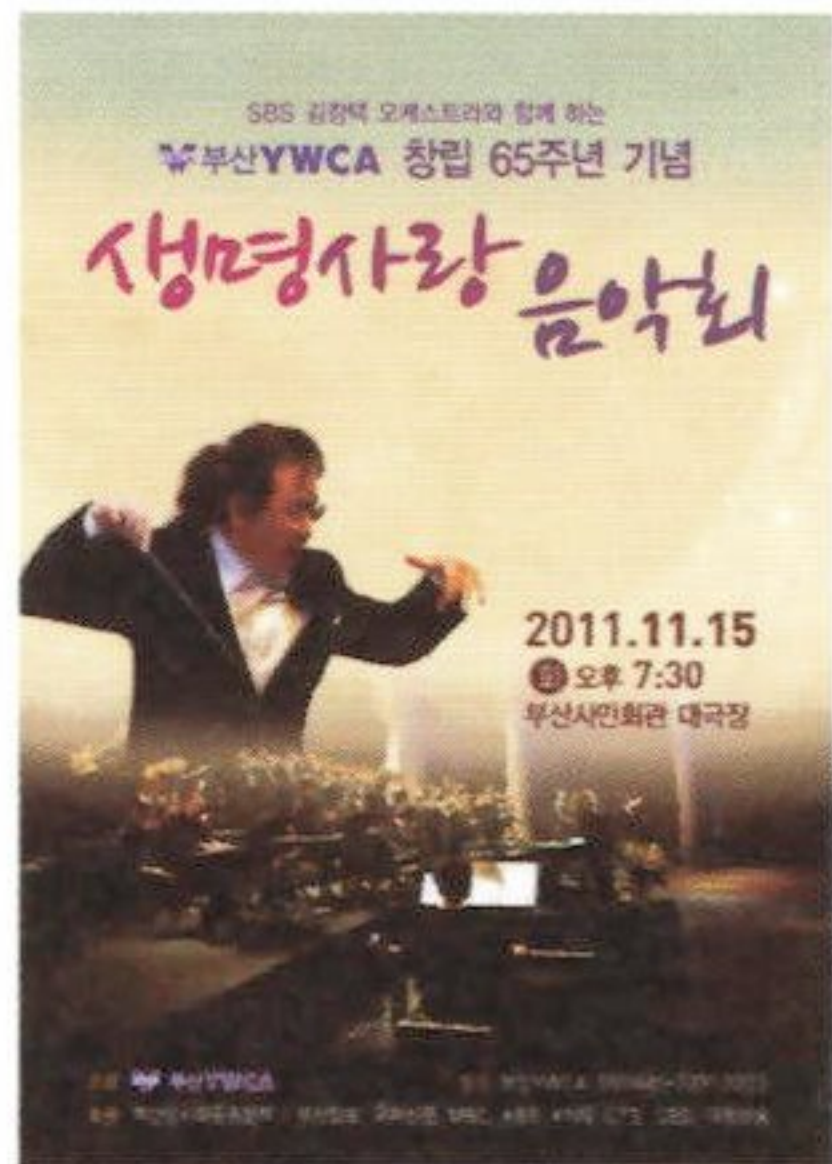
탁악 퍼포먼스로, 연주자와 관객이 어우러져 신명나는 무대를 펼친다.

::관람료 일반 30,000원 · 청소년 20,000원  
(수험표 지참시 50% 할인)

::문의 무대공감(623-0678)

### SBS 김정택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부산YWCA 창립 65주년 기념 생명사랑 음악회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 시민회관 대극장



1946년 7월 지역의 첫 여성단체로 그동안 여성운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부산YWCA가 창립 65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생명사랑 음악회. 김정택 단장이 지휘하는 SBS 크로스오버 오케스트라가 출연, 귀에 익은 클래식 명곡과 영화주제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무료

::문의 부산YWCA(441-2221, 2223)

###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제 7회 정기연주회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리더인 클라리네티스트 원준연과 플루티스트 최낙주, 오보이스트 박지연, 호른주자 이민정, 바순주자 장보영으로 구성된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경성대학교와 독일 도르트문트국립음대, 드레스덴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김성희가 협연한다.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원준연(010-5660-3919)

### 제 62회 한낮의 유U; 콘서트 늦가을, 별과 로망스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1:00 >>>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별'을 주제로 빚어내는 아름다운 앙상블 제 62회 한낮의 유U; 콘서트.

· 연주/바다오케스트라(지휘/박성완)

· 협연/테너 김도형, 소프라노 강민성, 피아니스트 김정권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국제신문사(500-5222)

### 국립국악원 정가극 기획공연 영원한 사랑-이생규장전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 두 남녀의 이승과 저승을 초월하는 사랑을 정가극형식으로 구성한 국립국악원 기획공연 '영원한 사랑-이생규장전'.

::관람료 균일 8,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제 5회 오페스앙상블 정기연주회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2007년 실내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창단한 오페스앙상블은 찾아가는 음악회, 함께하는 음악회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왔다.

· 연주/최은주, 김은희(피아노), 박경희, 김준영(바이올린), 전명희, 정준수

(첼로), 김선영, 이화영(플루트), 김은진(비올라)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오페스앙상블(010-9269-5567)

### 부산시민을 위한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KEPCO 창립 50주년 기념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 시민회관 대극장

한국전력공사 창립 50주년을 기념, 부산시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60인조 오케스트라가 빚어내는 웅장한 클래식 선율과 함께 부산 출신의 인기가수 현철의 무대가 마련된다.

· 지휘, 사회/주익성 · 소프라노/윤지영

· 피아노/소냐 박 · 초대가수/현철

::관람료 초대

::문의 한국전력 부산본부(801-3551)

### 동래문화회관 재즈 페스티벌

11월 17일-18일 목-금요일 오후 7:30, 20일 토요일

오후 5:0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17일 트로트보다 쉬운 재즈

영화나 드라마, CF에 등장하는 주옥같은 재즈의 명곡들을 방송인 오영실의 친절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

· 진행/오영실(방송인)





· 연주/크리스 바가(음악감독, 드럼), 이지영(피아노), 이순용(베이스기타), 하젤(보컬), 한운기(기타) 등  
· 특별출연/이정식(색소폰)

▶18일 재즈로 듣는 트로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탱고와 크로스노트의 재즈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무대.

크로스노트는 화려한 정통재즈는 물론 팝과 대중가요를 재즈로 편곡한 친근한 사운드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19일 재즈를 입은 클래식

브람스 '헝가리안 댄스'를 비롯해 미국의 대표적인 재즈 작곡가 거쉬윈의 '랩소디 인 블루', 쇼스타코비치 '왈츠' 등 재즈를 대표하는 클래식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10,000원(3일 관람권 20,000원)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

부산리코더앙상블 제 4회 정기연주회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7:0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리코더의 예술적 가치와 교육적 역량을 끊임없이 탐색해오고 있는 부산리코더앙상블의 4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의 작곡가 조익래의 창작 리코더 앙상블곡 'Arary'가 초연된다.

· 찬조출연/이윤희(첼발로),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관람료 초대

::문의 강희숙(016-562-6561)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토요뮤직점프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11: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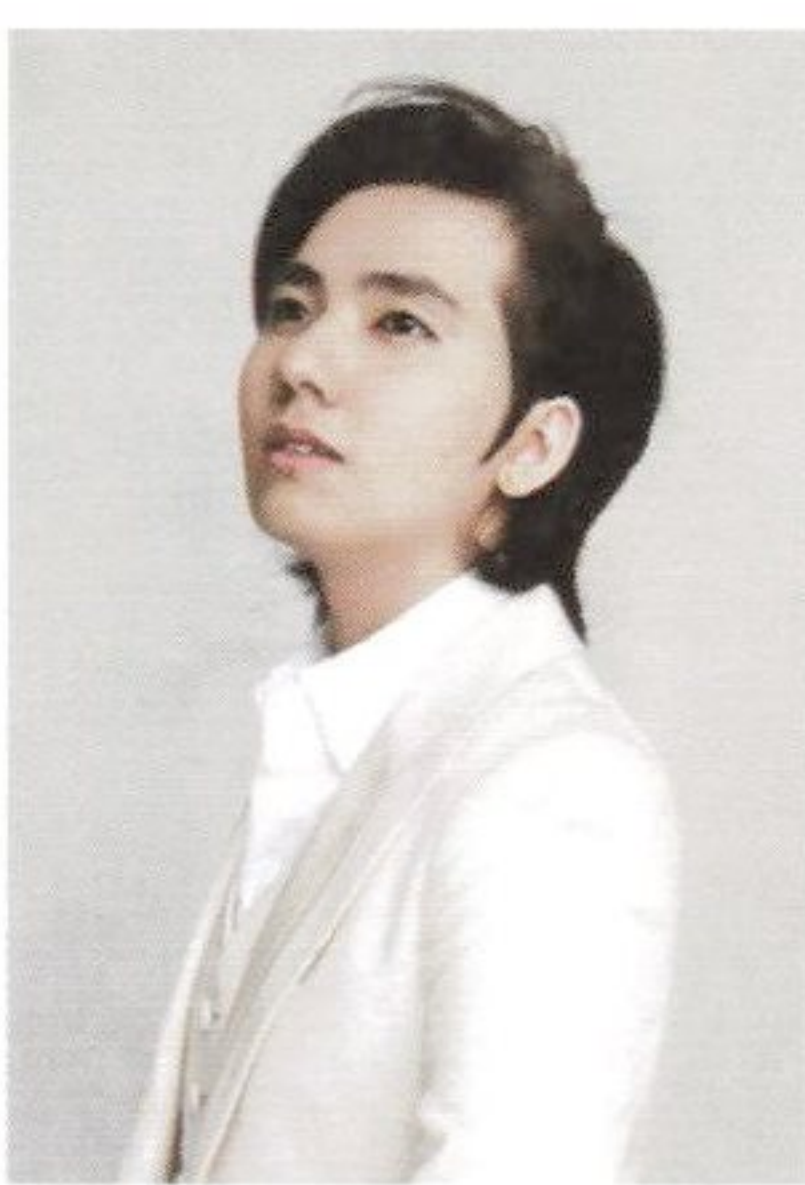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인 뉴프라이미 오케스트라 연주  
로 마련되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임형주 2011 전국투어콘서트  
오리엔탈 러브(Oriental Love)

11월 20일 일요일 오후 7:00 >>> 시민회관 대극장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첫 번째 아시아 통합앨범 'Oriental Love-Asian Hits Collection' 발매를 앞두고 마련한 전국 투어콘서트 부산무대.

'환상적인 동양의 밤' 이라

는 부제가 달린 이번 무대에서는 코리안 내셔널 필하모닉 앙상블과 무용단, 합창단과 3D기법의 무대연출, 화려한 무대의상으로 신비스러우면서도 웅장한 '오리엔탈 팝페라' 무대를 선보인다.

::관람료 VIP 110,000원 · R석 99,000원

S석 88,000원 · A석 77,000원

B석 55,000원 · C석 44,000원

::문의 (주)cjm엔터테인먼트(1599-3411)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클래식 재즈를 품다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7:00 >>> 시민회관 대극장



부산, 경남지역 오케스트라로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가 부산에서 활동중인 재즈밴드 'Page One'과 함께하는 합동무대.

· 해설/도병찬

::문의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070-7727-0188)

부산시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제 46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3:00 >>> 글로벌아트홀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The early years



# Program

##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제 19회 부산여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음악회'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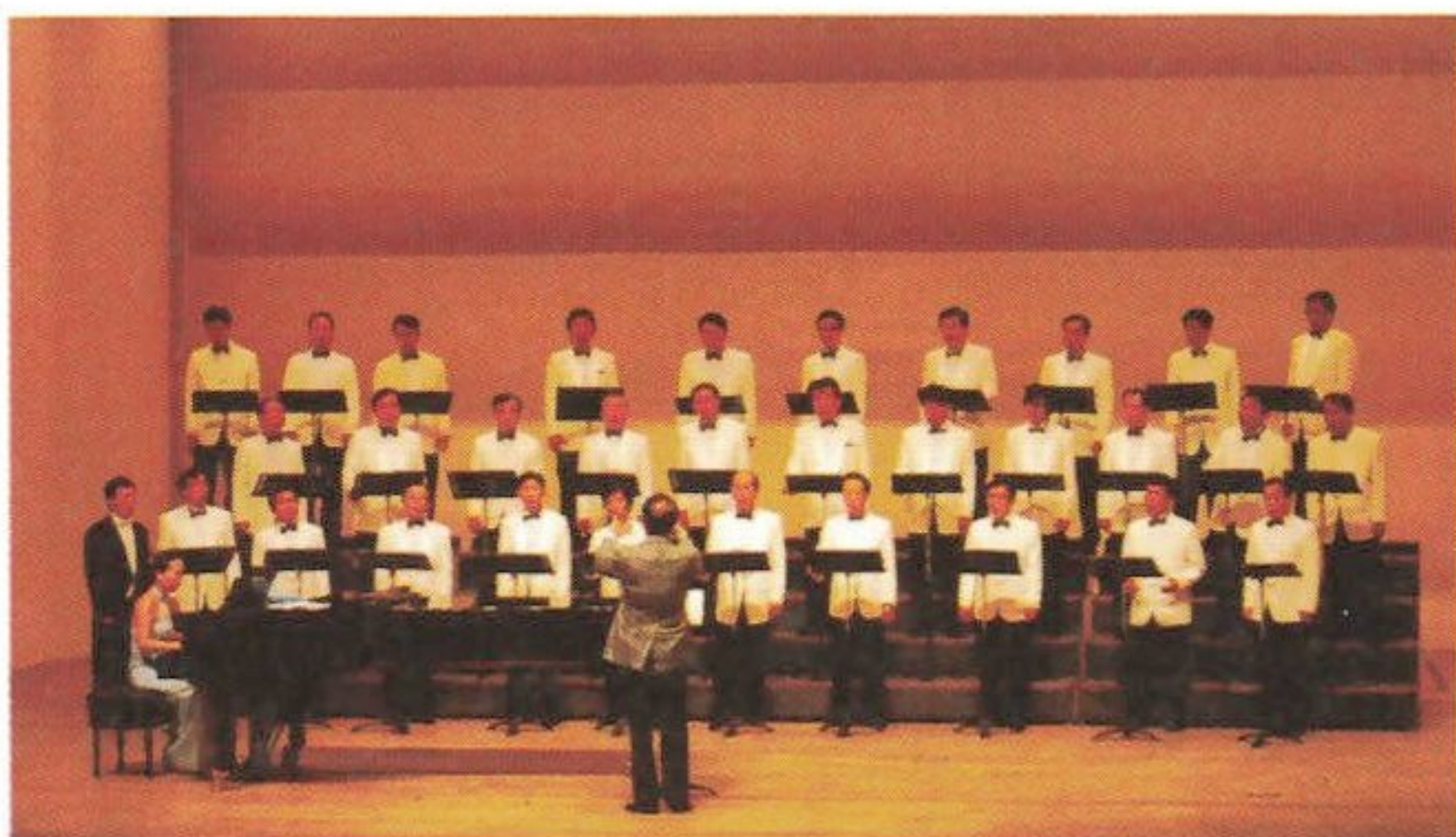


1990년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부산합창제, 국제합창제, 청소년예술제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여교사합창단이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2011년 정기무대.

· 지휘/배승택 · 반주/최지선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배경희(010-2477-8333)

### 부산남성합창단 제 18회 정기연주회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7: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88년 창단된 후 남성 특유의 깊고 중후한 앙상블을 들려주고 있는 부산남성합창단의 18번째 정기연주회. 우리 귀에 익숙한 국내외 가곡과 세계민요, 가요 등을 들려준다.

· 지휘/강영원 · 반주/김선희

· 찬조출연/테너 최승원, 소프라노 박현정

::관람료 초대  
::문의 조순석(011-562-8285)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순회연주회 가을에 만나는 합창의 명곡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지 못하는 부산시민들을 위해 부산시립합창단이 마련하는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 늦가을의 서정과 어울리는 합창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혼성합창/고향 그리워, 옥잠화, 우리의 작은 섬  
남성합창/사냥꾼의 합창, 자 나를 보게, 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연합합창/새야 새야 파랑새야, 강강수월래, 신고산타령, 추천가 등 수곡  
· 지휘/전상철(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 특별출연/플루티스트 오영인, 클라리네티스트 홍병희,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관람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3)

### 해외관광객공연 III '자갈치 아리랑'

11월 30일-12월 1일 수-목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 자갈치를 배경으로, 주색잡기에 능한 박한량과 화사하고 고고한 동백꽃을 닮은 부인과의 사랑, 결혼 등 삶의 이야기가 동, 서양의 결혼풍습 등 다양한 볼거리 속에 영남춤의 숨겨진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 작/서연호 · 연출/조수동

::관람료 균일 8,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PLAY

### 2011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8월 19일(금)-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AN아트홀 서면

자선소를 준비하는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관람료 R석 45,000원 · S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 연극 '웨딩드레스'

10월 7일(금)-11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수요일 공연없음) >>> 미리내소극장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사는 엄마와 나이 마흔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딸의 이야기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과 안쓰러움을 따뜻하게 그려낸 연극 '웨딩드레스'.

· 작/유진월 ·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옥순주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 연극 '그남자 그여자'

10월 13일(목)-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화요일 공연없음) >>> 초콜릿 팩토리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남녀의 만남에서  
부터 사랑, 이별, 재회를 그린 감성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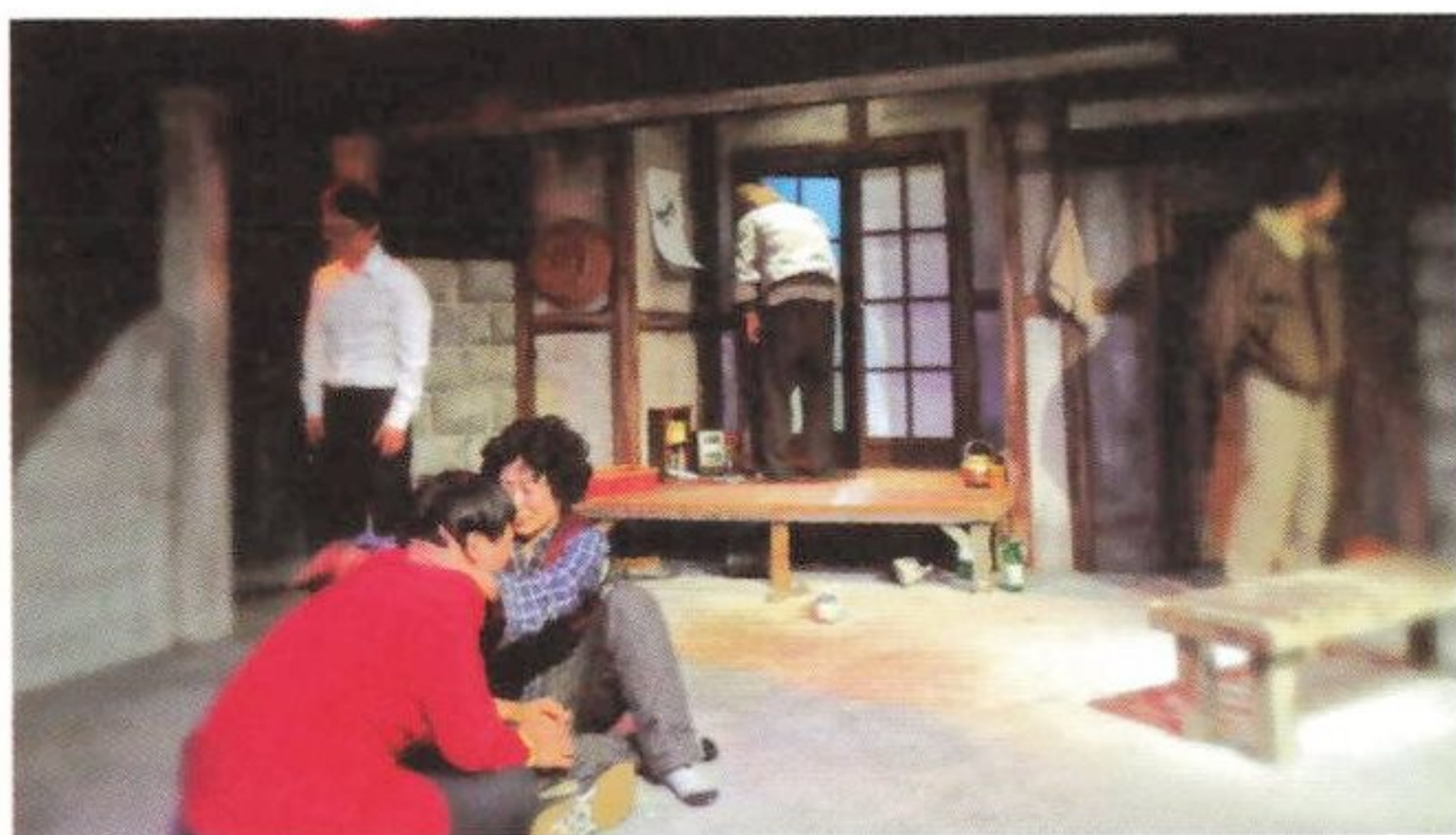
::관람료 균일 25,000원

::문 의 초콜릿팩토리(621-4005)

### 젊은공연예술축제 2011

10월 14일(금)-11월 2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 >>> 공간소극장

▶11/4일(금)-6일(일) 극단 한울림 '호야 내새끼'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순수 청년 호야와 그의 부  
모, 주변 사람들이 펼치는 따뜻한 감동이 있는 창작극.

·작/김하나 ·연출/정철원

·출연/석현오, 최우정, 김지영, 임홍조, 이원희, 김지수

▶11/8일(화)-16일(수) 평일 오후 8:00, 금-일요일 오후  
3:00, 8:00 극단 시나위 '휘투타'

화랑도의 근원을 소재로, 우리나라 전통무예인 '금강  
승 불무도'에 전통 타악기와 樂을 접목시킨 년버벌 퍼  
포먼스극.

·작/극단 시나위 공동창작 ·연출/박상규

▶11/19일(토)-27일(일) 극단 시나위 'Love'

촉망받는 일본의 젊은 연출가 타다 준노스케와 한국  
배우들이 함께하는 무언극.

·작, 연출/타다 준노스케

·출연/백길성, 이정비, 이재우, 박재현, 김미승 외

::관람료 균일 20,000원('Love'는 균일 30,000원,  
예약시 30% 할인)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10월 21일(금)-11월 1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  
(월요일 공연없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전혀 어울리지 않는 6명의 남녀가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과 행복을 찾는다라는 내용의 창작뮤지컬.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극단 일터 제 18회 정기공연 '국수집 남자 밥집 여자'

10월 21일(금)-11월 5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 일터소극장

조선소가 있는 산복도로 국수집을 배경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적 삶의 실천이라는 명제를 밝고 따뜻하게  
그려낸 연극 '국수집 남자 밥집 여자'.

::관람료 일반 20,000원 · 초중고생 15,000원  
(예매시 5,000원 할인)

::문 의 일터소극장(635-5370)

### 년버벌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10월 28일(금)-11월 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5:0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인공들의 탄생에서부터 성장기 에피소드를 힙합과  
재즈, 현대무용, 브레이크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춤으로

표현한 화제의 년버벌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관람료 1층 40,000원 · 2층 25,000원

(학생 30%, 20명 이상 단체 40% 할인)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연극 '훈남들의 수다'

10월 28일(금)-11월 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축구게임 동호회에서 만  
나 친분을 쌓아오던 네 남  
자가 펼치는 사랑과 성  
(性), 연애, 결혼에 관한  
솔직한 수다 연극 '훈남들  
의 수다'.

·작/엄정은  
·연출/홍주영

·출연/윤일식, 이재현, 김도형, 김영학, 이기욱, 안병  
찬, 장진, 전혜진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11월 1일(화)-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SM아트홀 2관



부산악기시 www.piano123.co.kr

대표 강 규 찬 (조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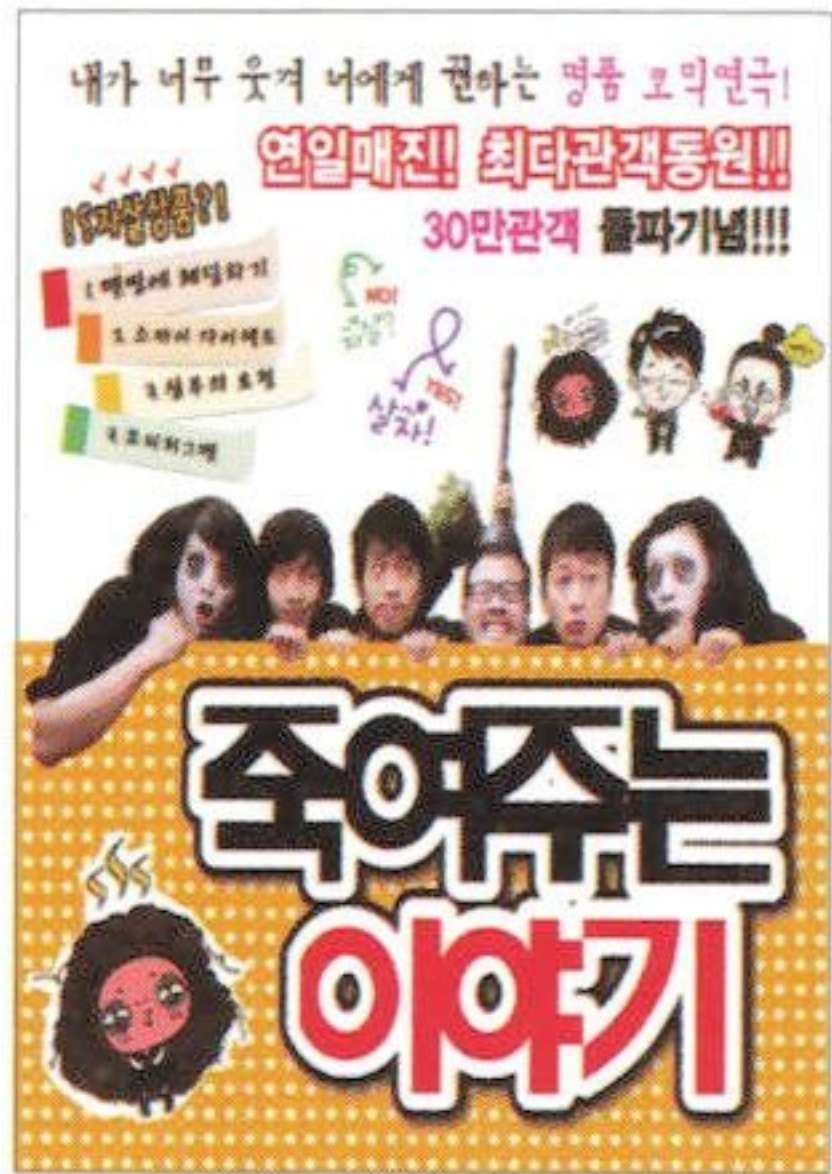
H.P. 017. 556. 9410

051)758-5450, 5445

■그랜드피아노(전공자용, 연주용) 조율, 수리, 대여, 리빌더 전문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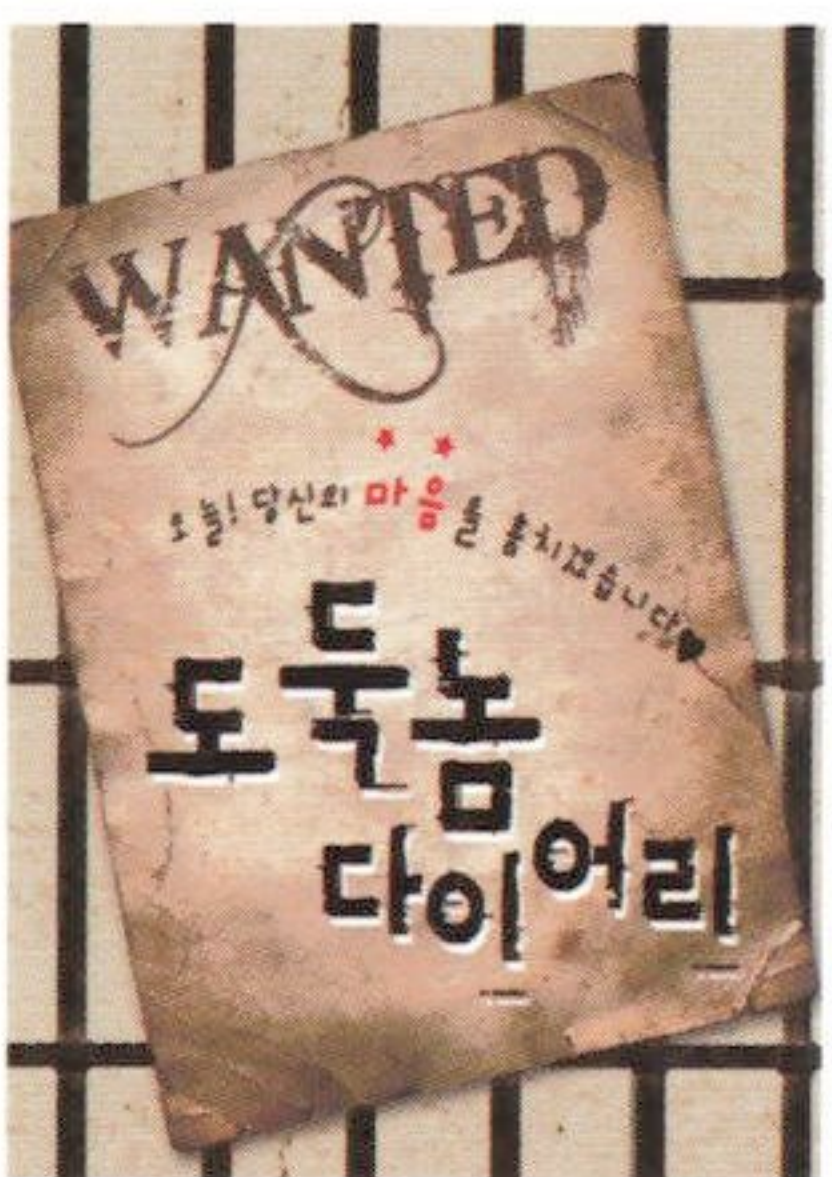


'자살'을 소재로, 죽음을 상품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죽음을 마저도 눈감아버리는 현실을 풍자하면서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하다는 교훈을 던지는 폭소 블랙 코미디극.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 연극 '도둑놈 다이어리'

11월 1일(화)~30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SM아트홀 1관



고위관직자를 대상으로 도둑질을 하는 의좋은 형제가 사랑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벌어지는 헤프닝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좌충우돌 러브 버라이어티 '도둑놈 다이어리'.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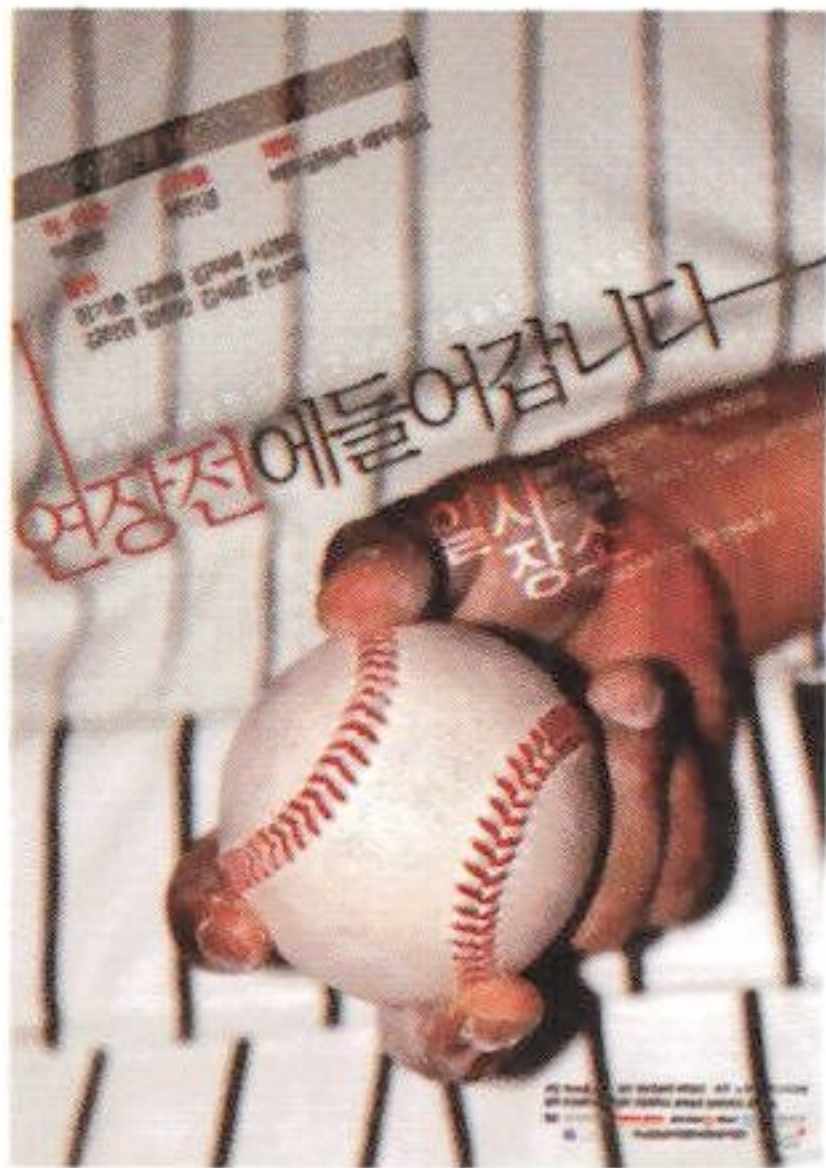
11월 2일(수)~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SM아트홀 3관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 배우공동체 배우창고 8번째 공연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11월 3일(목)~1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7:00(월요일 공연없음) >>> 가마골소극장



2007년 철거위기에 놓인 동대문야구장을 배경으로, 그 속에서 꿈을 먹고 살아가는 한씨 가족의 고군분투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지는 창작극.

·작, 연출/박훈영  
·출연/장기훈, 김병철,

김지혜, 서경화, 김하영, 김세준, 엄창완, 은상욱  
**관람료** 일반 25,000원 · 대학생 20,000원  
청소년 15,000원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 뮤지컬 '셜록 홈즈'

11월 4일 금요일 오후 8:00, 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6일 일요일 오후 2:00, 6:00 >>> MBC롯데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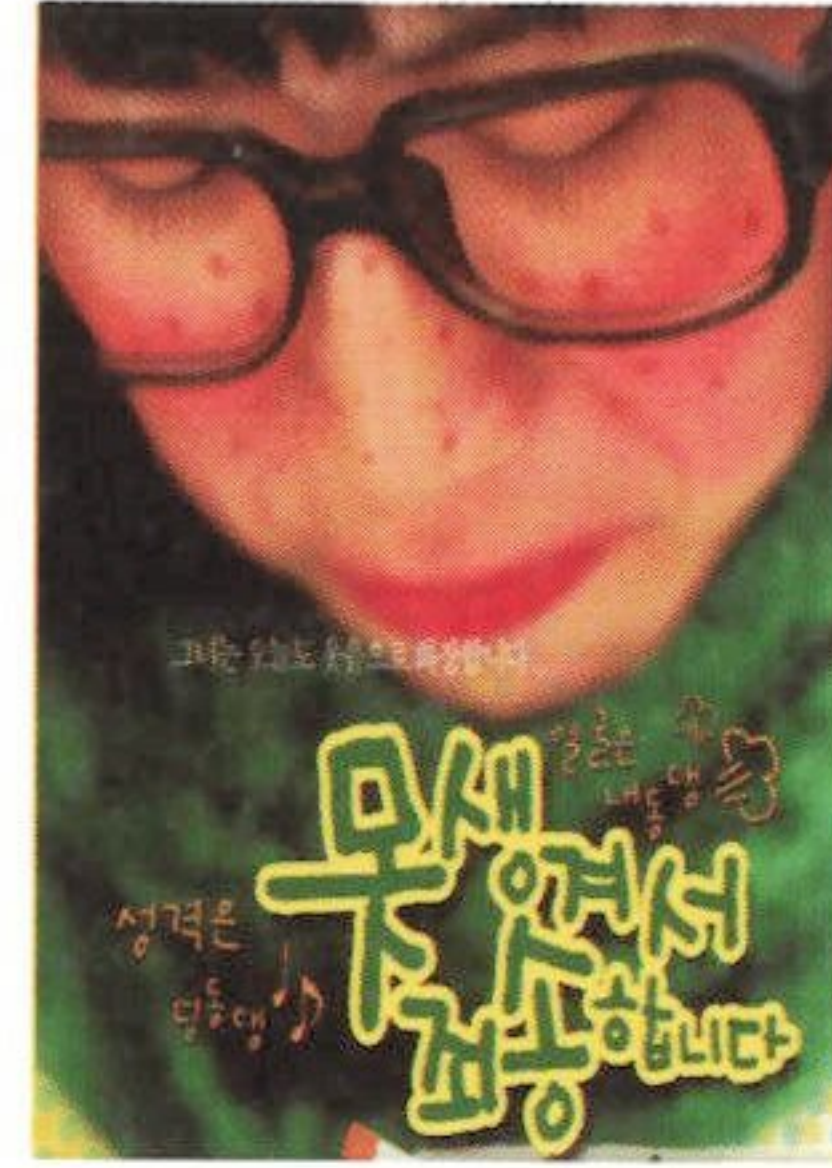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런던 최고의 가문 앤더슨가의 세 남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셜록 홈즈와 그의 파트너 왓슨의 이야기를 그린 국내 최초의 미스터리 추리극 뮤지컬 '셜록 홈즈'.

·원작/아서 도일 ·연출/노우성  
·작곡/김문정, 최주영  
·연출/김원준, 송용진, 구민진, 정명은, 배다해, 박인배, 조강현 외

**관람료** R석 70,000원 · 6석 30,000원  
A석 50,000원  
**문의** MBC롯데아트홀(1688-8998)

### 연극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11월 4일(금)~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휴관) >>> 청춘나비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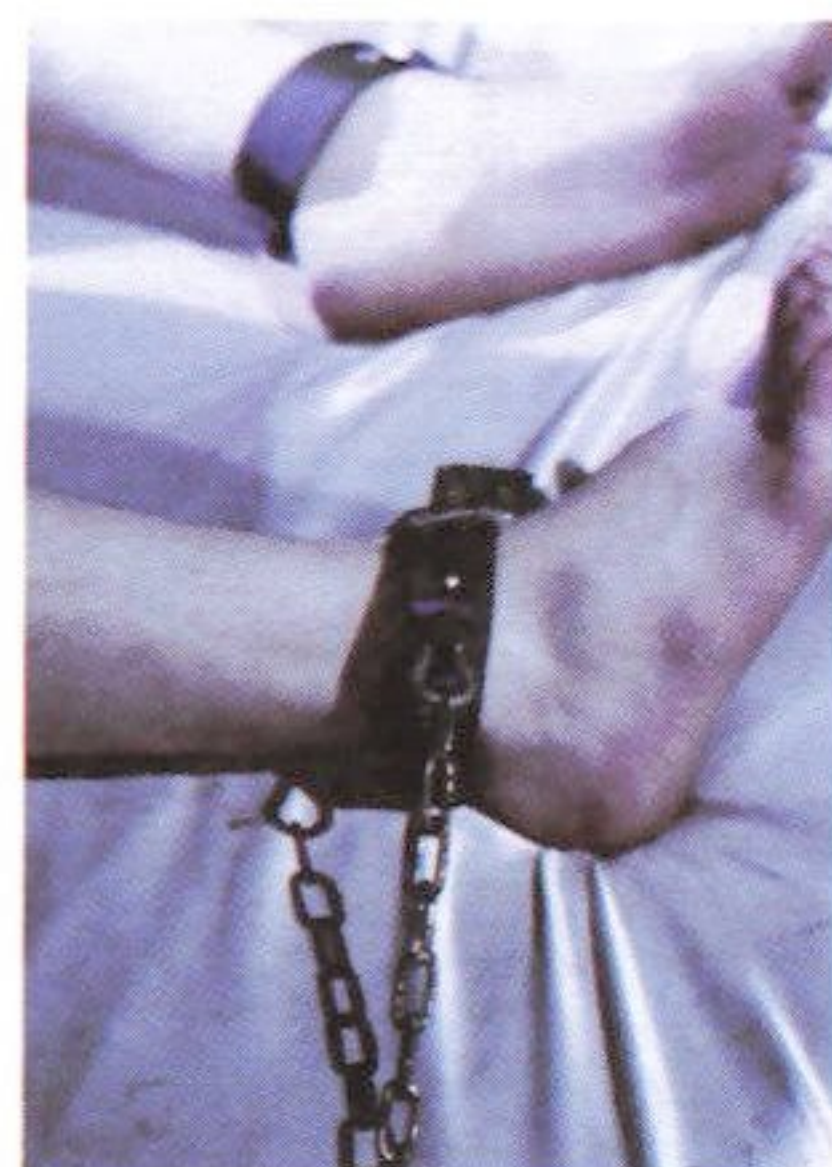
짙한 슬픔과 유쾌한 웃음이 공존하는 스토리와 라디오와 현실,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진행되는 빠른 극 전개, 상상력 넘치는 무대장치가 극의 재미를 더해주는 로맨스극.

·작, 연출/김민우

·출연/손아영, 이동욱, 황자미, 이태경, 황하규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626-3703)

### 2011 열린소극장 예술공동체 레지던스 사업-진지함과 놀기 '불안ANXIETY에 관한 5개의 수수께끼'

11월 7일(월)~26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 열린소극장



'불안'이라는 관념의 새로운 해석과 무대 표현양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기 위해 마련하는 열린소극장 예술공동체의 레지던스 사업.

연극과 무용, 단편영화,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

의 작품이 공연된다.

#### 작품

배씨, 코메디를 하다?(연출/Daniel Chumley)  
밧지마(안무/강희정)  
Walking Plot(감독/장희철)  
이상한 일들의 연속(연출/구현철)  
조용한 어항(연출/강성우)  
Installation Art(설치작가/김경화)

**관람료** 일반 20,000원 청소년 15,000원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010-9493-0972)



**로맨틱 코믹뮤지컬  
'러브홀릭' 그 두 번째 이야기**

11월 8일(화)-29일(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강당

영동발랄한 커플매니저 큐피트와 함께 인연을 찾아 나선 서른을 앞둔 평범한 남자 조반희의 좌충우돌 사랑 찾기를 그린 로맨틱 코믹뮤지컬.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KNN(1588-2757)

**콘서트 뮤지컬 '피크를 던져라'**

11월 16일(수)-18일 수-금요일 오전 10:00, 오후 7:30, 19일 토요일 오후 6: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연극적 드라마와 락밴드의 라이브 콘서트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콘서트 뮤지컬 '피크를 던져라'. 젊은 무명밴드 구성원들의 꿈과 좌절, 사랑과 우정이 폭발적인 라이브 연주와 함께 펼쳐진다.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초중고 단체 20명이상 30%, 수험생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할인)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극단 맥 '내 마음의 풍경'**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9:30, 11:00, 오후 8:00, 17일-18일 목-금요일 오전 9:30, 11:00  
 (오전공연은 수험생 단체공연)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11월 23일-25일 수-금요일 오전 9:30, 11:00  
 (수험생 단체공연), 26일 토요일 오후 5:0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아동문학가 이주홍의 원작소설 '메아리'를 재구성, 어린 시절 빛바랜 사진속에 담겨있는 정겨운 기억을 되

살려 추억여행을 떠나는 연극 '내 마음의 풍경'.

·작, 연출/이정남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맥(625-2117)

**2011 황당해프닝 코믹연극 '짬뽕'**

11월 17일(목)-12월 31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AN아트홀.광안



5·18 광주민주화항쟁이 짬뽕 한 그릇 때문에 일어났다는 상상력에서 출발,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감동과 유쾌한 웃음으로 그려낸 코믹극.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연극 '오구'**

11월 18일(수)-12월 11일(일) 화, 목-금요일 오후 8:00, 수요일 오후 4: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 · 공휴일 공연없음)  
 >>> 가마골소극장



팔손 노모의 죽음을 두고 벌어지는 해프닝을 통해 망자에 대한 슬픔을 한국 특유의 해학적 정서로 그려낸 연극 '오구'.

·작, 연출/이윤택  
 ·출연/남미정, 하용부, 배미향, 김소희 외  
 ::관람료 일반 30,000원 · 대학생 25,000원  
 초중고, 65세이상 어르신 20,000원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로맨틱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2011년 11월 18일(금)-2012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12/24일 오후 1:00, 4:00, 7:00, 9:30, 12/31일 오후 4:00, 7:00, 9:30)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같은 회사 여직원 장미를 좋아하는 소심한 성격의 노총각 진성, 그 앞에 나타난 소원을 들어주는 여자 진희, 과연 진성은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랑을 넘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창작 로맨틱 뮤지컬.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가족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20일 일요일 오후 1:00, 3: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꿈과 희망을 찾아 떠나는 동물들의 신나는 음악여행 가족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동물의 탈을 쓴 배우들의 개성넘치는 연기와 신나는 라이브음악이 재미를 더해준다.

::관람료 균일 20,000원(예매시 40% 할인)  
 ::문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공연예술 전위 제 100회 정기공연 대축제  
'세일즈맨의 죽음'**

11월 21일-22일 월-화요일 오후 7:30, 23일-24일 수-목요일 오후 4:30, 7:30 >>> 시민회관 소극장

현대희곡의 거장 아서 밀러의 대표작으로, 시대에 밀려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늙은 세일즈맨의 죽음을 통



# Program

##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해 물질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오늘날의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

- 작/아서 밀러
- 연출/전승환
- 출연/전성환, 이민영, 김진욱, 박현형, 원경식, 권철, 최시영 외

::관람료 일반 3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 의 공연예술 전위(582-2026)

### 뮤지컬 '잇츄'

11월 22일(화)-12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지역 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네 명의 남녀가 펼치는 꿈과 사랑의 로맨틱 코미디극.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SM기획(1600-1602)

###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11월 24일(목)-12월 4일(일) 평일 오전 10:30(수험생 단체공연),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 MBC롯데아트홀



크리스마스 이브 병원에서 흔적없이 사라진 하반신 마비 환자 최병호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사연많은 등장 인물의 이야기가 아련한 감동을 전해주는 창작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문 의 MBC롯데아트홀(1688-8998)

## DANCE

### 허경미무용단 창작춤 '외치다'

11월 12일-13일 토-일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무용단 'Red-Step' 대표로 활동 중인 허경미는 한국무용 연구회 주최 젊은 안무가전 작품상, 2011년 부산무용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말과 뜻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밖(外)으로 쳐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부산무용제 대상작 '외치다'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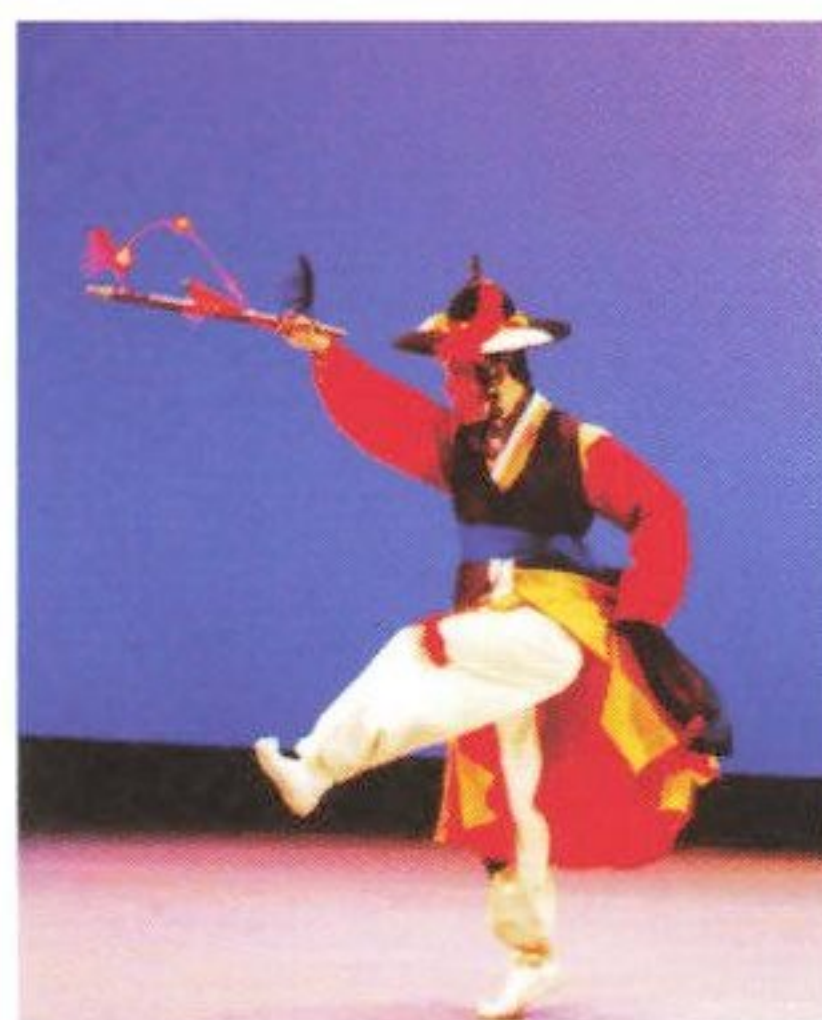
- 안무/허경미(Red-Step 대표)
- 연출/황해순(부산예술대학 교수)
- 드라마트루기/최찬열
- 출연/한수정, 왕정희, 허종원, 박정윤, 신윤경, 조은미, 이용진, 이연정, 박세준, 정소연, 강경희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이상헌(010-2762-1827)

### 중견명인명무전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흥기태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심으로 끊임없이 기량을 연마하고 예술 활동에 정진해온 부산의 중견예인들의 연륜이 묻어나는 멋과 흥의 무대.

::작품

흥기태 '훈령무', 이윤혜 '살풀이춤', 하연화 '태평무', 정진욱 '산조춤', 장선희 '승무', 장혜숙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박환영 '박종기제 대금산조'

::관람료 균일 8,000원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분홍신 그 남자

11월 20일 일요일 오후 4:00, 7:0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춤'과 함께 살아왔던 한 여인의 황혼에서 되돌아본 삶과 예술을 춤과 음악, 노래가 하나되어 어우러지는 '분홍신 그 남자'.

- 안무/김옥련
- 연출/유상홀
- 대본/송유미

· 출연/이원국, 김옥련, 최예원(발레), 박현정, 이은민(성악), 송용창(아코디언), 박미은(피아노), 박광식(바이올린), 고충진(클래식기타)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전화예매시 20% 할인)

::문 의 김옥련(626-9486)

## CONCERT

### 2011 김조한 라이브 콘서트

11월 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 KBS부산홀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77,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주)WSM(1566-5490)

### 재즈, 와인에 빠지다 32번째 이야기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 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의 실력파 뮤지션 '세조음(홍광현 퀸텟)' 무대로 펼쳐지는 '재즈, 와인에 빠지다' 32번째 무대.

· 해설/윤정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 의 무대공감(623-0678)



### 2011 장혜진 전국투어 콘서트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4:00, 8:00 >>> 시민회관 대극장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A석 77,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 November Rain -Choi Band-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관람료 1층 30,000원 · 2층 20,000원  
문의 무대공감(623-0678)

### 백두산 콘서트-Since 1986 '나는 전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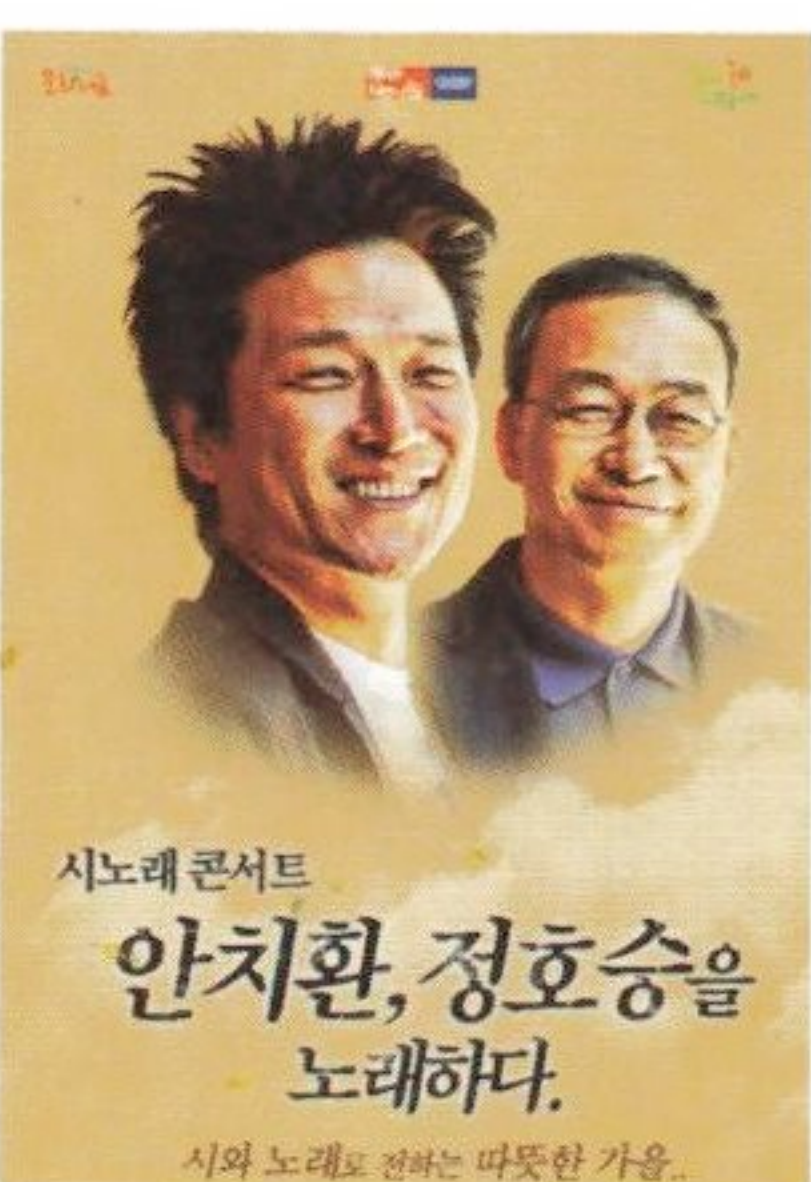
11월 13일 일요일 오후 6:00 >>> 시민회관 대극장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 시노래 콘서트 '안치환, 정호승을 노래하다'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2:00, 6:00 >>> 시민회관 대극장



우리의 삶과 사랑을 꾸준히 노래해온 안치환의 열정적인 무대와 시인 정호승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시낭송, 살아가는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시노래 콘서트.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만4세~초중고생 50% 할인)  
문의 시민회관(630-5200)

### 2011 김건모 콘서트-부산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7:00,  
20일 일요일 오후 5:00 >>> KBS부산홀

관람료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S석 88,000원 · A석 77,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SM(1600-1602)

## EVENT

### 제 107회 시율림 시낭송회 -섬김의 시인 김사인을 만나다

11월 2일 수요일 오후 7:00 >>>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관람료 무료

문의 김예강(010-5516-1867)

## GALLERY

### 모네에서 워홀까지

9월 7일(수)-12월 11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근·현대 서양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81명의 작품 112점을 감상할 수 있는 '모네에서 워홀까지' 부산전.

관람료 일반 11,000원 · 초중고 9,000원  
미취학아동 5,000원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6-2970)

### 송성진展 'Tower&Palace\_다름을 짓다'

10월 19일(수)-11월 8일(화) >>>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0~2)

### 조재임 개인전 '바람, 숲'展

10월 25일(화)-11월 7일(월)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 구상작가 6인의 풍경전

11월 1일(화)-11월 16일(수) >>>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 김향미展 '그림으로 만나는 낙동강 하구'

11월 1일(화)-11월 13일(일)

>>>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전시실

문의 낙동강하구에코센터(209-2000)

### 이영호 도자전 '달빛 닮은 순백을 만나다'

11월 3일(목)-11월 30일(수) >>> 아트카페 움

조선백자의 특징인 단순함과 소박함, 담백하면서도 단정한 멋의 작품을 선보여온 이영호 도자전.

문의 아트카페 움(557-3369)

### 롯데의 비밀-원저 조 이니스展

11월 8일(화)-11월 20일(일)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절묘한 빛과 색의 조화로부터 인물의 환경과 감정, 예술적인 영감을 이끌어내는 세계적인 작가 원저 조 이니스 작품전.

문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 경남도자연연구회 · 중국 하남성 도예작가 교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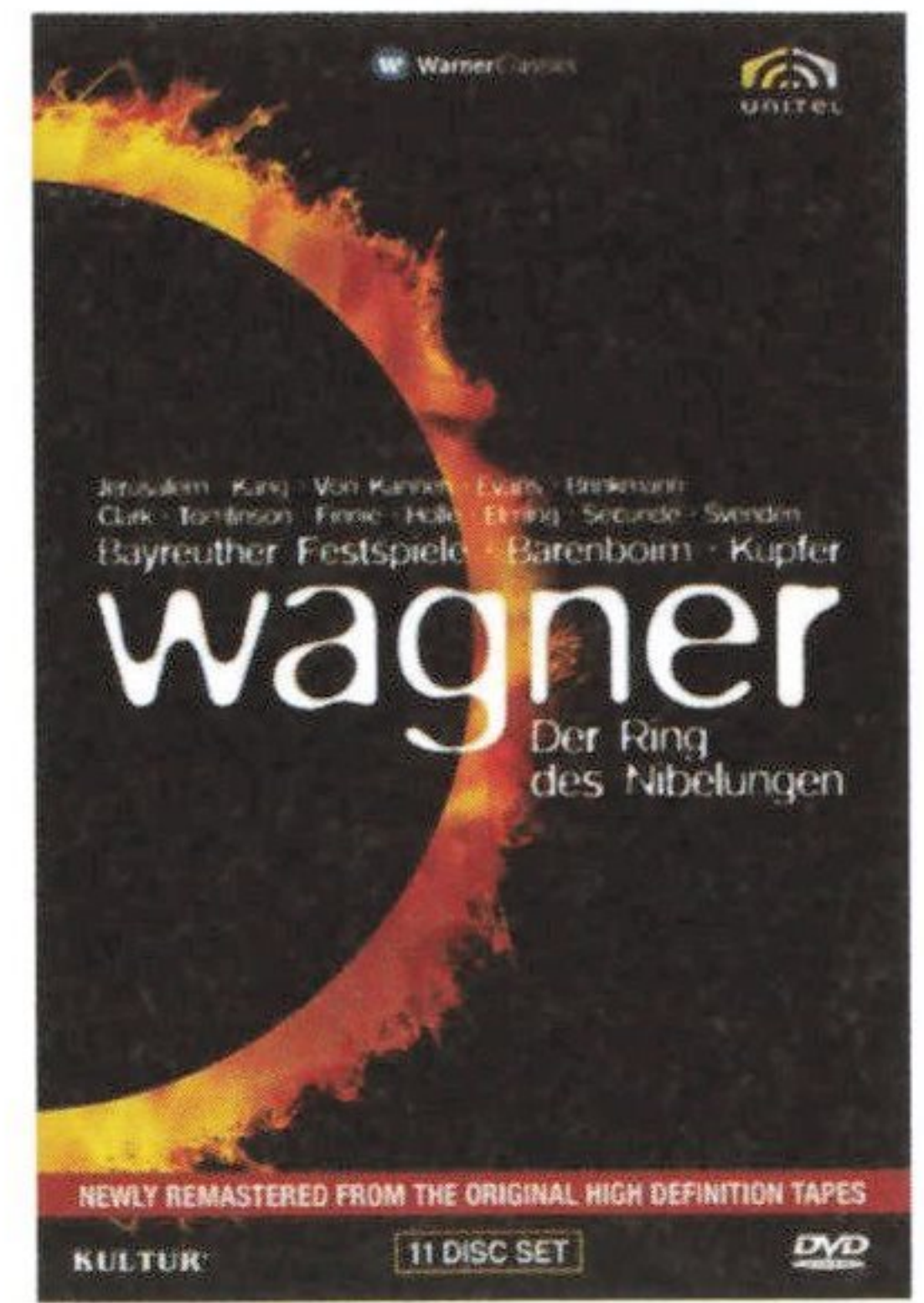
11월 18일(금)-11월 30일(수) >>>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 뜻 깊은 가치로 되돌아 온 극한의 인내심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김희성\_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음악을 감상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다. 특히 클래식음악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이미 앞서 감상을 하기 위해 고민한 경험이 있다는 더 좋은 조언과 충고를 받을 수 있다. 음악의 전공여부와는 관계없이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상의 편견과 선입관이 없다면 금상첨화이다. 혼자서 감상할 수 있는 장르와 레퍼토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금전적인 투자를 하여 음반을 사서 열심히 들어보고 교양서적도 읽고 음악회도 관람하여 실황과 음반의 차이까지 깨닫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하지만 쉽게 빠져드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현장이 아닌 오디오를 이용하여 음악을 감상할 때 하드웨어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왜곡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음반으로 감상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보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실황으로 감상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실황연주를 찾는 정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소프트웨어로 폭을 좁혀보면 정석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보통 음악을 감상하는 순서를 전문가들이 추천하곤 한다. 작곡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클래식음악을 처음 감상하고자 하는 입문자에게 현대음악을 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교적 일찍 클래식음악을 접했지만 소위 말하는 BMW, 즉 브루크너, 말러, 바그너의 음악은 쉽게 손이 가지도 않고 감상하여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감정의 동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 아직 감상할만한 수준이나 단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클래식음악 관련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고수’들이 들려주는 이들의 음악을 설명과 함께 감상하게 되니 ‘왜 이렇게 좋은 음악을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로 함께 감상하는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특히 바그너의 오페라는 베르디나 푸치니의 이탈리아 오페라에 익숙해 있던 나에게 넘보기 힘든 먼나라 이야기였다.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신화,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알아야 하고 연주시간이 무려 16시간이 넘어 극한의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니벨룽의 반지’는 더더욱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온라인에서 만나 구성된 고전음악감상동호회 회원 몇 명이 ‘니벨룽의 반지’를 감상해 보기로 의기투합하여 추운 겨울, 열악한 오디오시스템에 자막도 없는 비디오테이프를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였다. 다행히 회원 중 바그너 전문가가 있었고 충실한 자료와 해설을 곁들여 하리 쿠퍼 연출, 다니엘 바렌보임 지휘의 1991년 바이로이트 축제 실황연주로 감상한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그프리트’, ‘신들의 황혼’은 충격과 감탄의 연속이었고 개인적인 음악감상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다. 감상모임은 ‘링 스터디 모임’이 되었으며 감상 후 진지한 토론과 탐구로 바그너와 함께 행복한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

지휘자 뿐만 아니라 연출자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의미와 숨은 뜻을 알고자 애를 쓰기도 했었다. 비디오테이프를 구하여 전곡감상을 혼자서 다시 시도하였고 DVD가 발매된 이후에는 파트리스 세로 연출, 피에르 불레즈 지휘의 1980년 바이로이트 축제 실황연주와 다른 동호회에서 회원들과 함께 전곡을 감상한 한글자막이 삽입된 오토 쉥크 연출, 제임스 레바인 지휘의 1990년 메트로폴리탄 연주, 카를루스 파드리사의 혁신적인 무대연출이었던 2008년 주빈 메타 지휘의 발렌시아 연주를 감상하며 바그네리안이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바이로이트를 꿈꾸기도 했었다. 하리 쿠퍼가 연출한 ‘반지’ 무대의 중심개념을 이루는 ‘영원한 역사의 거리’가 주는 의미,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서로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로 이어지는 영속적인 관계라는 인식처럼, 정성과 관심으로 음악을 사랑한다면 행복한 인생의 동반자로서 뜻 깊고 가치있게 평생 존재할 것이다.



## 부산문화회관 2011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인기

그동안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었던 수능생과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매년 펼치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무대가 2011년에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9월 6일부터 10일간 실시한 관람학교 신청접수기간 동안 26개교, 8,086명이 공연관람을 희망,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일정에 맞는 20개교를 선정,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 일정

11월 18일(금)	11:00	'청소년을 위한 시네마 클래식'	▶ 시립교향악단
11월 23일(수)	11:00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 시립합창단
11월 28일(월)	11:00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 시립국악관현악단
11월 28일(월)-29일(화)	11:00	연극 '동토유케-Don't you kill?'	▶ 시립극단
12월 13일(화)	11:00	마당춤관 '효녀심청'	▶ 시립무용단

## 11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11월 공연이 확정되었다. 11월에는 11월 4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리는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국악방송국 개국축하공연, 부산시청 로비콘서트, 세계인문학포럼 개막공연에서 문화의 향기를 전한다.

### 일정

11월 4일(금)	18:00	한국해양대학교 대강당	꿈나무소망심기공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출연/시립합창단)
11월 8일(화)	16:30	국립국악원 연악당	내사랑 부산공연 '부산국악방송 개국 축하공연' (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11월 23일(수)	12:30	부산시청 로비	내사랑 부산공연 '로비콘서트' (출연/시립무용단)
11월 25일(금)	20:00	누리마루	내사랑 부산공연 '세계인문학포럼 개막공연' (출연/시립국악관현악단)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5)

## 문정수 전 부산시장과 함께 하는 영화음악 플러스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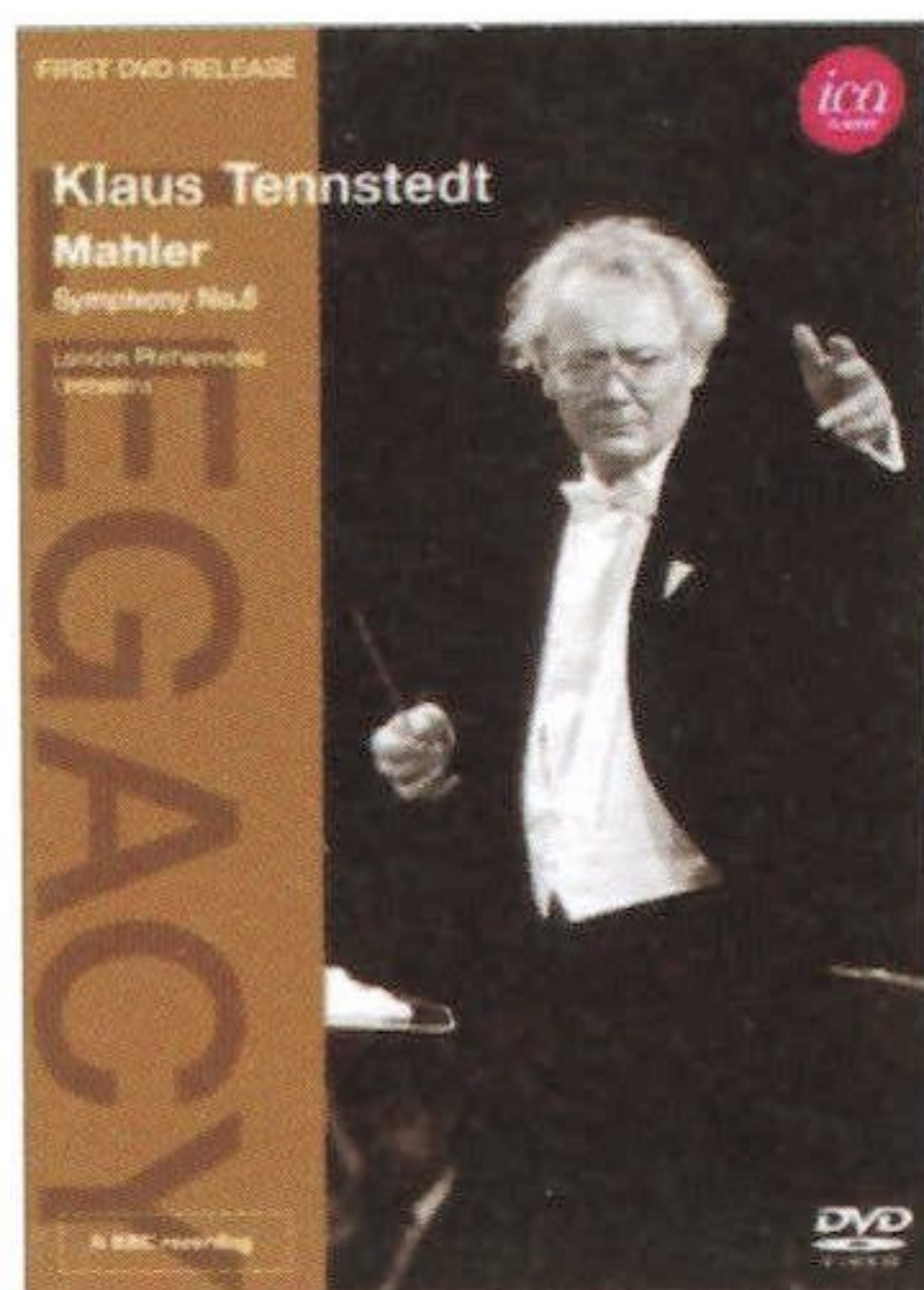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과 함께 2003년 가을부터 영화팬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영화음악 플러스 콘서트' 2011년 무대가 11월 8일 부산문화회관에서 막이 오른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들고 정착시킨 문정수 전 시장이 영화제를 통해 인연을 맺어온 명사, 영화인들이 출연하는 영화음악플러스 콘서트는 스크린을 빛내는 영화음악을 무대에서 직접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

올해는 전영록(가수), 오정해(영화배우), 이경오(팝페라 가수), 알렉스(아코디언연주가), 이장호(영화감독), 정두언(국회의원), 박광하(테너) 등이 출연해 영화보다 멋진 영화음악의 감동을 전한다.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부산시민들과의 만남을 잇을 수 없어 매년 영화음악플러스 콘서트를 열어온 문정수 전 부산시장. 공연기획에서부터 섭외, 연출, 진행, 노래 등을 소화해야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을밤, 영화와 음악이 있는 행복한 밤이 기다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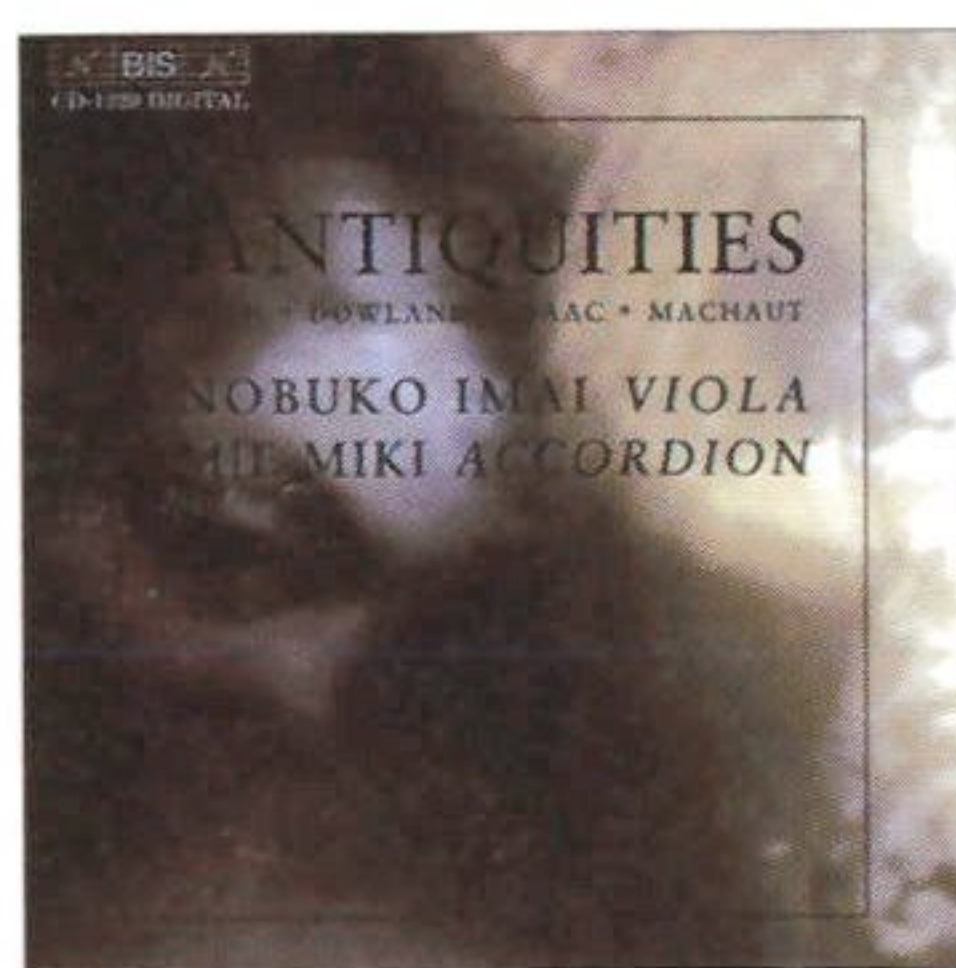


## 말러의 교향곡 5번

▶연주/클라우스 텐슈테트(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클라우스 텐슈테트는 사망 이후 더욱 주가가 높아진 지휘자다. 스튜디오에서보다 콘서트 현장에서 더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 거장의 특징이 최근 줄을 이어 출시되고 있는 그의 여러 실황음반들을 통해 다시금 부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휘대 위에서의 열정적인 텐슈테트의 모습을 담은 이 DVD는 다시금 그의 팬들을 흥분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이 DVD는 다른 아닌 말러 교향곡 5번의 1988년 실황. EMI에서 발매되었던 CD와 동일한 공연실황으로 텐슈테트의 대표명연 중 하나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바로 그 연주다. 이 말러 교향곡 5번은 그가 런던 필하모닉에 컴백한 이후에 남긴 여러 콘서트 실황들 중 거의 마지막에 속하는 것으로, 텐슈테트 특유의 풍부한 감성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호연이다. 오디오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 연주지만, 지휘대 위에서 혼신의 열정을 발하는 그의 모습은 이 연주의 감동을 한층 더 배가시켜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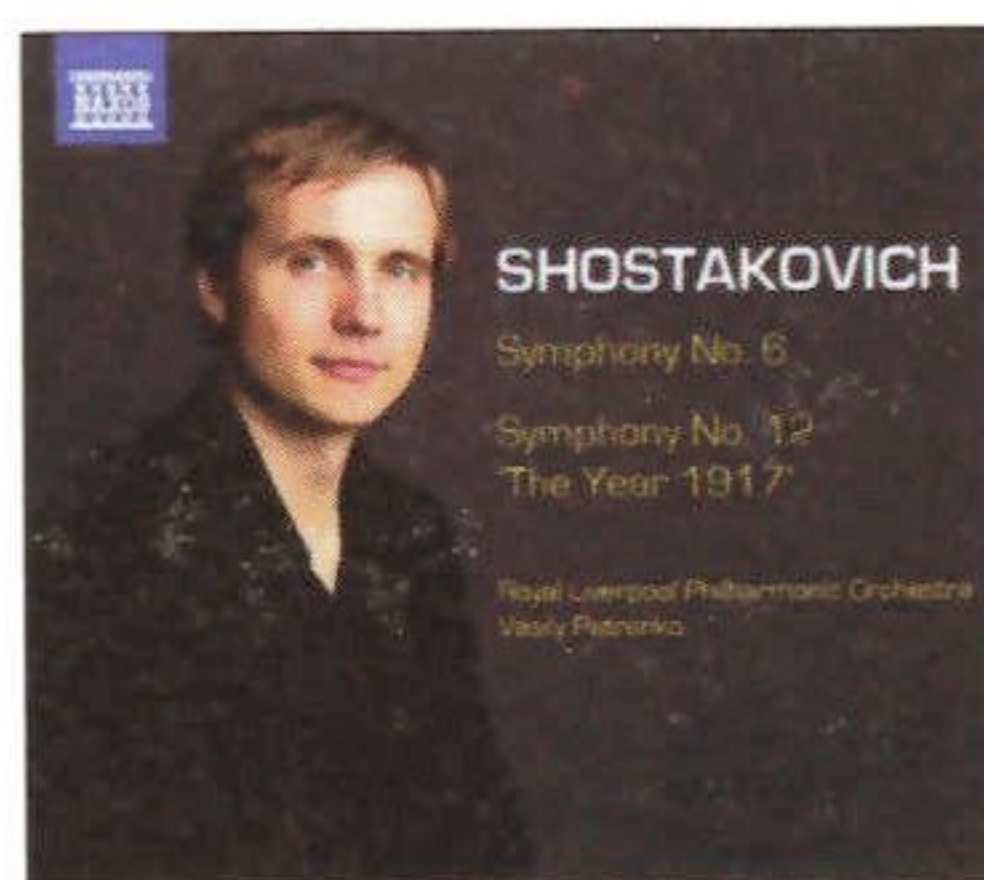


## 앤티퀴티-비올라와 아코디언을 위한 음악 수록곡

▶연주/노부코 이마이(비올라), 미에 미키(아코디언)

아코디언과 비올라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컨셉의 음반으로 각 악기의 명수, 노부코 이마이와 미에 미키가 참여해 독특함에서 머물지 않고 실로 놀라운 수준의 연주로 재창조시켰다.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과 파르티타 3번과 같은 걸작들을 비롯해 존 다울랜드, 하인리히 이작의 보석 같은 작품들을 비올라와 아코디언의 이색적인 결합으로 아름답게 연주했다. 마치 이 두 악기를 위해 작곡된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키는 연주들이다. 아코디언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라도 탄복할 수밖에 없는 필칭판이다. 노부코 이마이는 뮌헨, 제네바국제음악콩쿠르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 시대 최고의 비올리스트 중 한명이다. 미에 미키는 4세 부터 아코디언을 시작, 8세때 NHK라디오방송을 통해 데뷔했다.



##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6번, 1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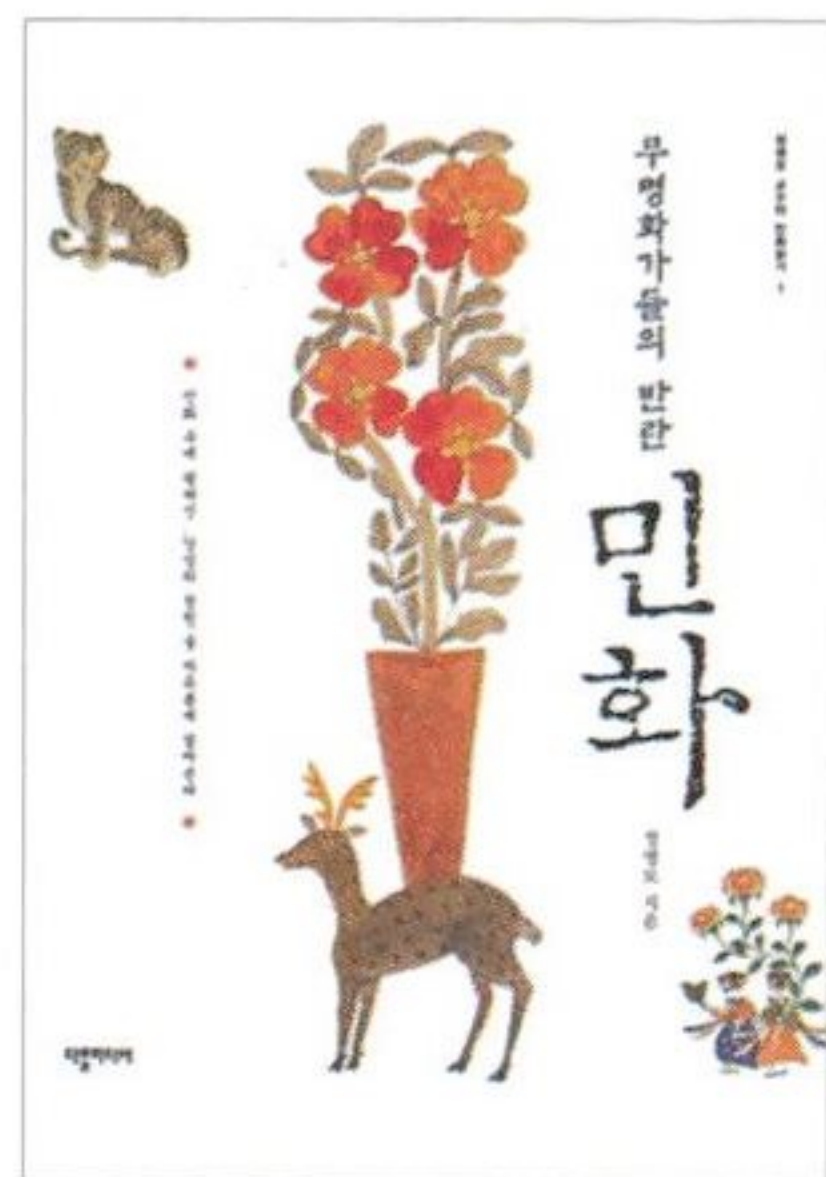
▶연주/바실리 페트렌코(지휘),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 바실리 페트렌코와 로얄 리버풀 필이 진행 중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시리즈는 교향곡 10번이 2011년 그라모폰상 관현악부분을 수상하면서, 다시금 음악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신보에는 작곡가의 교향곡들 중 가장 애매모호하고도 독창적인 작품인 교향곡 6번과 볼셰비키 혁명을 기념하는 체제선전용 작품인 교향곡 12번 '1917년'을 함께 수록하였다.

지휘자 바실리 페트렌코는 러시아 태생의 젊은 지휘자로 안손스, 테미르카노프, 살로넨을 사사했고 2006년부터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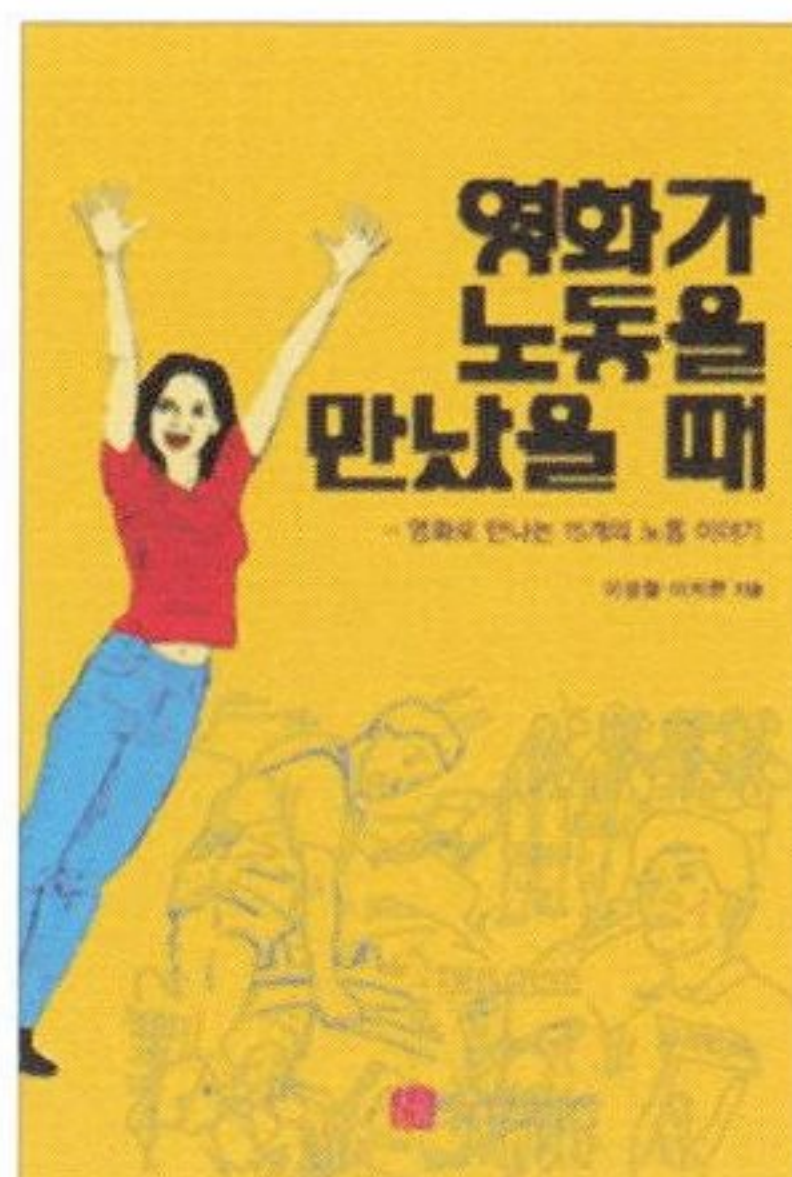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민화 속에 펼쳐진 상상의 정원을  
자유롭게 걸어본다

정병모 지음 / 다할미디어  
/ 331p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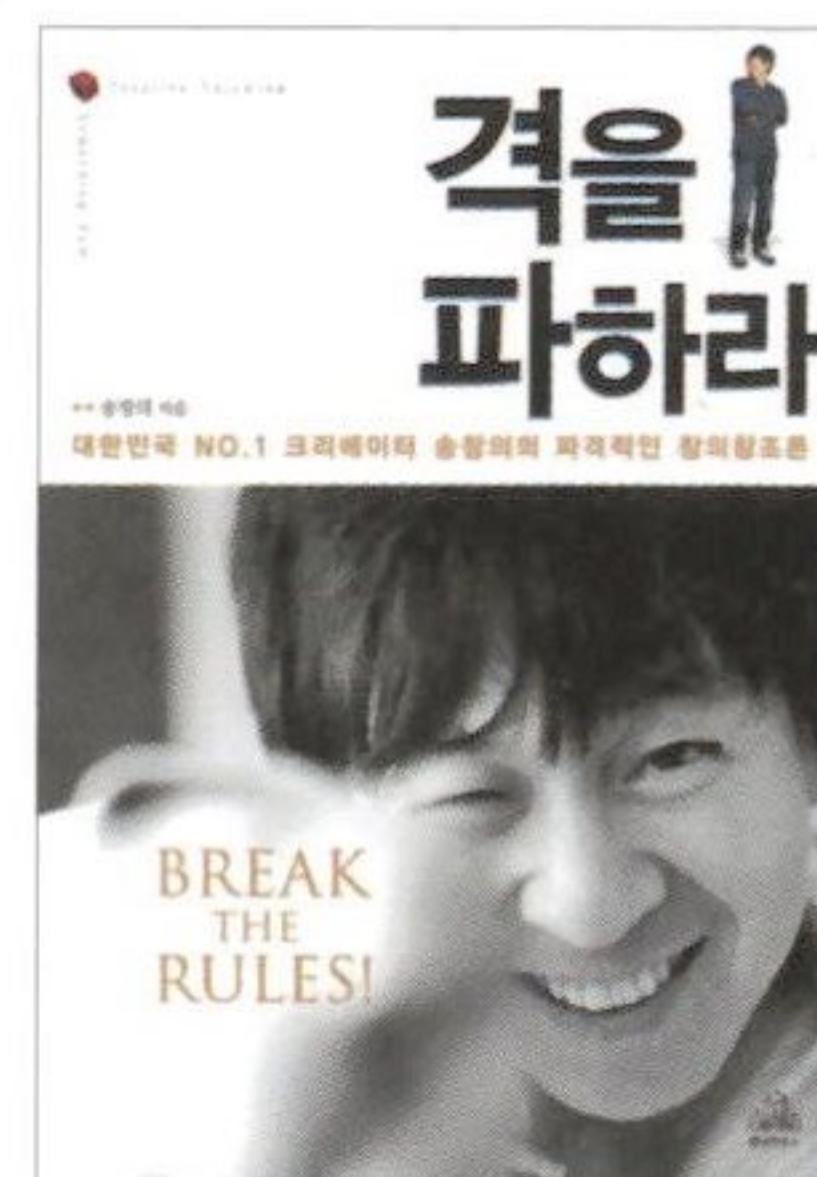
좋은 민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는 정병모. 그는 민화가 현대인의 각광을 받고 세계화의 가능성이 높은 전통미술이라고 믿고 있다.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인 정병모 씨가 조선시대 민화의 가치를 전해주는 책을 펴냈다. 미국 민간미술 연구가 베트릭스 럼포드(Beatrix T. Rumford)는 민화를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예술'이라고 말한다. 조선의 무명화가들은 전통의 틀을 깨뜨리고, 자연의 느낌을 질박하게 드러내며, 우리 자연의 따뜻한 빛깔과 서민의 친근감을 화폭에 담았다. 그들은 천진난만한 그림을 통해 정통화가들과 다른 예술세계를 보였다. 그렇게 그려진 민화는 당시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다. 이 책은 일반 독자들이 민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거리, 문자도, 까치호랑이, 운룡도, 십장생도 등 비교적 현대에 인기 있는 주제를 통해 민화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명나라 호랑이 그림과 다른 간결한 구도, 극적인 표현, 그리고 사실적이고 생기 넘치는 묘사를 통해 한국 호랑이 그림의 전형을 마련한 김홍도의 '송하맹모도' 등 다양한 작품 속에 펼쳐진 서민들이 현실 속에서 바라는 염원과 미래를 꿈꾸는 이상을 만나본다.



**영화가 노동을 만났을 때**

이성철 · 이치한 지음 / 호밀밭  
366p / 17,000원

'처음 이 책은 사뭇 낯설게 다가왔으나 어느새 흥미진진하게 빠져드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용관(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말이다. '영화가 노동을 만났을 때'는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이성철 교수와 창원대학교 이치한 교수가 노동전문가의 시각으로 노동영화, 혹은 노동을 소재로 한 영화를 재해석한 책이다. 한국, 미국, 영국,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노동영화 15편이 소개된다.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청년실업, 노동정치, 노동운동 등 어렵고 딱딱하게 여겨지는 노동문제가 각 나라의 영화속 에피소드를 통해 쉽게 전달해준다. 외국영화가 낯설다면 우리나라 영화 편부터 펼쳐보는 것도 좋겠다. 그만큼 '영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노동'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한국영화로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과 '파업전야'가 소개되어 있다. 박광수 감독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은 '그가 없었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은 수십 년 뒤에나 존중받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 전태일의 삶을 주제로 한 영화이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조망해보는 계기가 되어주는 책이다.



**격을 파하라**  
대한민국 No.1 크리에이터의  
파격적인 창의창조론

송창의 지음 / 랜덤하우스코리아  
/ 235p / 12,000원

'뽀뽀뽀'를 책임연출하면서 PD로 데뷔했고, 침체되어 있던 MBC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참신하고 파격적인 연출력을 발휘하며 예능 프로그램의 강자로 우뚝 섰던 송창의 PD의 책. 제목은 평소 저자가 말해 온 '격을 파하라'를 그대로 사용했다. 현재 케이블 TV의 최강자로 급부상한 tvN의 새로운 구호이기도 하다. 저자는 창의적인 콘텐츠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편협한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날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시청률 1%에 울고 웃던 tvN은 이제 시청률 10%가 넘는 킬러콘텐츠를 생산하며, 제도권을 긴장시키는 방송콘텐츠계의 '폭풍의 눈'이 되었다. '틀에 박힌 격식을 깨고,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파하라'는 tvN 송창의 본부장의 행보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송창의의 파격적인 창의 창조론을 창의, 열정, 관계, 청춘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책을 읽다 보면 그동안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던 '창의 로드맵'이 그려진다. 저자를 방송 콘텐츠의 최강자로 만든 3가지 키워드는 '창의로 시작하고 열정으로 이끌며 관계로 완성하라'이다.





가을 속으로 떠난  
총절의 고장 진주 테마여행

만추를 재촉하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10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67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0월 여행지는 진주성 대첩의 영웅 김시민과 왜장을 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의기(義妓) 논개의 구국훈이 서려있는 총절의 고향 진주. 모처럼 내리는 단비처럼 환한 표정의 정기회원 가족들이 여행의 설렘을 안고 버스에 올랐다. 이번 10월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이화성, 김공주, 홍보담당 김태훈 씨가 여행 길동무로 동석했다.

차창 밖으로 조금씩 울긋불긋해지는 가을산을 바라보며 달려간 곳은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진주의 성지(聖地) 진주성. 입구까지 마중나온 문화유산해설사의 인솔로 우선 진주성 탐방에 나섰다. 쉬지않고 내리는 비 속에서도 진주성은 수학여행 온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외적을 막기위해 삼국시대부터 조성된 진주성은 특히 선조 25년인 1592년 10월 왜군 2만이 침략해오자 이에 맞서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3,800여명의 군사와 백성들이 힘을 합쳐 물리친,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 곳에는 진주의 상징이자 영남 제일의 명승인 축석루를 비롯해 논개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인 의기사와 총무공 김시민 장군의 전공을 새긴 전공비, 진주성을 방어하던 포진지인 포루 등 역사적인 유적지가 남아있다. 특히 진주성 아래 남강에는 며칠 전에 끝난 진주유등축제에 사용되었던 각양각색의 유등들이 아직 철거되지 않고 떠 있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진주성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임진왜란 전문역사박물관으로 유명한 국립진주박물관. 국립박물관 중 최초의 전문 역사박물관으로 선정된 국립진주박물관은 국내외 여러 곳에 분산 소장되어 있던 임진왜란 관련 유물들을 연대기순으로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돕고 있다. 국립진주박물관을 끝으로 진주성 탐방을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우리나라 유일의 삼베전시관이 있는 진주시 금곡면 죽곡삼베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400년 가까이 삼베길쌈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죽곡삼베마을은 현재도 10여가구가 옛 전통 그대로 삼을 심어서 실을 뽑고 그 실로 베를 짜는 전 과정을 공동으로 작업해오고 있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마을 어르신들이 손수 차려준 맛있는 점심식사로 허기진 배를 채운



회원가족들은 우선 마을 입구에 자리한 죽곡삼베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곳에는 삼베의 역사에서부터 삼 재배방법과 삼베 짜기, 물레와 베틀, 삼베로 만든 제품까지 삼베에 관한 모든 것을 전시하고 있다. 삼베전시관에 들어서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강연순 어르신이 회원들을 반갑게 맞는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이곳 죽곡리에 시집와서 50여년 넘게 길쌈을 해온 강연순 어르신은 직접 베틀에 앉아 삼베짜기 시범을 보여준다.

“세월이 허심심하여 베틀이나 놓아볼까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 월광단이라~~”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던 ‘징글징글’한 길쌈과정을 잊기 위해 불렀던 ‘베틀가’ 한구절이 어르신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자 회원들의 탄성도 함께 쏟아진다.

삼베전시관에 이어 도착한 곳은 전시관 맞은 편에 자리한 남악서원.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전략상의 요지를 찾아다니다가 이 곳에서 진을 치고 휴식하던 중 비봉간에 나타난 신령으로부터 삼국통일 위업의 가르침을 받아 높은 공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이 곳은 1922년 지방 유림들이 중건하여 경주의 서악서원의 이름을 본따 남악서원이라 지었다고 한다. 특히 이곳 사당에는 김유신 장군과 최치원, 설총 선생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우리가 방문한다는 소식에 마침 이 곳 관리를 맡고 있는 김유신 장군의 후손이 직접 서원을 찾아와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은 영정들을 특별히 회원가족들에게 공개하면서 뜻밖의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죽곡삼베마을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빛깔 고운 삼베 염색체험. 마을 어르신들이 손수 짠 삼베를 치자와 소목으로 염색한 후 그 천에 문양을 찍어보는 체험으로, 저마다 원하는 색깔의 삼베천에 자신의 개성을 살린 문양을 찍느라 분주하다.

체험을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마을을 떠나기 앞서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이화성, 김공주 씨의 지도로 간단한 체조와 강강수월래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모처럼 콘크리트 도시에서 벗어나 깊어가는 가을의 여유로움을 즐겼던 오늘 하루가 정기회원 가족들에게는 역사와 전통,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했던 가을여행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2011년 12월에는 **산청**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11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11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가입자

강문기(강서구 지사동)  
김인숙(사하구 당리동)  
권미량(금정구 구서2동)  
남성진(남구 용당동)  
노은래(사상구 학장동)  
박영선(해운대구 좌3동)  
박정화(남구 용호1동)  
배수정(사상구 모라1동)  
임문숙(남구 용당동)  
현영숙(사상구 학장동)

#### 엽서당첨자

강행재(금정구 남산동)  
김태엽(동래구 명륜동)  
서진태(해운대구 우1동)  
성용호(기장군 청강리)  
성지민(부산진구 전포동)  
윤한오(동래구 온천2동)  
이애진(서구 동대신동3가)  
이윤이(서구 서대신동3가)  
조은숙(양산시 덕계리)  
하윤재(서구 동대신동 2가)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가로열쇠

- 1994년 제 5회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첼로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세계적인 첼리스트. 오는 12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 기원 전후 수세기에 걸쳐 파키스탄 북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한 불교 문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른바 ○○○ 양식의 불교 미술이 성했으며, 이 미술양식은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등지로 전해졌다.
- 바로크 시대의 전형적인 독주협주곡과 합주협주곡의 형식을 확립한 이탈리아의 작곡가. 대표곡으로 합주협주곡 '사계(四季)'가 유명하다.
- 제주도 특유의 정취를 불러일으키는 가락에 제주의 명승지를 나열하는 사설로 되어 있는 제주도 민요.
- 작은 아버지.

- 음악으로 기억될 사랑의 순간을 노래한 존 카니 감독의 2007년 음악영화.
- 조선 후기 풍속화가 신윤복의 그림으로, 전통적 미인을 섬세하고 깔끔한 선으로 그려내고, 엷은 채색을 함으로써 더욱 단아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 근대 서정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장편소설로 196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 숫자 0과 1만을 사용하여, 둘씩 묶어서 위치로 올려 가는 표기법.
- 홍콩작가 김용의 무협소설 '사조영웅전'에 등장하는 인물을 모티브로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무협 영화로 탄생된 왕가위 감독의 1994년 영화.
- '맹자'의 상편에 나오는 말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를 일컫는다.
- 계모의 계교로 독약이 든 사과를 먹고 죽은 공주가 일곱 난장이의 도움으로 되살아나 왕자와 결혼한다는 내용의 독일의 전래동화.
-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
- 몽골의 민속 현악기. 두 줄이고 몸통은 육각(六角), 팔각(八角), 대형(臺形) 등에 말가죽으로 싸여 있으며, 몸통 위쪽 끝에 말 머리 장식이 있다.
- 미국의 군인으로, 1945년 8월 일본을 항복시키고 일본점령군 최고사령관이 되었으며, 6·25전쟁 때는 UN군 최고사령관으로 부임하여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하였다.
- 연극의 단락을 세는 단위.

### 세로열쇠

-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악 타악기로 반주에 널리 쓰인다.
- 일본의 기녀가 미국의 해군장교에게 버림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의 비극적 이야기를 그린 푸치니의 오페라.

- 무저항, 불복종, 비폭력, 비협력주의에 의한 독립운동을 실천한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앙에서 동남쪽으로 길게 자리 잡은 인민민주공화국. 수도는 비엔티엔.
- 백성이나 하급 벼슬아치들이 자기 고을의 원(員)을 존대하여 부르던 말.
- 주로 유년의 우울한 기억이나 도시인들의 삶을 담은 독창적이면서 개성이 강한 시들을 발표한 시인. 유고시집으로 '입속의 검은 잎'이 있다.
- 일정한 시점에서 본 물체와 공간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도록 평면 위에 표현하는 방법.
- 입동과 대설 사이의 절기로, 이 시기가 지나면 얼음이 열고 첫눈이 내리는 등 첫겨울의 징후가 보인다.
-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미군 병사와 베트남 여인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영국의 뮤지컬.
- 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 우호 관계의 촉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력을 달성하기 위해 창설한 국제 평화 기구. UN.
- 지난해 8월 타계한 한국의 소설가이자 번역문학가, 신화학자. 신화학 저서로서 '○○○의 그리스 로마신화'가 유명하며 소설 '숨은 그림 찾기 1'로 제 29회 동인문학상을, '두 물머리'로 제 8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했다.
-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행위. 또는 그런 대사.
- 그동안 국내에서 금기시되어온 여수·순천사건에서 6·25전쟁이 끝날 때까지의 약 5년 동안을 시대적 배경으로 불행했던 민족의 수난사를 그린 조정래의 대하소설.
- 사신(四神)의 하나. 남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으로, 붉은 봉황으로 형상화했다.
- 사람이 말을 타고 하는 경기.
- 페달을 밟아서 바람을 넣어 소리를 내는 건반 악기. 오르간.

## 지난호 정답

동	래	성	불	은	꽃	대	바
래	가	행	어	부	지	리	
야	상	곡	나	린			톤
류			문	무	대	왕	릉
			칼	침	자	조	스
상	실	의	시	대		다	웨
형		노		뽕	빈	라	덴
문		래	프	팅	김	치	
자	막	라		악	코	다	리
	부		하	드	보	일	드
							그

## 퍼즐당첨자 명단

### 공간소극장

- 김광열(부산진구 양정1동)
- 김선주(사상구 감전동)
- 김현영(서구 서대신동 2가)
- 이창용(해운대구 좌동)
- 백혜숙(부산진구 양정1동)

### 나랏소

- 김경자(사하구 하단동)
- 박수현(연제구 연산5동)
- 배은지(영도구 영선동)
- 윤인숙(기장군 기장읍)
- 주은미(연제구 거제3동)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 김진수(사하구 당리동)
- 박미화(서구 아미동)
- 이화정(연제구 연산4동)
- 최진훈(양산시 물금읍)
- 한미정(금정구 부곡동)

### 큰집

- 김재은(동래구 온천3동)
- 박선자(사상구 주례2동)
- 박수흠(서구 서대신동 3가)
- 손현경(동래구 온천2동)
- 윤지현(서구 초장동)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TEL. 1588-2757

세계적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소극장이 있습니다.

## 문화공간사계

#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Tel 051.611.8518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부산지역 공연장



##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곱담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1년 11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2011년 11월 공연일정



부산문화회관 전경

## 전시실일정

중 동서대학교 시각 디자인 졸업전시회  
10월 31일(월)~11월 2일(수)  
(오픈 10월 31일 오후 6:00)  
김영일(010-9509-7975)

대 중 2011 부산서예비엔날레  
11월 5일(토)~11월 8일(화)  
11월 11일(금)~11월 17일(목)  
문익·박주성(011-557-7791)

대 중 제 31회 부산미술제  
-한국화/서양화/조각/수채화/판화/영상  
11월 20일(일)~11월 26일(토)  
부산미술협회(632-2400)

대 제 44회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작품발표회  
11월 28일(월)~12월 1일(목)  
임유래(010-6291-298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대 대극장    중 중극장    소 소극장</p>		<p><b>1</b></p> <p>중 제 5회 두루치야 블루트 앙상블 연주회 19:30 무료/유선(011-9317-2706)</p> <p>소 고봉수·신정순 제자 향상음악회 19:30 초대/고봉수(010-4434-6605)</p>	<p><b>2</b></p> <p>대 2011 부산국제합창제 '전야 대 음악회' 19:30 초대/한국합창조직위원회(623-0176)</p> <p>중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교수 순회연주회 19:30 초대/계명대학교(053-580-6520)</p> <p>소 세계적인 클라리네티스트 '도미니코 비달과 함께 하는 프랑스 음악의 밤' 19:30 무료/이원기(010-8280-4646)</p>	<p><b>3</b></p> <p>대 2011 부산국제합창제 '합창경연-클래식혼성' 10:0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23-0176)</p> <p>대 2011 부산국제합창제 '갈라 콘서트' 19:30 초대/한국합창조직위원회(623-0176)</p>	<p><b>4</b></p> <p>대 2011 부산국제합창제 '합창경연-클래식 동성, 민속 음악' 10:0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23-0176)</p>	<p><b>5</b></p> <p>대 2011 부산국제합창제 '합창경연-대중음악' 10:0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23-0176)</p> <p>대 2011 부산국제합창제 '시상식 및 챔피언 콘서트' 19:30 초대/한국합창조직위원회(623-0176)</p>
<p><b>6</b></p> <p>대 2011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입상자 콘서트 17:00 5만원·4만원·3만원·2만원·1만원 (제)통영국제음악제(055-642-8662~3)</p> <p>소 부산클라리넷 소사이어티 '클라리넷과 함께하는 세계여행' 18:00 1만원·5천원/박미현(010-3872-4762)</p>	<p><b>7</b></p> <p>대 2011 제 11회 대학교향악축제-부산대학교 19:30 초대/(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중 부산YWCA합창단 제 13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안은영(010-3862-8180)</p>	<p><b>8</b></p> <p>대 문정수와 함께하는 2011 영화음악 플러스 콘서트 19:30 3만원·1만5천원 균일 1만 5천원/부산선진문화포럼(256-7614~5)</p> <p>중 독일가곡연구회 제 39회 정기연주회 19:30 2만원·1만원/김현식(010-3120-4116)</p>	<p><b>9</b></p> <p>대 2011 김부선 발레공연 19:30 3만원·1만5천원 동아대학교(200-7823, 010-6495-6623)</p> <p>중 남부산농협 청소년합창단 제 7회 정기연주회 '심장병 어린이들기 자선음악회' 19:30 초대/박순희(010-8514-4740)</p> <p>소 최현경, 이슬라 2인전 19:30 균일 1만원/이슬라(010-8521-0556)</p>	<p><b>10</b></p> <p>중 제 1127회 MBC목요음악회 '4인의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2대의 피아노 이야기' 19:30 1만원·5천원/강남길(010-5240-1911)</p>	<p><b>11</b></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Opera in Concert 라 보엠' 19:30 2만원·1만5천원·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24 '더 문사이너스'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b>12</b></p> <p>대 노엘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 전국우수교향합창단 초청 제 1회 한국청소년합창축제 15:00 무료/노엘합창단(010-4183-2293)</p> <p>중 한얼악회 제 6회 정기연주회 '나비아 청산가자' 18:00 초대/채수만(462-0173, 010-4503-1175)</p> <p>소 토요일상설무대-낙동민속보존회 공연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b>13</b></p> <p>중 제 4회 양태순의 춤 18:00 2만원·1만원/양태순(010-9060-8623)</p> <p>소 제 22회 흠피리 정기연주회 15:00 무료/이학봉(010-4323-3872)</p>	<p><b>14</b></p> <p>대 덕원의 숲 국가간 공동 프로젝트 등·점·섬 명상수행의 세계 '국제 禪 아티스트 초대전' 19:30 초대/이윤재(510-2949, 010-4003-7188)</p> <p>중 여음회 제 4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2천원/최은실(010-3304-5154)</p> <p>소 김은희 클래스 연주회 18:30 무료/김은희(010-9269-5567)</p>	<p><b>15</b></p> <p>대 2011 제 11회 대학교향악축제-경성대학교 19:30 초대/(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중 이동섭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이동섭(010-3586-7321)</p>	<p><b>16</b></p> <p>대 2011 제 11회 대학교향악축제-인제대학교 19:30 초대/(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중 부산선협합창단 제 3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부산선협합창단(010-3136-7798)</p> <p>소 가야금앙상블 '현의 사랑'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19:30 초대/강봉천(010-2241-6110)</p>	<p><b>17</b></p> <p>대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공연 20만원·15만원·12만원·8만원·5만원 19:30 부산문화회관(607-6057)</p> <p>중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지휘자 염진섭 초청 특별연주회'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p> <p>소 작곡모임 향천화 2011 제 23회 정기작곡발표회 19:30 초대/백승태(010-4154-1403)</p>	<p><b>18</b></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을 위한 시네마클래식'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4)</p> <p>중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풍물예술봉사단 제 1회 발표회 19:30 무료/조영희(010-2093-0770)</p> <p>소 길릴리 만남 19:00 무료/김태훈(010-2676-2297)</p>	<p><b>19</b></p> <p>대 2011 인천시립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 오라토리오 '모세' 19:30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2만원 부산극동방송(1599-8879)</p> <p>중 Happy Music Concert 그 두번째 이야기 19:00 균일 1만원/디아트(070-7532-1117)</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Brass Quintet 연주회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b>20</b></p> <p>대 2011 인천시립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 오라토리오 '모세' 15:00, 19:30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2만원 부산극동방송(1599-8879)</p> <p>중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작품발표회 17:00 무료/부산대학교(510-1740)</p>	<p><b>21</b></p> <p>중 메조소프라노 김수현 귀국 독창회 19:30 김수현(010-3220-1221)</p> <p>소 부산시립극단 제 42회 정기공연 '동토유케-Don't You Kill?' 19:30 균일 1만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p>	<p><b>22</b></p> <p>중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성합창단 제 15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부산여성문화회관(320-8331)</p> <p>소 부산시립극단 제 42회 정기공연 '동토유케-Don't You Kill?' 19:30 균일 1만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p>	<p><b>23</b></p> <p>중 부산시립합창단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4)</p> <p>소 부산시립극단 제 42회 정기공연 '동토유케-Don't You Kill?' 19:30 균일 1만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p>	<p><b>24</b></p> <p>대 부산시립무용단 제 65회 정기공연 '蘇塗, 소도'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9회 정기연주회 '국악, 자연에서 노닐다'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p> <p>소 부산시립극단 제 42회 정기공연 '동토유케-Don't You Kill?' 19:30 균일 1만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p>	<p><b>25</b></p> <p>대 부산시립무용단 제 65회 정기공연 '蘇塗, 소도'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소 김해옥 피아노 클래스 19:30 초대/김해옥(011-859-9822)</p>	<p><b>26</b></p> <p>대 톤 인 프리(Tone In Free) 윈드오케스트라 제 14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5천원/손영진(010-3848-8995)</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b>27</b></p> <p>대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김다솔 피아노 독주회' 17:00 4만원·3만원·2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p> <p>소 제 17회 뎀브르 발레연구회 정기공연 18:00 1만원·5천원/이유해(010-5159-5680)</p>	<p><b>28</b></p> <p>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11:00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4)</p> <p>중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동토유케-Don't You Kill' 11:00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4)</p>	<p><b>29</b></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4회 정기연주회(2011 부산주인사리즈) '늦가을의 우수와 황희'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중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동토유케-Don't You Kill'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4)</p> <p>소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2011 졸업작품발표회 19:30 동아대학교(200-7819, 010-4160-3806)</p>	<p><b>30</b></p>	<p><b>12/1</b></p> <p>대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2회 정기연주회-말라 서거 100주년- 19:30 3만원·2만원·1만원/BSSO(621-4577)</p> <p>중 불가리아 수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9:30 (주)프라이트(02-585-2934)</p> <p>소 정안선, 전경화 Piano Duo 연주회 19:30 초대/정안선(010-2545-2291)</p>	<p><b>12/2</b></p> <p>대 2011 고3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11:00 (사)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634-1295)</p> <p>중 제 6회 나사함 한미음악회 19:00 (사)나사함(627-8566)</p> <p>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사랑과 평화 콘서트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p>	<p><b>12/3</b></p> <p>중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 14회 정기연주회 19:30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627-8088)</p> <p>소 토요일상설무대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 November 2011 Program Guide



The Busan Cultural Center

## Exhibition Galleries

● Dong Seo University Visual Design Work Exhibition  
10/31(Mon)~11/2(Wed)  
[Open pm.6:00]  
Kim Youngil(010-9509-7975)

● The 2011th Busan Calligraphy A Biennale  
11/5(Sat)~11/8(Tue)  
11/11(Fri)~11/17(Thu)  
Park Joosang(011-567-7791)

● The 31st Busan Art Festival  
11/20(Sun)~11/26(Sat)  
Busan Art Society(632-2400)

● The 44th Dong A University Painting work Exhibition  
11/28(Mon)~12/1(Thu)  
Yim Yura(010-6291-2981)

## Sun

- Grand theater
- Medium theater
- Small theater

- B.P.O/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B.M.D.C/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Busan Metropolitan Chorus
- B.M.T/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J.C/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p>● The 2011 Yoon Yisang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 The Violin Field Prize Winner Concert 17:00 ₩50,000 ₩40,000₩30,000 ₩20,000 ₩10,000/Foundation Corporation Tongyou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055-642-8662~3)</p> <p>● The Busan Clarinet Society Concert 18:00 ₩10,000 ₩5,000 Park Mihyun(010-3872-4762)</p>	<p>● The 2011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Busan National University 19:30 Invitation/Busan Music Society(634-1295)</p> <p>● The 13th Regular Busan YMCA Chorus Concert 19:30 Free/An Yeungyoung(010-3862-8180)</p>	<p>1</p> <p>● The 5th Durujiya Flute Ensemble Concert 19:30 Free/Yoo Sunil(011-9317-2706)</p> <p>● Ko Bongsu &amp; Sin Jungsun Students Advancement Concert 19:30 Invitation/Ko Bongsu(010-4434-6605)</p>	<p>2</p> <p>● Busan Choral Festival &amp; Competition 2011- 'The Previous in Concert' 19:30 Invitation/Korea Choral Institute(623-0176)</p> <p>● Th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Concert 20:00 Invitation KeiMyung University(053-580-6520)</p> <p>● The Clarinetist Dominike Vidal Recital 19:30 Free/Lee Wonki(010-8280-4646)</p>	<p>3</p> <p>● Busan Choral Festival &amp; Competition 2011 10:00 Free/Korea Choral Institute(623-0176)</p> <p>● Busan Choral Festival &amp; Competition 2011- 'Gala Concert' 19:30 Invitation/Korea Choral Institute(623-0176)</p>	<p>4</p> <p>● Busan Choral Festival &amp; Competition 2011 10:00 Free/Korea Choral Institute(623-0176)</p>	<p>5</p> <p>● Busan Choral Festival &amp; Competition 2011 10:00 Free/Korea Choral Institute(623-0176)</p> <p>● Busan Choral Festival &amp; Competition 2011- 'Award Ceremony as well as Champion Concert 19:30 Free/Korea Choral Institute(623-0176)</p>
<p>6</p> <p>● The 2011 Yoon Yisang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 The Violin Field Prize Winner Concert 17:00 ₩50,000 ₩40,000₩30,000 ₩20,000 ₩10,000/Foundation Corporation Tongyou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055-642-8662~3)</p> <p>● The Busan Clarinet Society Concert 18:00 ₩10,000 ₩5,000 Park Mihyun(010-3872-4762)</p>	<p>7</p> <p>● The 2011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Busan National University 19:30 Invitation/Busan Music Society(634-1295)</p> <p>● The 13th Regular Busan YMCA Chorus Concert 19:30 Free/An Yeungyoung(010-3862-8180)</p>	<p>8</p> <p>● The Movie Music Plus Concert with Moon Jungsoo 19:30 ₩15,000/Busan Advancement Culture Forum(256-7645)</p> <p>● The 39th Regular Germany Songs Research Concert 19:30 ₩20,000 ₩10,000 Kim Hyunsic(010-3120-4116)</p>	<p>9</p> <p>● The 2011 Kim Boksun Ballet Performance 19:30 ₩30,000 ₩15,000 Dong A University(200-7823)</p> <p>● The 7th Regular Charity Concert -South Busan NH Chorus 19:30 Invitation Park Soonhee(010-8514-4749)</p> <p>● Choi Hyunkyung &amp; Lee Solla Dance Performance 19:30 ₩10,000/Lee Solla(010-8521-0506)</p>	<p>10</p> <p>● The 1127th MBC Thursday Concert 19:30 ₩10,000 ₩5,000 Hwang Joungmi(010-3139-6665)</p>	<p>11</p> <p>● The Special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Concert - Opera in Concert La Bohème 19:30 ₩20,000 ₩15,000 ₩10,000 B.P.O(607-3111~3)</p> <p>● The Concert, Underneath the sky 'The Moonshiners' 20:00 ₩30,000/B.C.C(607-6058)</p>	<p>12</p> <p>● The 50th Noel Chorus Foundation Celebrate Nation Land Youth Chorus Festival 15:00 Free Noel Chorus(010-4183-2293)</p> <p>● The 6th Regular HANUL Concert 18:00 Invitation/Choi Suman(462-0173)</p> <p>● Saturday Regular Stage 17:3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p>13</p> <p>● Yang Taesoon in Dance 18:00 ₩20,000 ₩10,000 Yang Taesoon(010-9060-8623)</p> <p>● The 22th Regular Ocarina Concert 15:00 Free/Lee Hakbong(010-4323-3872)</p>	<p>14</p> <p>● Life and Seon- Dance 19:30 Invitation/Lee Yunja(510-2949)</p> <p>● The 4th Regular Concert 19:30 ₩2,000/Choi Yensiil(010-3304-5154)</p> <p>● Kim Enhee Class Concert 18:30 Free/Kim Enhee(010-9269-5567)</p>	<p>15</p> <p>● The 2011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Kyong Sung University 19:30 Invitation/Busan Music Society(634-1295)</p> <p>● The Pianist Lee Dongsum Recital 19:30 ₩10,000/Lee Dongsum(010-3586-7321)</p>	<p>16</p> <p>● The 2011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Injae University 19:30 Invitation /Busan Music Society(634-1295)</p> <p>● The 3rd Regular Busan Centum Chorus Concert 19:00 Free Busan Centum Chorus(010-3136-7798)</p> <p>● Gayageum(Korean zither with twelve strings) Ensemble Concert 19:30 Free/Kang BongChun(010-2241-6110)</p>	<p>17</p> <p>● The Moscow Philharmonic Orchestra Concert 19:30 ₩200,000 ₩150,000 ₩120,000 ₩100,000 ₩80,000 ₩50,000 B.C.C(607-6057)</p> <p>● The Busan Metropolitan Chorus Special concert 19:30 ₩10,000 ₩7,000 ₩5,000/B.M.C(607-3141-2)</p> <p>● Hyung Chun Hwe Work Performance 19:30 Invitation Hyung Chun Hwe(010-4154-1403)</p>	<p>18</p> <p>●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Concert for Youth 11:00 ₩2,000/B.C.C(607-6057)</p> <p>● The Busan Metropolitan Female Culture Center PungMunori Performance 19:30 Free/Busan Metropolitan Female Culture Center(320-8331)</p> <p>● Meet to Galilii 19:00 Free/Kim Taehoon(010-2676-2297)</p>	<p>19</p> <p>● The Musical Oratorio 'Moses' with Incheon Metropolitan Chorus 19:30 ₩100,000 ₩70,000 ₩50,000 ₩30,000 ₩20,000/FEDC(1599-8879)</p> <p>● The 2nd Happy Music Concert 19:00 ₩10,000/The Art(070-7532-1117)</p> <p>● Saturday Regular Stage 17:3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p>20</p> <p>● The Musical Oratorio 'Moses' with Incheon Metropolitan Chorus 19:30 ₩100,000 ₩70,000 ₩50,000 ₩30,000 ₩20,000/FEDC(1599-8879)</p> <p>● The Busan National University Dance Work Performance 17:00 Free/Busan National University(510-1740)</p>	<p>21</p> <p>● The Mezzo Soprano Kim Soo Hyun Recital 19:30 Kim Suhyeon(010-3220-1221)</p>	<p>22</p> <p>● The 15th Busan Metropolitan Female Culture Center Chorus Concert 19:30 invitation/Busan Metropolitan Female Culture Center(320-8331)</p> <p>● Busan Metropolitan Theatre Company Special Performance 'Don't You Kill' 19:30 ₩15,000/B.C.C(607-3151~2)</p>	<p>23</p> <p>● Concert for Youth -Busan Metropolitan Chorus 11:00 ₩2,000/B.C.C(607-6044)</p> <p>● Busan Metropolitan Theatre Company Special Performance 'Don't You Kill' 19:30 ₩15,000/B.C.C(607-3151~2)</p>	<p>24</p> <p>● The 65th Regular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Performance 19:30 ₩10,000 ₩7,000 ₩5,000/B.M.D.C(607-3131)</p> <p>● The 159th Regular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Concert 19:30 ₩10,000 ₩7,000 ₩5,000/B.M.T.O(607-3121)</p> <p>● Busan Metropolitan Theatre Company Special Performance 'Don't You Kill' 19:30 ₩15,000/B.C.C(607-3151~2)</p>	<p>25</p> <p>● The 65th Regular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Performance 19:30 ₩10,000 ₩7,000 ₩5,000 B.M.D.C(607-3131~2)</p> <p>● Kim Haeok Piano Class Concert 19:30 Free/Kim Haeok(011-859-9822)</p>	<p>26</p> <p>● The 14th Regular Tone In Free Wind Orchestra Concert 19:30 ₩10,000 ₩5,000 Son Youngjin(010-3848-8995)</p> <p>● Saturday Regular Stage 17:3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p>27</p> <p>● The Pianist Kim Dasol Recital 17:00 ₩40,000 ₩30,000 ₩20,000 Busan Arts Management(740-5833)</p> <p>● The 17th Temble ballet Society Performance 18:00 ₩10,000 ₩5,000 Lee Yuha(010-5159-5680)</p>	<p>28</p> <p>●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Concert For Youth' 11:00 ₩2,000/B.C.C(607-6044)</p> <p>● Busan Metropolitan Theatre Company Special Performance 'Don't You Kill' 11:00 ₩2,000/B.C.C(607-6044)</p>	<p>29</p> <p>● The 474th Regular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Concert 19:30 ₩10,000 ₩7,000 ₩5,000 B.P.O(607-3111~3)</p> <p>● Busan Metropolitan Theatre Company Special Performance 'Don't You Kill' 11:00 ₩2,000/B.C.C(607-6044)</p> <p>● The 2011th Dong A University Dance Work Performance 19:30 Free/Dong A University(200-7819)</p>	<p>30</p>	<p>12/1</p> <p>● The 32th Regular Busan Symphony Orchestra Concert 19:30 ₩30,000 ₩20,000 ₩10,000/BSO(621-4577)</p> <p>● The Bulgaria Shuman Philharmonic Orchestra 19:30 ProArt(02-585-2934)</p> <p>● Piano Duo concert 19:30 Invitation/Joung Ansun(010-2545-2291)</p>	<p>12/2</p> <p>● Concert for Test Taker 11:00 Korea Music Society(634-1295)</p> <p>● The 6th Nasaham Concert 19:00 Nasaham(627-8566)</p> <p>● The Concert, Underneath the sky 'Love &amp; Peace' 20:00 ₩30,000/B.C.C(607-6057)</p>	<p>12/3</p> <p>● The 14th Incorean Academy Orchestra concert 19:30/Incorean(627-8088)</p> <p>● Saturday Regular Stage 17:3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부산시립무용단 제 65회 정기공연  
The 65th Bi-annu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蘇 소 塗 도

안무 · 구성 홍기태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무용단 후원 metro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2 [www.koreanfolkdance.com](http://www.koreanfolkdance.com)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culture.busan.go.kr](http://culture.busan.go.kr) 전지점

셔틀버스운행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 7번가파자앞(19:00 출발)

2011. 11.24(목)~25(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2011년 12월 9일(금) 선비들의 기상이 넘치는 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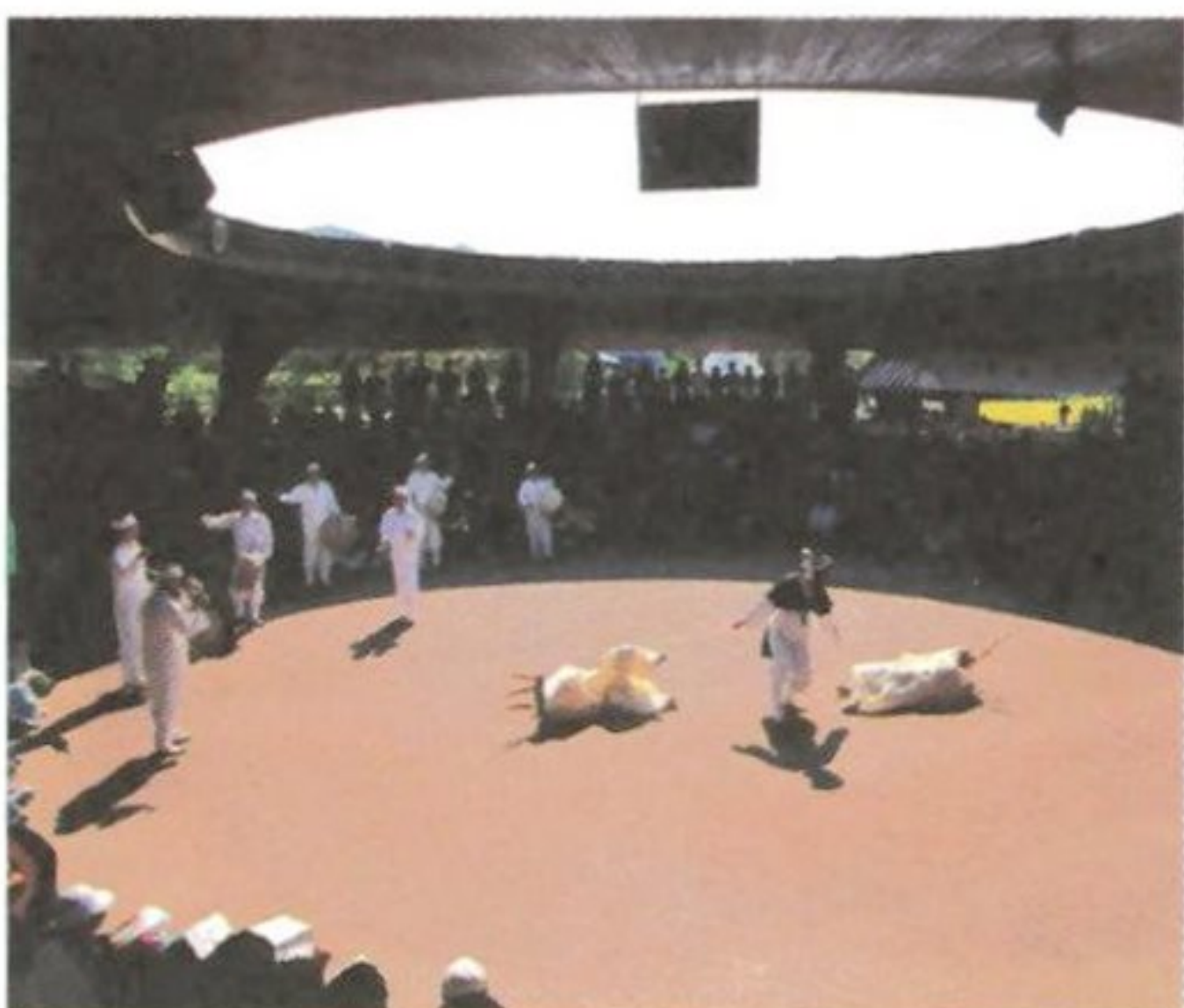
남사예담촌

지리산을 품고 있는 청정골 산청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고려말 공민왕 때 문익점(文益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면화(棉花)를 재배한 목면시배유지를 시작으로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산청 남사예담촌 등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 10:30 산청도착, 목면시배유지, 성철대종사생가 등 방문
- ⊙ 13:00 남사예담촌 도착, 중식
- ⊙ 14:00 남사예담촌 마을 투어, 농촌체험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 2012년 1월 13일(금)

##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 겨울 여행



하회마을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하회마을, 조선시대 5대 서원으로 꼽히는 병산서원에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배워본다.

- ⊙ 07: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 10:30 안동 도착, 부용대, 하회마을, 하회세계탈박물관 관람
- ⊙ 12:30 중식
- ⊙ 13:00 병산서원 관람
- ⊙ 14: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5:00 전통한지공장 견학 및 공예체험
- ⊙ 16:00 부산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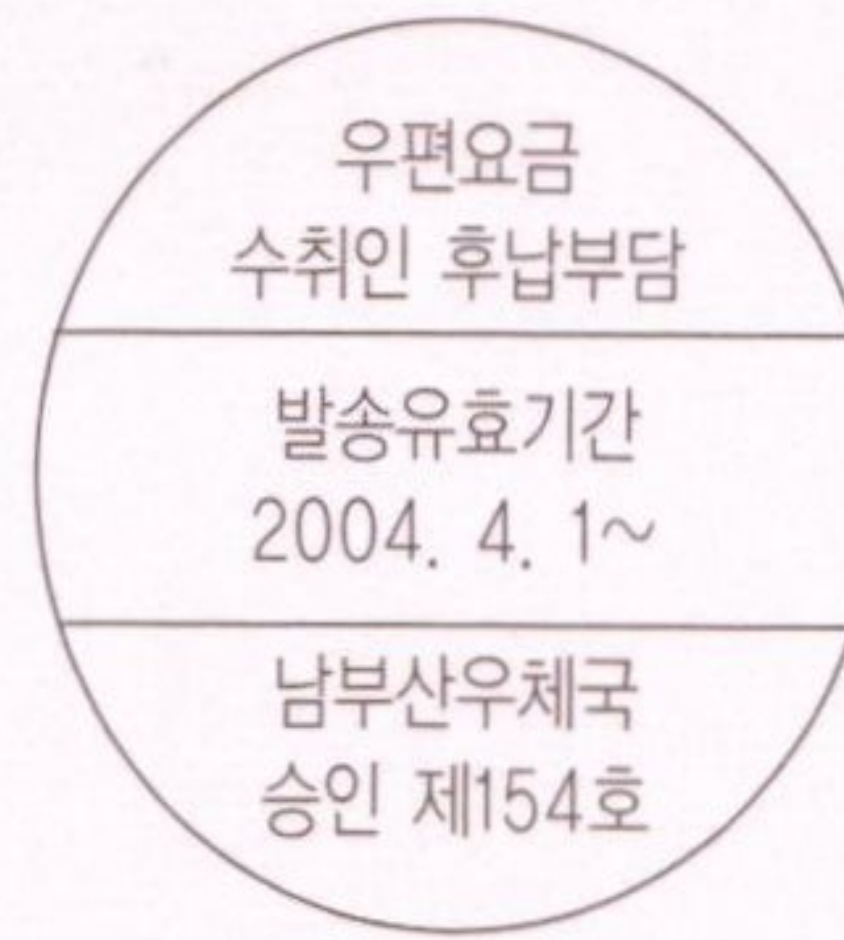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Wine·Beer·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 628-2592

## 연극 **훈남들의 수다** 20% 할인



2011.10.28(금)~11.27(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 없음)

▶ 입장권: 균일 30,000원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 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세계문화체험 중심

##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 날짜: 2011.1.1(토)~2011.12.31(토)  
▶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 제시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 무료 체험권

※ 방문 시간 사전 예약제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사랑과 평화

장미, 한 동안 뜸했었지 외다수

2011.12.2(금)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문의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 공연과 051) 607-6057

입장권 전석 3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로맨틱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20% 할인



2011.11.18(금)-2012.1.1(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 없음)

▶ 입장권: 균일 35,000원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 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Blank text area for answer 2.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NO

YES



“ 화학 및 IT 소재 분야의 신기술을 선도하고  
인류번영에 기여하는 기업 (주)엠피온스 입니다”



### 사업분야

#### 경화제사업(Hardner)

- 각종 수지의 고무, 실리콘의 중합반응 개시제, 가교제, 개질제, 경화제 등에 사용

#### 수지사업(Resins)

- 인조대리석 공정에 적합한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체도료용 수지분야도 있음

#### 첨가제사업(Additives)

- 고기능성 첨가제는 분체도료나 고분자성형물딩, 나노향균코팅첨가제에 사용

#### 기타상품(Others)

- 고온경화제 및 각종 모노머의 중합개시제, 점도조절제, 가교제 등

### 본사 & 울산공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753-19번지  
TEL : 052-239-0970~2 FAX : 052-239-3796

### 남원공장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산 118-1번지



국립발레단

# 호두까기인형

THE NUTCRACKER

12월, 마법같은 사랑이 찾아온다!

2011. 12.7 수 - 8 목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주 관 부산문화회관

입장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1588-7890 부산은행 전지점 / POPbusan 051)741-3255